

레이오너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 제168차 반연차 대회 특집호 · 1999년 1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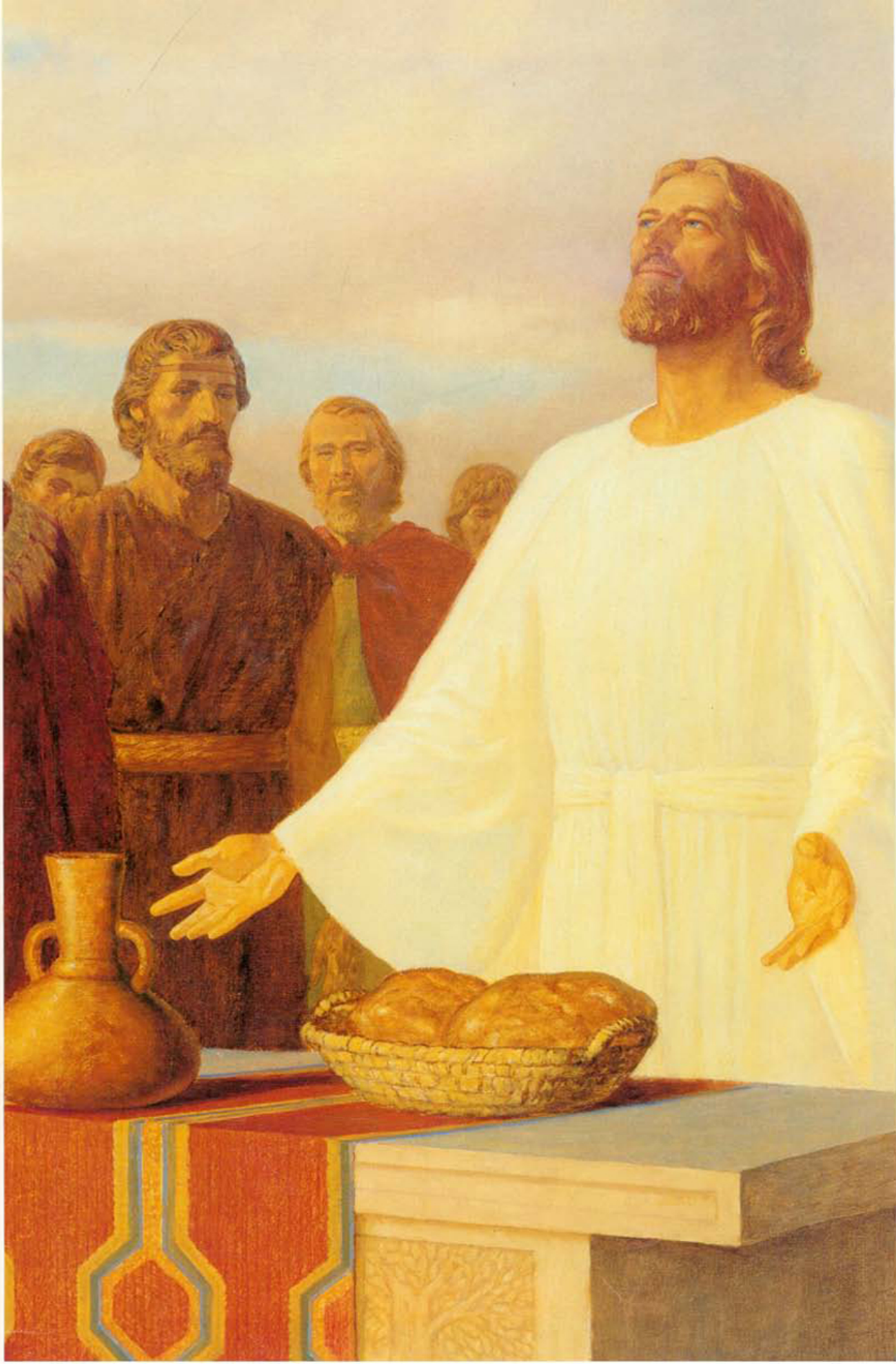




그림: 앤 라운즈, 노스 템플에 있는 시티 크릭

솔트레이크시티의 노스 템플 스트리트의 1900년 초의 정경. 시티 크릭의 북쪽 지류가 보인다.
시티 크릭은 도시의 동북쪽에 있는 계곡에서 물이 흘러 내려 왔다. 배경에는 1883년에 완공된 솔트레이크 성당이 보인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168차 반연차 대회 보고

1998년 10월 3~4일,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템플 스퀘어의 태버네클에서 행해진 말씀과 진행 절차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반연차 대회의 첫번째 모임인 토요일 오전 모임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환경이 어떠한지, 우리는 충실한 말일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면서 교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대회의 메시지를 주의깊게 경청하도록 권고했다.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 주님께 기도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에라도 우리는 전능하신 주님께 찬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전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복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금액이 아무리 적어도 우리는 십일조와 헌금을 바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사신 방법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개최된 신권 모임에서, 힝클리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저는 우리의 집이 질서의 집으로 만들어야 할 때가 왔다고 말씀드립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수입으로 뼈뺏하게 생활하고 있으며, 사실상 어떤 사람들은 빛을 지며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폭풍우의 징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주의를 해야 합



대회 동안 태버네클 연단에서 있는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니다..."

힝클리 대관장은 빛에 대해서는 이렇게 권고했다. "저는 집을 장만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능력에 맞는 집을 우리가 사야 합니다. 그러면 30년간이나 상환 연기도 되지 않고 가차 없이 우리가 계속해서 상환해야 하는 과중한 부담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검소하게 지출하시고 가능한 한 빛을 지지 않도록 하며, 빛이 있으면 빠른 시일 안에 갚고 빛의 속박에서 벗어나시기를 권고합니다. 이것은 빛에 대해 제가 꼭 해야 할 말입니다. 정말 제 능력을 다해 강조하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요일 오전 모임 말씀에서 힝클리 대관장은 "매스컴 담당자들과 다른 교회들이 번

힘없이 우리에게 질문한" 사항들, 즉 "하나님에 대한 물문 교리", 동성 연애, 낙태, 일부 다처, 교회 성장, 배우자 및 자녀 학대 및 교회 재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 대답했다.

힝클리 대관장은 대회의 마지막 모임인 일요일 모임에서 "2,000년에는 100개 이상의 성전이 운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지

어 나갈 것입니다. 이 교회의 충실한 성도들이 자신의 축복을 받고, 죽음의 장막 저편으로 먼저 가신 분들이 축복을 받도록 해주기 위해 성전을 필요로 하는 곳이 아주 많습니다."라고 말씀했다.

이틀 동안 개최된 대회에서 힝클리 대관장과 대관장단 제1보좌인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과 제2보좌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이 각각 모임의 사회를 맡았다.

토요일 오후 모임에서 3명의 총관리 역원이 칠십인 회장단의 새로운 회원으로 지지 받았으며, 칠십인 정원회의 회원들 중에서 3명이 명예 총관리 역원이 되었으며,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과 본부 청남 회장단의 역원 변경에 대한 지지가 있었다.

-편집인-

리아호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잡지입니다.

대관장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스 이 파우스트

십이사도 정원회: 보이드 케이 팩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앤 넬슨, 달린 에이치 욱스, 엘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위스린, 리처드 지스콧, 로버트 디 헤일즈, 체프리 알 홀런드, 헨리 비 아이어링

편집인: 척 에이치 고슬린드
고문: 제이 이 헨슨, 존 엠 매드슨

교과 과정부 관리자:
관리 책임자: 로널드 엘 나이튼
기획과 편집 책임자: 브라이언 케이 켈리
그래픽 책임자: 앨런 밥 로이보그

편집 스태프:
관리 편집인: 마린 케이 가드너
관리 편집인 보조: 알 밥 존슨
부편집인: 데이비드 미첼, 디앤 워커
편집 보조: 케니파 그린우드
편집/제작 부장: 매리언 마틴델
제작 보조: 베스 데일리

디자인 스태프:
잡지 그래픽 부장: 엠 엠 기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킵 밴 플렌
디자이너: 세리 쿡
제작 부장: 케인 앤 피터스
생산 관리: 레지널드 케이 크리스티슨, 페니즈 커버, 레드 알 피터슨

구독 담당 스태프:
책임자: 케이 더블류 브릭스
해부 부장: 크리스 크리스티슨
부장: 조이스 헨슨

통 권: 제 394호, 제 36권, 제 1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1999년 1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은환
편집인: 홍우광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삼립 인쇄 주식회사 김현수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입니다. 일반호는 권당 500원이며, 특집호는 1,0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1,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27,0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5,4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37,2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워드/지부의 변경된 주소를 해부 센터(☎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와 문의 사항을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International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Floor 25, Salt Lake City, UT 84150-3223, USA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국제판 잡지인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필: 간-중국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핀란드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한국어, 노르웨이어, 포르투갈어, 시모어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및 통가어
격월간-인도네시아어, 타이어
계 간-불가리아어, 세부어, 체코어, 피지어, 길버트어, 헝가리어, 아이슬란드어, 폴란드어, 루마니아어, 러시아어, 튀르키예어, 우크라이나어, 베트남어

©1998 by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January 1999 vol.36 No.1. LIAHONA (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4.00.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목차

1.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168차 반연차 대회 보고

토요일 오전 모임

4. 대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6. 우리는 보조를 갖추고 있습니까?
9. 기회의 시대
12. "와서 예언자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14. 영과 육신의 치유
17. 감사하는 마음을 가짐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엘러셀 벨라드 장로
에이치 데이비드 버튼 감독
버지니아 유 켈슨 자매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토요일 오후 모임

21. 교회 역원 지지
22. 시온의 부모
25.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키움
28. 모래알의 진주
30. 율법에 순종함 이웃을 위해 봉사함
31. 낙담을 극복함
35. 경고의 음성
35. 예언자들을 지지함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
조셉 비 위스린 장로
이 레이 베이트먼 장로
에토스 엠 애모 장로
발 알 크리스티슨 장로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신권 모임

37. 아론 신권과 성찬
40. 신권 정원회
43.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45.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48. 오늘이 내일을 결정합니다
51. 청년과 성인 형제들에게

달린 에이치 욱스 장로
디 토드 크리스티슨 장로
에이치 브라이언 리처즈 장로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일요일 오전 모임

54.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심
61.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한 소망
64. 소규모 성전-많은 축복
66. 주님에 대해 증거하십시오
68. 의의 권세
70. 사람들은 우리에게 대해 무엇을 물어 봅니까?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닐 에이 맥스웰 장로
데이비드 이 소랜슨 장로
수전 엘 워너 자매
리처드 지스콧 장로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일요일 오후 모임

73. 고귀한 생득권을 지닌 청소년
75. 개인적인 순결
78. 너희도 증거하느니라
80. 교회를 세움
82. 살아 계신 예언자: 순수한 교리의 구원
83. 감사하는 마음
85.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88. 축복을 기원함

엘 톰 페리 장로
체프리 알 홀런드 장로
로널드 티 할버슨 장로
얼 엠 몬슨 장로
매릴 시 욱스 장로
고든 비 와츠 장로
러셀 엠 넬슨 장로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상호부조회 대회

89.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92. 상호부조회에 나오십시오
94. 우리는 홀로 있지 않습니다
97. 주님의 빛 안에서 걸어감
100. 어린이에 관한 총관리 역원의 말씀
102. 교회 소식

매리 엘런 스무트 자매
버지니아 유 켈슨 자매
세리 엘 듀 자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색인

1998년 10월 반연차 대회와 상호부조회 대회

아래의 주제는 다음 연사의 말씀에 언급되어 있다.

가르침	패커, 페리
가족 역사	소렌슨
가족 관계	젠슨, 힝클리, 젠슨, 워너, 페리
간증	아이어링, 워너, 힝클리
감사	몬슨, 와츠
개심	할버슨
교육	페리
교회 재정	힝클리
권세	파우스트
게시	듀, 젠슨, 헤이트, 옥스
경전 공부	헤일즈
기쁨	할버슨, 와츠
깊이 생각함(묵상)	헤일즈
낙태	힝클리
대회	힝클리
대회관	힝클리
도전	버튼, 크리스티슨
동성애	힝클리
모범	아이어링, 몬슨
범세계적인 종교	힝클리, 힝클리, 몬슨
병고침	헤일즈
봉사	스무트, 애모, 크리스토퍼슨, 몬슨
빛	힝클리
사랑	워스런, 아이어링
상호부조회	스무트, 젠슨, 힝클리
선교 사업	베이트먼, 아이어링, 리차즈, 힝클리
성신	듀, 옥스, 맥스웰
성전과 성전 사업	벨라드, 버튼, 워스런, 소렌슨, 힝클리
성찬	옥스
소망	워스런, 맥스웰
순결	스코트, 홀런드
순수함	홀런드
순종	애모, 몬슨
신권	힝클리, 패커, 몬슨, 크리스토퍼슨, 파우스트
신뢰	크리스티슨
신앙	스무트, 젠슨, 워스런
신회	힝클리
십일조	파우스트
아론 신권	옥스
안식일	버튼
영	넬슨
예언자	젠슨, 헤이트, 옥스
예수 그리스도	몬슨, 소렌슨

우정 증진	버튼, 베이트먼
육신	넬슨
의로움	스코트
의무	파우스트
인내	맥스웰
자립	힝클리
자유의지	스코트
정원회	크리스토퍼슨
죽음	몬슨
준비	벨라드, 리차즈
지지	몬슨
지도자를 지지함	헤이트
지혜의 말씀	넬슨
태도	크리스티슨, 와츠
평의회	벨라드, 패커
학대	힝클리
헌물(헌금)	파우스트
화평	몬슨, 할버슨
회개	헤일즈
회생	파우스트

10월 반연차 대회에서 말씀하신 연사들 (가나다 순)

넬슨, 러셀 엠 85	옥스, 매릴 시 82
듀, 세리 엘 94	워너, 수잔 엘 66
리차즈, 에이치 브라이언 43	와츠, 고든 티 83
몬슨, 엘 엠 80	워스런, 조셉 비 25
몬슨, 토마스 에스 17, 21, 48	젠슨, 버지니아 유 12
맥스웰, 닐 에이 61	크리스티슨, 발 알 31
벨라드, 엠 러셀 6	크리스토퍼슨, 디 토드 40
베이트먼, 이 레이 28	파우스트, 제임즈 이 45, 54
버튼, 에이치 데이비드 9	패커, 보이드 케이 22
소렌슨, 데이비드 이 64	페리, 엘 톰 73
스무트, 매리 엘런 89	페리할버슨, 로널드 티 78
스코트, 리차드 지 68	홀런드, 제프리 알 75
아이어링, 쉐리 비 32	헤이트, 데이비드 비 35
애모, 애토스 엠 30	헤일즈, 로버트 디 14
옥스, 델린 에이치 37	힝클리, 고든 비 4, 41, 70, 88, 97

방문 교육

리아호나, 1월호와 7월호 대회 특집호에는 지정된 방문 교육 메시지가 없습니다. 방문 교사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방문을 받는 자매들의 필요 사항을 고려한 후에, 자매들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켜 줄 대회 말씀을 그달의 메시지로 선택해야 합니다.

대회 사진 촬영: 레드 클라크, 웬든 시 앤더슨, 크레이그 다이몬드, 존 루크, 매트 라이어, 태트라 햄블린, 알렉시스 듀스, 돈 도프, 브라이언트 리빙스턴, 로버트 케이스, 조디 아이비.

1998년 10월 연차 대회.
토요일 오전

대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기도와 신앙과 겸손 가운데에서 간증을 드릴 때, 귀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영감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구속주에 대한 찬미로 고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이 훌륭한 대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태버나클 안에는 약 6천 명이 운집해 있으며, 세계 전역의 다른 장소에는 수백만 명이 더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주님도 하나요, 신앙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입니다. 베드로의 훌륭한 말씀대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 (베드로 전서 2:9)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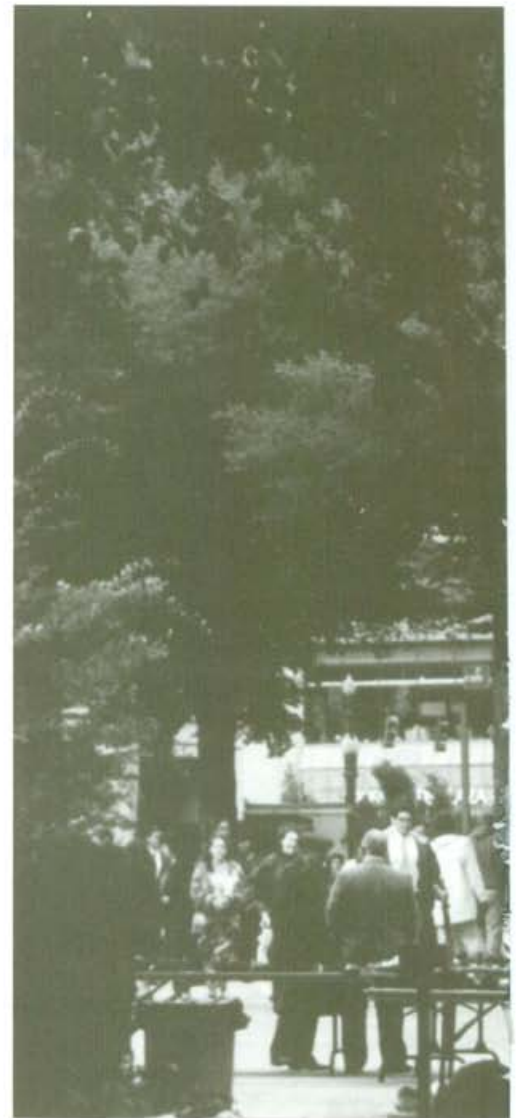
대부분, 우리는 행복한 백성입니다. 천재 지변이나 인재로 인해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을 생각하며 끊임없이 그분들을 위해 기

도합니다. 더구나 회원들 중에서 슬픔과 고통에 억눌려 계시는 분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어서 자녀들을 지켜 보고 계신다는 강한 확신을 갖고 신앙 가운데서 전진해 나갑니다.

태버나클에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하는 분이 많아 안타깝습니다. 한때는 이 건물도 매우 크고 수용력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우리 성도들을 많이 수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2주 전에, 저는 지역 대회를 위해 텍사스 주 휴스턴의 에스트로돔이라는 체육관에 있었습니다. 참석한 인원은 거의 2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템플 스퀘어에서 북쪽으로 길 건너편 구역에 대형 건물의 건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갖습니다. 대단히 큰 건축물입니다. 그 건물을 지으라는 속삭임을 따른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에 그분의 뜻을 나타내 보여 주셨다고 믿습니다.

어제, 초대형 광선 투사기가 설치되었는데, 지붕 공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 주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공사를 위해 6백 명의 인원이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 수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이 건물은 좌석이 약 2만 1천석에, 내부에 들어가는 극장 좌석도 1천석이 됩니다. 앞으로 다가올 세대에는, 이 건물에 예언자들의 음성이 가득할 것입니다. 이 건물은 기본적으로 예배의 집입니다. 그러나 예술 공간도 됩니다. 콘서트를 비롯해, 영을 고양시켜 주고 건전하며 영적인 기타 공공 활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한, 이 건물은 2천 년 4월 연차 대회가 열릴 수 있도록 준비될 것입니다. 그 절기에 탄생하신 주님께는 그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니, 먼 다른 나라에 살고 계시는 형제 자매들이 생각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테비내클 동쪽 문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대회 방문자들.

납니다. 저는 수많은 회원들을 만났으며, 그분들의 얼굴을 직접 보았으며, 그분들의 영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업에 너무나 중요한 분들입니다. 주님은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여러분을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모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마음에 맞는 목자들을 통해 여러분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14~15 참조)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을 방문하며, 여러분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우리는 천만이나 되는 거대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세주의 발 앞에 엎드려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경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얼마나 멀리 있든, 여러분은 이 대회에 참석하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우 여러 곳에서 위성 방송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위성 방송이 닿지 않는 일부 지역에는 비디오테이프가 전달될 것입니다.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교회 잡지를 통해 활자로 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우리는 충실한 말일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 주님께 기도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이라도 전능하신 주님께 찬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전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복

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금액이 아무리 적어도 십일조와 헌금을 바칠 수 있습니다. 신앙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세주께서 사신 방법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여러분이 총관리 역원과 역원들로 지지해 주신 분들이 기도와 신앙과 겸손 가운데에서 간증을 드릴 때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영감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구속주에 대한 찬미로 고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다. 아멘.

우리는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까?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기도와 신앙과 겸손 가운데에서 간증을 드릴 때,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영감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구속주에 대한 찬미로 고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 평의회에서는 회원들이 교회의 모든 축복과 ... 성전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보다 효과적으로 준비시키는 방법을 활용하여 함께 일해야 합니다.

지난 연차 대회에서,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은 전세계 여러 곳에 30여개 이상의 소규모 성전이 건립될 것이라는 역사적인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러한 소규모 성전 가운데 첫 번째 성전이 지난 여름 유타 주 몬티셀로 시에서 헌납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다시피, 힝클리 대관장님이 내세우신 목표는 금세기 말까지 운영되거나 건립되거나 설계될 성전이 적어도 100개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대관장님은 그 목표를 무난히 달성하고도 남음이 있는 분입니다.

힝클리 대관장님은 성전 건립을 위해 기울이는 이 특별한 노력을 "엄청난 사업이 될 것입니다. 여태까지 이 사업에 비견할 만한

사업이 시도된 적이 없습니다."("복음의 최고의 축복을 가져다 줄 새로운 성전들", 성도의 빛, 1998년 7월호, 88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발표가 있는 이후로, 저는 주님과 그분의 예언자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큰 신뢰를 주고 계신가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거룩한 성전의 축복에 합당하도록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준비시킬 지극히 막중한 책임이 놓여 있습니다.

총관리 역원들은 수많은 우리 회원들이 가장 가까운 성전에서조차 멀리 떨어진 세계의 여러 곳에 살고 있다는 것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참되며, 교회의 사명에 대한 그들의 신앙은 확고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기꺼이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성전들이 이처럼 헌신적인 성도들에게 훌륭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다시 힝클리 대관장님의 말씀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의식이 회복된 복음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라면, 저는 그렇다고 간증합니다만, 우리는 이를 성취시키기 위하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의 방대한 가족 역사 사업은 전부 성전 사업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전 의식은 교회가 제공하는 최고의 축복입니다."("복음의 최고의 축복을 가져다 줄 새로운 성전들", 성도의 빛, 1998년 7월호, 88 쪽)

이 사업에는 성전의 축복이 가능한 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펼쳐지도록 우리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긴급함이 내재합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순교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월포드 우드럽 대관장은 그가 예언자 요셉 스미스로부터 받았던 방문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분의 경험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월포드 우드럽이 직접 기록한 내용입니다. "[요셉 스미스가] 나를 찾아와 말했다. 그는 자신이 너무 바빠서 함께 이야기할 틈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 다음으로 스미스 부친을 만났는데, 그 역시 너무 바빠서 나와 함께 이야기할 시간조차 없었다. 나는 교회에서 높은 직책을 지녔던 6명 가량의 형제들을 만났는데, 그들도 한결같이 바빴기 때문에 함께 이야기도 나눌 수 없었다. 나는 매우 놀랐다. 얼마 후 예언자를 다시 만나, 그에게 물어 볼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얻게 되었다.

"저는 당신이 왜 그렇게 바쁘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저는 평생토록 바쁜 삶을 살아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 천국에 가게 된다면, 천국에서는 바쁜 생활이 끝나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요셉의 대답은 이러했다. '말씀드리지요, 우드럽 형제. 지상에 신권을 두고 해의 왕국에 들어 간 모든 경륜의 시대는 구세주께서 지구를 다스리러 가실 때 구세주와 함께 지구로 갈 것을 준비하기 위해 해야 할 상당한 분량의 일들이 있습니다. 다른 경륜의 시대는 이 일을 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많은 일들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두들 필요가 있습니다.'

월포드 우드럽 대관장은 이렇게 결론을 맺었다. "물론, 그 대답은 만족할 만 했다. 하지만, 그것은 내게 새로운 교리였다." (월포드 우드럽의 가르침 (1946), 288~289)

다른 말일의 예언자들도 이 위대한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성취해야 할 중요한 일을 이루기 위해 비슷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보다 빨리 움직이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은 모든 회원은 선교사라고 격려하셨습니다. (대회 보고, 4월호, 1959년, 122쪽) 스펜스 더블류 킴볼 대관장은 우리들에게 “걸음의 폭을 넓히라.” (스펜서 더블류 킴볼의 가르침 (1982), 174~175쪽)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워드 더블류 헌터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천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거룩한 것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구세주께서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대로 더욱 열심히 행해야 하는 교회 성장기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십시오”, 성도의 벗, 1995년 1월호, 87 쪽)

이제 힝클리 대관장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수행해 나가며, 보다 잘 하며, 더욱 많이 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소매를 걷어 올리고, 주님을 믿는 가운데 새로운 결의로 시작해 나갑시다.”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도의 벗, 1995년 7월호, 87쪽)

주님의 권세는 윌포드 우드럽의 시현에서 요셉 스미스로 빠르게 움직이게 하는 동기가 되었던 똑같은 긴박함으로 오늘날의 교회 지도자들을 자극하여 계속 전진하게 하고 있습니다. 힝클리 대관장은 온 힘을 기울여 일을 전진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성도들을 강화시키고 품성을 함양하며 그들로 위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도록 촉구하기 위해 전세계로 전례에 없을 정도로 많은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가능한 한 광범위한 청중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세계적인 미디어의 출연 제의에 응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은 이 경륜의 시대에 우리들에게 부과된 많은 일들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역사상 그 가장 왕성한 성전 건립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내다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대관장님은 최전방에서 역동적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을 보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에게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까?” 우리들 개개



인은 그 질문에 답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이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저는 교회의 모든 스테이크 및 와드 내의 각 평의회에서 그렇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은 결코 여유를 부리거나 다른 사람의 노력에 편승하여 자신의 부름을 행해서는 안됩니다. 교회의 각 평의회에서는 회원들이 교회의 모든 축복과 특별히 성전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보다 효과적으로 준비시키는 방법을 활용하여 함께 일해야 합니다.

불과 4년이란 짧은 시간 안에 전세계적으로 운영 중이거나 운영하게 될 성전 수가 두 배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순간이 야말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스테이크 부장과 감독 여러분, 여러분의 스테이크와 와드 내의 여러 평의회 등을 통해 합당한 회원들과 헌신적인 성전 봉사자들로 이러한 성전을 채우기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권 정원회가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가정 복음 교사와 가정 방문 교사들이 자신들에게 지명된 가족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 필요한 봉사 활동을 합니까? 각 보조 조직에서 회원들이 신앙과 간증을 키우고 있습니까? 스테이크 및 와드에서의 활동 모임이 가족과 개개인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이루어집니까? 스테이크 선교사 및 복음 선교사들과 함께 보다 많은 사람들을 찾고, 복음을 가르치고, 침례주는 일을 세심하게 조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평의회에서는 모든 새로운 회원들과 활동이 저조

한 회원들이 완전히 활동화되고 교회의 교리에 굳건하게 닦을 내리도록 돕는 일에 힘을 쓰고 계십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이 경륜의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완수하도록 하신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이 사업에 집중해야 하며, 모든 교회 회원들이 성전 축복을 받도록 준비시키는 우리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보다 현명하게 일해야 합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교회 지도자들은 보살핌의 손길을 펼치며 영향력을 넓혀야 하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명하게 우리의 가족을 먼저 보호하고 가르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시간 내에 그분이 주신 일들을 수행하는 데 보다 큰 성공을 거두기 위해 영감에 의해 조직된 교회 평의회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와드 평의회는 중대한 역할로 모든 개종자와 우성 증진을 노모하고 활동이 저조한 회원들을 활동화시키는 것을 한 예로 들겠습니다. 이미 모든 회원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에서는 교회의 새로운 개종자와 활동이 저조한 회원들의 안위에 대해 심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와드 및 지부 평의회에서도 새로운 개종자들이 새롭게 회원이 된 것에 대해 불안정한 느낌을 갖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너무나 많은 개종자들이 따뜻한 환대를 받는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새로운 개종자가 세계 편지를 보냈습니다. “때때로 ... 저는 침례를 받은 것이 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알고 강한 간증을 갖고 있지만, 저는 아직도 궁금합니다. ... 제가 구도자였을 때, 와드의 모든 회원들이 함께하며 언제나 저와 함께 이야기하고자 하며 저를 도와주려고 하였습니다. ... 제가 침례를 받은 이후로는 제가 교회에 왔는지 안 왔는지 관심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세계 말을 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왜 와드 사람들이 저를 잊어 버렸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 외롭고 혼란스럽습니다. ... 감독님께 제 문제에 대해 이야기조차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혀 가깝지 않기 때문이

요. 그분은 제가 교회로 돌아갔을 때, 저를 기억조차 못했어요. 도와주실 수 있다면 제발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놀라운 발전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개종자와 우정 증진을 하고 훨씬 많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기 위해서 모든 자원을 모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처럼 역량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는 새로운 회원들이 친구를 사귀고 부름을 받으며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양육되도록 각 보조 조직이 일조할 수 있도록 와드 평의회 회원들이 주관함으로써 가장 잘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를 통해 우리 모두를 구속하시고자 크나큰 값을 치뤄야 하셨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되었습니다. 교회에서 활동적인 회원이 되고자 노력하는 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치지 못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고난이 결코 헛되게 되는 일이 없어야 하였습니다.

자매님들은 와드의 모든 여성과 청년과 아이들 마음속에 개인적인 간증을 쌓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여러분의 힘에 감사드립니다.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평의회에서 어떻게 사랑하고, 지지하고 서로에게 복음의 아름다운 축복과 약속을 가르칠 수 있을 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세상의 모든 여성들이 청년 주체에 나온 대로 자신의 참된 운명을 이해할 수 있다면 참으로 위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주제를 잘 알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한다.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범사에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우리는 청년 가치관인 신앙, 거룩한 성품, 개인적인 가치, 지식, 선택과 책임, 선행, 성실을 생활화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러한 가치관을 받아들여 수행할 때 거룩한 성약을 맺고 지키며, 성전 의식을 받고, 승영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 준비를 갖추게 된다는 것을 믿는다.” (청녀 지도자 지침서 (1992), 4쪽) 이러한 가치를 배우고 그에 따라 행동함에 따라 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여성들은 구원

을 받고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감독단 및 청남 회장단 여러분은 청남 개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연령에 맞는 합당한 신권에 성임되기에 합당하게 되도록 도우십시오. 이 일은 여러분이 해야 할 중대한 일이며 와드 평의회 회원들의 일이기도 합니다. 아론 신권의 집사로부터 시작한 소년이 장로에 성임되지 못하고 복음 선교사로 부름을 받도록 권유받지 못하는 일이 결코 생겨서는 안됩니다.

멜기세덱 신권 정의회는 모든 남자와 그들의 가족의 영적, 현재적 복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현재 감독단의 일원에 의해 와드의 가족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은 평의회 모임에서 잘 토의되고 조정된다면,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들에 의해 행해질 수 있습니다.

스테이크 부장단과 감독들은, 만약 평의회가 초점을 잃고 영적인 힘과 방향을 제시하는 보다 높은 차원에서 기능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그들이 와드의 사람들을 영적으로 준비시키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지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개인이나 가족으로 우리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우리 자신과 가족의 충실함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함께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검토는 주님의 집에서 헌납과 회생의 성약을 맺은 우리들에게 더욱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과 가정에서 얼마나 기독교인의 덕과 복음에 충실한 모범을 보여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활동이 저조한 친구나 비회원 친구, 가족 회원, 이웃에게 사랑을 보여 줘니까? 우리의 간증을 담대히 나누고 있습니까?

저는 영감을 받은 형제들과 자매들이 하나로 결속하여 교회의 가족을 강화하고 개별 회원들을 강화하고자 노력하는 그 힘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모두 힘을 합쳐 와드 지역 내에 거하는 남녀 노소, 회원, 비회원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모두 함께 우리의 모든 역량을 모아 주님의 집에서만

이 주어질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는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일에 하나로 단결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기입니다. 세상이 시작된 그때부터 거룩한 예언자들에 의해 예견되었던 시기입니다. 이 지구 역사 of 마지막 장면이 연출될 말일의 경륜의 시대입니다. 요셉 스미스로부터 고든 비 헝클리에 이르기까지 말일의 예언자들은 “주의 크고 두려운 날”(말라기 4:5)을 예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엄숙하고 숙연한 의무임을 경고해 왔습니다. 그 날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며, 아직도 해야 할 일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지도자들의 크게 늘어난 보폭에 보조를 맞출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수고를 가장 문제가 되는 일에 집중해야 하며 사소한 것들이나 소득이 별로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아 이 위대한 대업을 향하여 나아가지 아니 하려느냐. 전진하여 물러서지 말며 용기를 내라 형제들아 나아가고 또 나아가서 승리를 쟁취하자. 기뻐하라 크게 즐거워하라.”

“보라 주의 크신 날이 가까웠으니 우리는 한 교회 회원으로서 한 배움으로서 또 말일 성도로서 의롭게 주께 제물을 바치자 주의 거룩한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합당한 우리의 죽은 자의 기록이 실려 있는 책을 주께 바치자.” (교리와 성약 128:22, 24)

형제·자매 여러분, 가족이며 성인, 젊은이, 아이들 할 것 없이 모두가 복음이 제공하는 성전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시키는 일에 다같이 동참하도록 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심을 증거합니다. 영원한 성전 의식이 교회의 충실한 회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주님을 통해서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소망과 지혜를 축복하시며 이 위대한 사업을 가족들과 교회 안에서 전진할 수 있도록 열의를 다해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기회의 시대

에이치 데이비드 버튼 감독
관리 감독단

지금은 누군가의 삶에 손길을 내밀어 영향을 줄 시기이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고 결심할 시기이며, 성전 불빛이 항상 밝게 빛나도록 도와야 할 시기입니다.



최 근 어느 성찬식에서, 한 사랑스러운 젊은 여성이 좋은 말씀을 위해서는 약간 감칠맛나는 유머나 터무니없는 거짓말 같은 것으로 시작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유머있는 말을 할 능력은 전혀 없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 오전에 이 연단에 서니 너무 편안하고 조금도 떨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면 조금 농담이 될까요?

최근에 150주년 기념 경축 행사를 끝마치면서,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께서는 다음 말씀으로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셨습니다. "고개를 돌려 미래를 보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은 기회가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사업을 크게 전진시키는 데 약간의 역할을 수행할, 너무나 훌륭한 때인 것입니다." (성도의 빛, 1998년 1월호, 67쪽)

우리 누구나 일상 생활에서 시련을 겪습니다. 하지만, 시련에는 가장 훌륭한 기회도

있습니다. 그 기회들을 알아보고 그에 따라 생활하면, 발전과 행복과 영적인 성장이 뒤따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기회가 무한히 많기는 하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연단에 서시는 연사들로부터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라는 가르침을 거듭거듭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있다면, 오늘이 바로 그대로 행하여 기회를 잡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받을 것이라고 약속된 축복들을 받을 훌륭한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안식 날"과 "노는 날"을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말일성도 지역 사회에서 몇 개의 소형 소매 대리점을 관리하는 한 친구는 제게 자기는 언제 일요일 예배 모임이 끝났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손님이 극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오락 활동이 많은 사람들의 생활에서 "최고의 안식일 활동"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한 뒤에 솔트레이크 계곡의 남동부 쪽에서 살았습니다. 가끔 이웃의 조그만 가게에 식료품을 사러 갔다가, 그 가게에서 조셉 필드 스미스 대관장님 부처가 물건을 사시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몇 차례 그런 모습을 본 뒤, 저는 스미스 대관장님께 왜 많은 식료품 가게를 두고 하필이면 시내에서부터 이 가게까지 오시느냐

고 여쭙봐야겠다는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보시던 대관장님은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어린 친구!(이 호칭에 정신이 번뜩 들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가게들을 이용한다네."

안식일을 경건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은 새로운 권고가 아닙니다. 어떤 세대든지 당시의 예언자들이 선언했고 오늘날의 예언자들이 수없이 재확인한 내용을 오늘 다시 듣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말일의 경전에는 다음과 같은 권고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더욱 온전히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흠 없게 지키고 기도의 집에 가서 나의 거룩한 날에 네 성찬을 바칠지이다. 진실로 이 날은 네 일을 쉬고 가장 높으신 이에게 예배 드리는 날로 정해져 있느니라." (교리와 성약 59:9~10)

저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그들이 정기적으로 참여하기를 너무도 바라는 운동 팀들이 일요일에 경기 일정을 잡기 때문에 더욱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안식일에 몇 가지 물건만 사면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일요일에 편의점에 잠시 들러 물건 몇 개 사는 것쯤이야 사소하게 보일 거라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저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영의 속삭임을 들을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계명 가운데 하나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은 똑바로 서서 십계명 가운데 네 번째인 다음 계명을 지키는 충실한 자로 헤아림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시기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옛날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안식일인즉" (출애굽기 20:8~10)

몇 년 전, 핑클리 대관장님은 총관리 역원으로 일하시는 동안에 성전 헌납식이나 재헌납식에 얼마나 참석하셨는가에 관한 물음에 답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최소한 운영되는 성전 수가 100개가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성전 헌납식에 참석하고 싶다는



총관리 직원들이 태버나클 합창단과 회중과 함께 일어서서 찬송을 부르고 있다.

소망을 밝히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잠시 어림셈을 해보지 않을 수 없었는데, 당시 운영 중이던 성전 수와 설계 중이거나 건축 중인 성전 수를 다 합쳐 보아도 백 개가 되려면 한참 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관리 감독단은 건축한다고 발표된 성전을 감독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대관장님, 주님께서 만수 무강의 축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당시, 그 때만 해도, 예언자께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합당한 말일성도들이 성전 예배와 관련된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기 위한 방법을 고려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거의 몰랐습니다. 지난 4월 연차 대회에서 핑클리 대관장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듣고 저 또한 여러분과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들은 최근 수

개월 동안 멀리 계시는 교회 회원들을 방문하는 여행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물품을 거의 갖지 못하신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말일의 사업에 관하여 위대한, 불타는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들은 교회와 복음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적은 액수이지만 십일조를 바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 방문을 위하여 엄청난 희생을 치르기도 합니다. 그들은 완행 버스와 낡은 배를 타고 한번에 여러 날 동안 여행을 합니다. 그들은 돈을 저축하고, 또 성전 방문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그 돈을 쓰지 않고 지냅니다. 그들은 인근에 있는 성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저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교회 회원들에게 약 30개의 작은 성전을 곧 건립

할 계획을 발표하는 바입니다. 열일곱 개의 새로운 성전이 건립 추진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성전 수는 현재 운영 중에 있는 51개 외에 47개가 될 것입니다... 급세기 말까지 꼭 100개가 되도록 하기 위해 2개를 더 건립했으면 좋겠습니다.”(성도의 벗, 1998년 7월호, 87~88쪽)

이 경륜의 시대 초기에, 우리의 선조들은 성전을 짓기 위해 많은 희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축복 받았습니다. 그분들은 육체적인 노동 뿐 아니라 미약하나마 재산까지 후하게 바쳤습니다. 처음에는 커틀랜드에서, 그리고 나부에서 성전이 완성될 때까지, 성도들의 희생은 매우 컸습니다. 그분들은 그에 순응함으로써 축복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산 꼭대기들로 이주한 후에, 서부의 여러 곳에서 성전이 다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을 짓는 일은 많은 희생을 의미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전을 짓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활용한 사람들에게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전 봉사와 관련하여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지금과 같은 기회의 때는 과거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에게서는 못을 박거나, 돌을 다듬거나, 목재를 깎거나 콘크리트를 붓거나, 성전 건축 현장에서 육체 노동을 하라는 요구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 작업이 계속 진행되어 나갈 수 있도록 충실하게 심일조를 바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보다 앞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거룩한 구원의 의식을 행할 수 있기에 합당하게 되라는 권고도 받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성전의 불빛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켜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위대한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여러 성전이 현재 주말에 하고 있는 것처럼 반새도록 불을 밝히고 있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몇 년 전, 한 대형 통신 회사가 그들의 광고에서 다음과 같은 문구를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손을 내밀어 누군가를 만져 보세요." 힐클리 대관장님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손을 내밀어 누군가를 만질 수 있는 기회가 많음을 거듭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최근 우리 교회에 들어온 분들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대관장님은 그분들에게 사랑과 우정의 손길을 내밀어 만지고, 외롭게 생활하는 분들에게 격려와 조건 없는 사랑과 필요하다면 완전한 용서의 손길까지 내밀고,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이웃과 동료들과 친구들에게 말씀과 행위를 통하여 성령의 감화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제가 참석한 한 스테이크 대회에서 순서의 일환으로 스테이크 및 와드 평의회 훈련 모임이 있었는데, 비회원 뿐 아니라 새로운 회원과 활동이 저조한 회원들에게도 손을 내밀어 만질 때 "배타적"이 아니라 "포용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에 관하여, 잘 준비된 발표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스테이크 청년 회장인 로라 칩먼 자매님은

우리가 손길을 내밀 때 "포용적"이 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섯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첫째, 자기 반성 - 우리는 무의식 중에 배타적인 태도로 의사를 소통하지 않는가? 둘째, 확인 - 우리는 최근에 침례 받은 사람이나 활동이 저조한 회원, 혹은 비회원 가운데 우리 이웃이나 지역 사회에 사는 사람들을 아는가? 셋째, 개별 특성 파악 - 우리는 우정 증진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관심사항, 재능 및 특기를 알고자 하는가? 넷째, 초대 - 우리는 적절한 활동에 이웃과 친구들을 초대하는가? 다섯째, 참여 - "포함"시키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특기와 재능과 능력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최근에 어렸을 적 친구의 장례식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형제는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시력을 겪었습니다. 그는 개념들을 잘 이해할 수는 있었지만, 읽거나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하는 말 중에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겨우 몇 마디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혼잣말이었습니다. 그만이 사용하는 말을 몇 마디나마 알아듣는 친구도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대개 우리는 그가 걱정을 표현하는지, 아니면 그만의 너무나 많은 사랑을 표현하는지를 말의 음색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린이라는 그 친구는 어릴 적의 많은 생활을 고향에서 떨어진 특수 학교에서 보냈습니다. 여름철과 휴일 기간 동안만 집에서 가족과 보냈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가족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린은 그의 필요 사항을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요양원에서 생활했습니다.

린의 사망하자, 그의 특별한 친구들 가운데 한 명이 장례식을 우리가 어렸을 때 참석했던 집회소에서 갖도록 주선했습니다. 장례식에는 요양원의 친한 친구들과 직원, 오래 전부터 그를 기억하고 있던 몇몇 와드 회원 및 십여 명의 어릴 적 친구들과 그 가족들이 참석했습니다. 린이 요양원에서 오랫동안, 때로는 외롭게 지내는 동안 그와 가깝게 지냈던 몇몇 형제들이 고별사를 전했습니다.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이전의 모든 추억들이 새롭게 떠올랐습니다. 한 친구는 언

젠가 주일학교 교사님이 반원들에게 간증을 전하도록 요청했던 때를 회상했습니다. 그 교사님은 우리에게 차례로 요청했는데, 린은 건너뛰었습니다. 아마 린이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린은 자신이 쓸 수 있는 모든 올바른 신호를 보내서, 교사님에게 자신도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뜻을 알렸습니다. 그가 말한 것의 상당 부분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우리는 그의 사랑과 완전히 기능하지 못하는 신체 안에 비극적으로 잠겨 버린 큰 영의 깊이를 느꼈습니다. 교실에 영이 참으로 강하게 임하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온 직원들과 특별한 친구들이 린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말을 들으니, 린이 그의 겸손한 방법으로 손을 내밀어 이들의 삶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최소한 세 명의 친구와 그 가족들이 정규적인 방문, 차로 데려오고 데려다 주기, 특별한 기회나 생일 파티 때 저녁 식사에 초대하기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린에게 손길을 내밀어 도왔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별사를 듣고 회고담을 모두 끝냈을 때, 우리는 모두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랑하는 천사 친구가 우리를 비롯해 자주 사랑에 찬 손길을 내밀었던 훌륭한 가족들에게 자신이 받은 것보다 훨씬 더 고귀한 가치를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참으로 기회가 많은 시대입니다. 몇 가지만 언급하자면, 누군가의 삶에 손길을 내밀어 영향을 줄 시기이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고 결심할 시기이며, 성전 불빛이 항상 밝게 빛나도록 도와야 할 시기입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신 우리 구세주요 구속주께서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며 그분들이 주신 기회들을 우리가 꼭 붙들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너무나 헌신적으로 용기와 권위의 기를 들고 앞장서 가시는 예언자께 감사와 사랑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와서 예언자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버지니아 유 겐슨 자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

주님의 살아 계신 예언자를 통해 그분의 음성을 경청하고 그 권고에 따른다면, 결코 잘못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열 한 살이었을 때, 어느 날 저녁, 창 밖에서 떠들썩하게 들려 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창문 밖을 내다보니, 거리에는 신문팔이 소년들이 신문을 잔뜩 안고서 교회 8대 대관장이신 조지 앨버트 스미스 대관장님의 별세를 큰소리로 외치고 다녔습니다. 스미스 대관장님은 제가 그 때까지 알았던 유일한 예언자였습니다. 제 마음속에 간증이 움트는 것을 느낀 것은 바로 그분의 재임하던 기간 중이었으며, 그때에 하나님의 예언자가 얼마나 중요한 분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와 가정에서 사랑하는 부모님을 통해 스미스 대관장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연결시켜 주는 고리와 같은 분으로, 그 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린 소녀에게 이것은 큰 힘을 주는 개념이었습니다! 영은 11

세의 소녀였던 제 마음속에 그것이 진실임을 확인하여 주었습니다. 대관장님의 별세 소식에 저는 엄청난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스미스 대관장이 돌아가신 지 5일 만에, 맥케이 대관장님이 태버나클에서 서서 모인 군중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예언자요, 선견자요, 계시자로서 만장 일치로 성도들의 지지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의 머리이자 우리의 주님이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조화를 이루지 않고 교회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입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교회입니다. 그분의 기록된 인도와 영감이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실족할 수 없습니다.”(레온 알 하트슨, 편저, *예언자들의 생애에 나오는 훌륭한 이야기들*, 263쪽)

저는 스미스 대관장님께 그랬듯이 곧 맥케이 대관장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분이 빛나는 백발을 하고 이 연단에 계신 것을 뵈는 적이 있는데, 마치 천사처럼 보이셨습니다.

예언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주님의 위대한 종이며, 이 지상에 오기 전에 선택되고 성임된 분들입니다. 예언자들은 그들이 봉사하는 특정한 기간 동안 교회를 관리하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분들입니다. 주님은 과거에도 늘 그러하셨듯이, 오늘날에도 그분의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여태껏 인간에

게 주셨던 모든 계시를 모아 30미터 높이에 이르도록 쌓아 놓는다 하더라도,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은, 지금이나 또는 다른 어떠한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할 살아 있는 예언자가 없이는 성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왕국의 열쇠”*, *밀레니얼 스타*, 1:548)

형제 자매 여러분, 교리와 성약 21편 4-5절에 나와 있는 다음의 지시와 약속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러므로 교회를 구성하는 너희는 요셉이 받는 대로 너희에게 주게 될 말씀과 계명을 모두 마음에 새겨 두며 내 앞에서 온전히 기록하게 생활하라.

“너희는 인내와 신앙으로 저의 말을 내 입에서 직접 나오는 말로 받아들이라.”(교리와 성약 21:4~5)

아브라함에게 보여 주신 하나님의 뜻은 모세 시대의 백성들에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보여 주신 하나님의 뜻은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에게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경륜의 시대마다 다른 가르침이 필요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경륜의 시대는 다른 모든 복음 경륜의 시대에 주어진 지식들이 하나로 합쳐진 경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충분한 복음이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는 이 시기에 살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큰 축복이라 하겠습니까.

오늘 저는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미 찬송가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초대를 하고자 합니다. “예언자의 음성 듣고, 주 말씀 믿으라” (찬송가 12장) 교회의 모든 회원은 나이나 처한 환경에 관계없이 주님의 예언자들의 영감에 찬 권고에 감동되며 축복 받을 것입니다.

다음은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이 유럽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셨을 때 뉴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진을 찍기 위한 일정이 잡혀 있었으나, 정규 사진사가 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자, 연합 통신에서는 허급지급 뉴욕에서 가장 험악한 일에 익숙한 범죄 담당 사진사를 물색하여 보냈습니다. 그는 공항에서 두 시간 정도 머물며 사진을 찍다가, 그날 늦게 엄청나게 많은 사진을 암실에서 뽑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단지 사진

두 장만 찍으면 되었습니다. 그의 상사는 즉시 그를 나무랐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과 필름을 낭비하느냐?'

"그 사진사는 팔막하게 자신이 필름 초과 비용을 기꺼이 부담하겠으며, 초과 시간에 대해서는 급료에서 공제해도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 몇 시간이 지난 후, 부사장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 범피 담당 사진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어머니께서는 구약의 이야기들을 읽어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항상 하나님의 예언자는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하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예언자의 추억", *임프르브먼트 이라*, 1970년 2월호, 72쪽)

우리가 우리 시대의 예언자를 찾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예언자의 음성에 귀기울임으로써 여러 면에서 풍요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존재인지 보다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는 계명과 권고를 받아 왔는데, 이것은 곧고 좁은 길에 있게 하기 위한 자극제가 되는 동시에, 우리가 실의에 빠졌을 때 우리에게 계속 용기가 되는 말씀이 되어 왔습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울인다면, 우리는 실족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살아 계신 예언자를 통해 그분의 음성을 경청하고 그 권고에 따른다면, 결코 잘못되지 않을 것입니다.

힝클리 대관장님은 최근 한 신문지상에서 이러한 찬사를 들으셨습니다. "[그분은] 이 시대를 위한 인물임에 틀림없다. 모두에게 악수를 청하거나 칭찬을 하며, 이따금 유머와 더불어 무엇을 말하며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분이다." ("힝클리 대관장이 87세의 연세로 교회를 이끄시며 세상을 매료시킴", *데저렛 뉴스*, 1998년 5월 23일, 1쪽) 형제 자매 여러분, 그것은 일반 대중 눈에 비친 몇몇 사실들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교회 회원으로 훨씬 많은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성령의 속삭임을 통해, 우리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힝클리 대관장님을 통해 우리와 교통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1년 반 전에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에 부름을 받기 위해 힝클리 대관장님 사무실로 갔을 때 영을 느꼈던 것은 하나의 축복이며 또한 특권이었습니다. 제가 대관장님 사무실에 가게 된 목적을 알게 되기 전, [그분과] 악수를 나누면서 개인적으로 지는 제가 하나님의 예언자의 면전에 있다는 증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는 저를 더 찬송 겸손하고 경건하게 해주었습니다. 만일 그날 제가 다소 침묵했다면, 그것은 힝클리 대관장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살아 계신 예언자가 계신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예언자만큼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는 분은 없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커틀랜드 성전 헌납식에서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하여 당신의 교회가 흑암의 광야로부터 나와서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를 세운 군대같이 두렵게 하소서." 힝클리 대관장님은 매스컴이 정보 제왕인 세상에서 우리 시대를 위해 준비 되신 분입니다.

우리들 가정이나 교회 밖에는, 정적이 죽고, 온전함이 없어지고, 선과 의가 사라지고 없다는 것을 알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 옵니다. 심지어는 전통 가족이 붕괴되어 버렸다는 소리조차 퍼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말일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예언자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지침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까! 주님의 참된 교회가 그러하듯이, 우리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신있게 계속 나아가 그분께로 다시 인도되는 길을 알고 있으니, 참으로 큰 축복을 받았습시다.

이생에서 완전히 보증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보증하는 자동차는 없습니다. 세상의 어느 은행도 여러분이 맡긴 돈이 100% 안전하다고 보장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굿 하우스키퍼 인증필에도 법적 책임을 면하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거나 통제하는 어떠한 것도 진정한 보증이란 없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있

습니다. 주님은 어떠한 책임 회피 조건도 달지 않고 우리에게 놀라운 보장을 해주셨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분은 예언자를 택하시며, 예언자로 인간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잠시 그 약속이 우리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순수하고 오염되지 않은 인도를 받기 위해 돌이킬 수 있는 곳이 적어도 하나 있는 것입니다.

상호부조회의 자매로서, 이 지상에 오기 전에도 그렇게 했듯이, 신권의 지시 하에 여성과 그 가족을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와 함께 살도록 데려 오는 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살아 계신 예언자의 음성은 명확하고 확실하며 안전하고 직접적입니다.

1995년 9월 23일 상호부조회 대회에서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이 말씀의 일부로 전하신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보다 더 명확하고 확실하며 안전하고 직접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언문을 통해 갈팡질팡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친 교훈들을 살펴보십시오. 남녀간의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여 주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남녀의 성별은 각 개인의 전세에서 결정되었고 영원에 걸친 개인의 신분의 본질적인 특성이다. 우리는 지상에 오기 전에 그분과 함께 전세에서 살았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출산하라고 명하셨으나 출산의 능력은 결혼의 성스러운 결합 안에서만 사용해야 한다고 경고하셨다. 하나님은 그분의 예언자를 통해 우리에게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 사랑하고 돌보며 우리의 자녀를 사랑과 의로움으로 양육하는 일, 즉 그들의 물질적 영적 필요 사항을 충족시켜 줄 엄숙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족은 하나님이 제정해 주셨으며, 부모는 각자의 의무와 책임 곧 아버지는 관리와 부양과 보호를 할 책임이 있고 어머니는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선언문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경고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즉 배우자나 자식을 확대하고, 가족 부양 의무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게 될 것이

라는 점입니다. 한편 이 경고의 말씀은 가족 해체는 개인과, 지역 사회와, 국가에 고대와 현대의 예언자들이 말씀한 재앙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로 그러한 현실의 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가족을 보호하고 강화시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의무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와서" 예언자의 음성을 들으라"고 권고드립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에게서 계시를 받고 상호부조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리하여 "지식과 예지가 지금 이후로 계속 유전되도록" (1996년 1월호, 성도의 벗, 102쪽) 했던 것입니다.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신권의 반차를 통해, 또한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교회의 일들을 이끌고 인도하며 지시하도록 임무 지명된 사람들을 통해, 지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 정사 4:607)

자매 여러분, 우리는 상호부조회에서 가족을 보호하고 강화시키는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힝클리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최상의 것들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 여러분이 곧 좁은 길에 머문다면, 최상의 것들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당황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 위대한 말일의 사업에 자부심을 느끼며 교회 회원이 될 수 있는 위대한 시기입니다." (웨스트 고등학교 세미나리 졸업식, 1995년 5월 14일; 1995년 9월 2일 처치 뉴스에 실림)

"와서 예언자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빛이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도록 하십시오. 저는 또한 제가 그렇듯이 여러분도 오늘날의 살아 계신 예언자이신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 영혼을 구원하는 가르침을 갖고 계시며, 그가 르침대로 생활한다면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도록 하며 우리를 하늘 본향으로 안전하게 인도되리라는 개인적인 간증을 얻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것을 기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영과 육신의 치유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고, 주님을 믿는 신앙을 키우고, ...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우리는 오직 구세주 이외의 다른 어떠한 것에서도 받을 수 없는 마음속의 영적인 변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다시 새롭게 될 것입니다.



지난 4월 연차 대회가 끝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세 번째 심장 발작을 겪고, 심장 보조관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전문의와 세심하게 돌봐 준 숙련된 의료진, 인내와 사랑으로 한결같이 정성으로 돌봐 준 아내 메리,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많은 분들 덕분에 저는 건강과 힘을 되찾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염려와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전할 메시지는 우리가 영혼의 치유 과정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저를 위대하신 치유자이자, 주님이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줄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경전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필요하다면 회개하고, 그분의 영이 주는 화평과 기쁨으로 치유받으려는 계획입니다. 제가 치유 과정에서 묵상한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 주 동안 병원 침대와 집에서 누워 있으면서, 신체 활동은 쇠약해진 육신의 미동조차 허락하지 않는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극히 제한되었으나, 마음을 사유롭게 하여 삶과 영원의 의미를 묵상해 볼 수 있는 즐거움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달력에서 모임이나 업무, 약속 등의 스케줄이 깨끗하게 지워졌기 때문에, 저는 관심을 행정 업무에서 영원한 문제로 돌릴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업속함이 너희 마음속에 머물러 있게 하라" (교리와 성약 43:34)고 하셨습니다. 제가 만일 고통에만 매달려 있었다면, 치유 과정이 저지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사색이 영과 육신의 치유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통은 사람을 사색으로 이끄는 겸손을 낳습니다. 견디어 낸 것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제게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고통의 목적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며 마음속으로 제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살펴보면서 고통을 좀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수술을 하고 난 후의 신체의 고통과 육신의 치유가 회개의 과정에서의 영적인 고통과 영혼의 치유와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몸이나 몸의 생명을 염려하지 말고 도리어 영육과 영육의 생명을 염려하라" (교리와 성약 101:37)

저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무런 해답

을 찾을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왜?, 만일에?, 하기만 했더라도 ... 하는 식으로 집착하는 것은 참으로 부질없는 짓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위안을 받기 위해 우리는 신앙을 행사해야 합니다. 왜 나란 말인가? 왜 우리 가족인가? 하필 지금 이때에? 라는 질문은 흔히 그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우리의 영성을 저하시키고 신앙에 해를 입힙니다. 우리는 주님께 마음을 돌려 이 세상에서의 고통과 시련을 이겨 내며 더욱 밝은 이해를 얻기까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데 우리의 시간과 정력을 쏟음으로써 신앙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에는 우리가 "생명의 평탄한 길을 ... 깨달[아야]"(잠언 5:6) 한다고 권고합니다. 생명의 길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걸어갈 길을 의로움 위에 놓을 수 있으며 영이 우리를 인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지키라(취하라). 보라 그리스도의 말씀은 너희가 행하여야 할 바를 모두 전하여 주심이라."(니파이아서 32:3)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취하고자 한다면, 경전을 연구하며 그것을 묵상하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일부로 취함으로써 그분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묵상의 한 요소가 되듯이, 부지런하고 충실한 기도와 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또한 묵상의 요소입니다. 주님은 요셉 스미스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계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친구여,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남겨 주어 내가 곁에 있을 동안에 나를 부르라고 명한 이 계명을 너희 가슴에 깊이 생각하게 하노라 내게 가까이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곁에 가까이 가리라. 나를 부지런히 찾으라. 그리하면 찾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교리와 성약 88:62-63)

묵상한다는 것은 성신의 "세미한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이

세상의 잡다한 것로부터 돌이켜 은화하게 이끄시는 창조주의 손길에 보다 가까이 다가서게 합니다. (열왕기상 19:12; 니일 17:45; 교리와 성약 85:6 참조) 교리와 성약에서 주님은 데이비드 휘트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은 네 창조주 ... 에게 속한 일 ... 보다 세상의 일에 더 얽매어 있도다 ... 너는 영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 하였고..."(교리와 성약 30:2)

주님의 것들 -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 계명, 생애,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사, 우리를 위한 속죄 등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본다면 구세주에 대한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과 축복에 대한 이루다 말할 수 없이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최근 수개월 동안 가족의 일원이 평온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가족들이 지켜 보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고통을 이겨내는 것을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이 생을 떠날 준비를 하는 동안, 가족들은 평화와 그들이 사랑받는 사람을 가까이 보내 주려는 마음이 찾아옴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족들은 이별의 고통을 느끼게 되지만, 신권의 축복과 가족 기도와 그들이 그렇게 멀지 않은 장래에 사랑하는 사람과 재결합하게 될 것임을 확신시켜 주는 부활을 아는 데서 오는 평안으로 위안을 얻게 됩니다. 그들의 신앙과 주님에 대한 신뢰는 그들로 하여금 왜? 그리고 만일에? 하는 따위의 의구심을 버리고 주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위안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구세주께서는 우리들 개개인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겪는 마음의 고통을 아십니다.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고, 주님을 믿는 신앙을 키우고, 필요한 경우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우리는 오직 구세주 이외의 다른 어떠한 것에서도 받을 수 없는 마음속의 영적인 변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다시 새롭게 될 것입니다.

회개에는 우리의 잘못과 회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합당한 신권 지도자에게 우리

의 죄를 고백하고, 보상해야 할 것을 보상하고,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개는 영혼의 영적인 치유를 가져 옵니다. 배나민 왕은 백성들에게 하는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지내다가 죽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저의 불사 불멸의 영을 불러일으키시어 지은 죄를 동렬히 느끼어, 주 앞에서 몸을 움츠리게 하시며 가슴을 죄의식으로 가득하게 하시며 고통과 번뇌로 가득하게 하시리니, 이는 마치 꺼지지 않는 불길 같아 그 불꽃이 타오르리라."(모사이아서 2:38)

저는 육신의 고통을 겪으면서, 더 한층 깊은 영혼의 고통과 번민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통, 십자가에 매달리시며 겪으신 극심하고도 격렬한 고통뿐 아니라, 인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만성적인 번민에 휩싸이는 고통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배나민 왕은 구세주에 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보라 그는 시련을 받으며 육신의 고통과 주림과 갈증을 겪으며, 이러한으로 기력이 진하시리니, 죽음은 아닐망정 이토록 인간이 감당치 못할 온갖 고난을 겪으시어, 보라 주의 백성들의 간악함과 가증함으로 인한 큰 고뇌로 하여 온 몸의 땀구멍에서 피가 흘러 나오리라."(모사이아서 3:7)

주님께서 겪으신 더욱 크고도 격심한 고난은 신체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달리고, 조롱 받고, 매질을 당하고, 침뱀음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사랑하던 동료에 의해 배신당하고, 그가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아서도 아니며,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고통으로 인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실제로 자행되었고, 그 모든 것 하나 하나가 지극히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구세주께서 속죄를 하시면서 견뎌 내신 가장 큰 고통은 범법자들이 치유되도록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보라, 인간이 회개하면 고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나 하나님은 만민을 위하여 이미

고난을 겪었느니라. 그러나 저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겪은 것 같이 고난을 겪어야 하리니, 그 고난은 하나님으로 모든 자보다 가장 위대한 나를 고통으로 떨게 하였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했으며 육체와 영혼이 다 괴로움을 당하였으므로 …” (교리와 성약 19:16-18)

육기와 일부 경전 구절을 제외하고는 신체적 또는 육체적 고통에 대하여 언급한 경전 구절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은 주의 기쁨을 기어올려 불 만한 흥미로운 일입니다. 경전에서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고통은 불순종하는 영혼을 위해 주님과 주님의 예언자들이 겪은 고통과 고뇌입니다.

엘마 이세는 그의 개심의 이야기가 나오는 기록에서 생생한 본보기를 보여 줍니다. 엘마는 모사이의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엘마서 36:6) 고까지 할 정도로 모반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엘마의 부모님이 겪었을 고통과 비난을,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결국에는 천사를 보내 그를 꾸짖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의 고뇌를 생각해 보십시오. “네 자신이 멸망되기는 바랄망정 다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해하려 하지 말지라.”(엘마서 36:9) 엘마가 불순종을 선택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고통스럽고도 남음이 있는데, 게다가 그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게 한 원인 제공자였습니다.

엘마는 천사와 대면하여 그의 말을 들었을 때의 느낌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반과 모든 죄와 간악함을 기억하면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았다”(엘마서 36:13)고 말했습니다. 엘마가 겪은 고통은 신체적인 고통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거역함으로 인해 “영원한 고통에 싸”(엘마서 35:12)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지은 여러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하나님에게 돌이킨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 나의 고통보다 더 쓰며 괴로운 고통은 없었느니라 ... 그 후에 느낀 나의 기쁨보다 더 감미롭고 아름다운 기쁨도 없으리라.” (엘마서 36:21)

그의 기쁨은 뇌우치고 회개하는 데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엘마와 모사이의 아들들과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은 “교회를 아프게 했던 욕됨을 씻으려 지은 죄를 고백하고”(모사이아서 27:35)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데리고 오려 노력했습니다.

엘마는 오직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함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나 복음의 빛과 기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니파이인들에게 진리의 지식과 굳건한 신앙과 참된 회개가 마음의 변화를 가져 온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엘마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 현세에서, 우리 모두는 저마다 이런 저런 형태의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통은 사고나 병원 치료를 요하는 고통스런 병세에 의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데서 당연히 느끼게 되는 비통함이나 사랑과 정을 나누는 사람으로부터 애정이 싸늘하게 식었음을 느낄 때 깊은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나 좌절감을 느낄 때에도 고통은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은 흔히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결과로 오게 되지만, 구세주의 모범을 따라 생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사람들에게도 오게 됩니다.

경전에서는 “범사에 서로 상대가 되는 것이 있다...”(니파이아서 2:11)고 가르칩니다. 기쁨과 행복의 때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통 또한 모든 필멸의 인간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고통을 겪을 때 우리의 삶에서의 그러한 순간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지상에 온다는 것은 육신을 얻고 경험을 하기 위해서, 곧 기쁨과 슬픔, 고통과 위안, 편안함과 곤경, 건강과 병약함, 성공과 좌절을 경험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죽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쓰고 단 맛을 받아 기꺼이 받아들여려는 즐거운 마음으로 이러한

모든 우연성을 받아들였습니다. ... 우리는 이 지상에 내려와 우리에게 인생이 주어지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을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블 장로, *임프르브먼트 이라*, 1966년 3월호, *비극인가 운명인가?*)

올슨 에프 휘트니 장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통을 당하거나 시련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이 결코 낭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깨우쳐 주어 인내와 신앙, 강인함과 겸손함의 자질을 키워 줍니다. 우리가 고통 받는 모든 것과 견디어 내는 모든 것은, 특히 참을성 있게 그 모든 것들을 견뎌 낼 때, 우리의 인품을 도야하고, 마음을 순화시키며, 우리의 영혼을 키워 주고, 더욱 큰 사랑을 지니게 하며, 참으로 하나님의 사녀라 불리기에 합당하게 합니다. ... 우리는 이러한 깨달음을 슬픔과 고난과 땀흘려 일함과 시련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블 장로가 인용함, *임프르브먼트 이라*, 1966년, 3월호, *“비극인가, 운명인가?”* (211쪽))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돌보는 사람은 회복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병이 나면, 세심하게 돌보는 의사와 간호사, 치료사, 사랑하는 배우자, 부모님과 자녀, 친구 등이 우리를 위로해 주고 회복을 촉진시켜 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하게 자립했다 할지라도, 자신을 돌보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우리를 돌보아 주는 사람들은 치유 과정을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궁극적으로 돌보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고통의 원인이 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습니다. “네 집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너를 불드시고”(시편 55:22) “...그 때에 주께서 독생자의 기쁨으로 너희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여 주리라.” (엘마서 33:23)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권고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스스로 예수 그

리스도의 속죄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으며 언젠가는 주님에게로 돌아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날마다, 때로 매시간마다, 심지어 매순간마다, 우리의 고통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리버티 감옥에 갇혀 세인에게 잊혀지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 때 그에게 주어졌던 놀라운 권고의 말씀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아들이야, 평안할지어다. 네 불행 네 곤고는 잠시 동안이니 만일 네가 이를 잘 견디어 내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 받들어 올릴 것이요, 너는 네 원수를 모두 이기리라.” (교리와 성약 121:7-8)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고통과 시험과 시련이 닥쳐올 때, 구세주께 가까이 다가 서십시오. “여호와를 바라보며 ... 바라보[십시오].” (이사야 8:17, 니파이서 18:17)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31) 치유는 주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주님의 방법에 따라 주어질 것입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구세주께서는 우리가 경전 연구와 묵상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그분에게 나아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위대한 축복과 교훈은 역경을 극복하는 데서 옵니다. 우리가 강화되고 치유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으로 다른 사람의 기운을 북돋아 주고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의 삶에 축복하실 때 친히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이며, 우리에게 조연과 자비로운 사랑을 베푸시고자 우리가 그분께로 나아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간증 드립니다. 주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개인적으로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닥쳐오는 인생의 시련들을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 그와 같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짐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고린도후서 9:15)와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가득 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옛날, 멀리 떨어진 어느 나라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 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열 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사례하니 저는 사마리아 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지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누가복음 17:11~19)

다윗은 시편 30편에서 이렇게 맹약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께 영영히 감사하나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데살로니가인들에게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하였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고린도후서 9:15)와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가득 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잠시 암몬의 다음 말씀을 상고해 봅시다. “이제 나의 형제들아 하나님께선 사람들이 어디 있든지 모든 사람들을 살려 주심을 우리가 아노라. 주님께선 그의 백성을 낳날이 헤아리시는도다. 이것이 나의 기쁨이요, 주께 드리는 커다란 감사이니, 진정으로 내가 영원토록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엘마서 26:37)

예전에 저명한 사업가였던 로버트 더블류 우드럽은 미국 전역을 순회하면서, “인간 관계론 핵심 과정”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강연에서, 우리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썩썩, 그러시야스, 당개, 탁스, 어떤 언어로든지 간에, 자주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쓰게 되면 우리의 기분이 밝아지고, 친분 관계가 넓어지며, 완전을 향한 여정에서 생활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들, 왼쪽부터: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 제프리 알 윌런드 장로,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리처드 지 스크트 장로.

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에는 간결성, 심지어 “순수성”까지 들어 있습니다.

감사 표현이 얼마나 아름답고 웅변력 있는가 하는 것이 몇 년 전의 한 신문 기사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콜롬비아 경찰청에서는 금요일에 주인 없는 자전거 100여 대를 경매에 붙였다. 첫 번째 자전거가 올라오자, 11세된 한 소년이 “1달러(약 1천원 상당)”를 불렀다. 그러나 응찰 가격은 훨씬 높았다. 매번 새로운 자전거가 올라올 때마다 이 소년은 기대에 차서 계속 “1달러”를 불렀다.

43년 동안 도난당하거나 분실된 자전거 경매를 해온 경매인은 경주용 자전거가 올라올 때마다 그 소년의 기대가 더욱 부풀어 가는 모습을 보았다.

그런데 자전거가 한 대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 응찰가가 8달러까지 올랐다. “저기 저 소년에게 9달러에 낙찰되었습니다!”라고 경매인이 결정했다. 경매인은 자기 주머니에서 8달러를 꺼낸 뒤 소년에게 1달러를 달라고 했다. 그 소년은 1센트, 5센트, 10센트, 25센트짜리 동전까지 털어서 준 뒤 자전거를 갖고 그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몇 발자국 가지 않아서 멈췄다. 자기의 새 물건을 조심스럽게 세워 놓은 다음, 그 소년은 돌아와서 감사의 마음으로 경매인의 목을 꼭 껴

안은 뒤,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가 이 소년처럼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마지막으로 가졌던 게 언제입니까? 우리를 위해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우리가 감사를 표해야 할 친절한 행위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자주 불렀던 노래가 있었는데,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감사의 영이 와닿게 해주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휩쓸어
잃은 것을 생각해 낙심할 때
네가 받은 복을 모두 세어라
주의 크신 복에 내가 놀라리

(존슨 오트만 이세[1856~1922],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휩쓸어”, 찬송가 142장)

우주 비행사인 고든 쿠퍼는 30여년 전 지구 궤도를 도는 동안에 다음과 같은 아름답고 간결한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버지 시여, 특별히 제가 이렇게 비행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곳에 있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기묘하고 아름다운 만물을 볼 수 있게 해주신 특권에 감사드립니다.”(의회 기록, 제88차 의회의 첫 번째 모임, 1963년, 7:9156 편, 109쪽)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축복에, 평가할 수 없는 은사에… 책과 음악과 그림과, 이 축복들을 누리게 해준 위대한 발명품들에, 어린이들의 웃음에, 인간의 고통을 덜어주고 인생의 기쁨을 높여 주는 모든 방법들에, 우리를 고양시켜 주는 모든 훌륭한 것들에 감사드립니다.” (“추수 감사 300년”, 애플드 뮤직 매거진, 1945년 11월호, 614쪽)

예언자 엘마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행하는 모든 일을 주와 의논할지니, 주께서 너희를 선으로 인도하시겠음이라. 네가 밤에 누울 때 주님과 함께 하면 잠자고 있을 동안 주께서 너를 살피 주실 것이며, 아침에 일어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너희 마음이 가득 차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할진대 마지막 날에 높이 들리우리라.”(엘마서 37:37)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거운 마음을 가볍게 해주고, 선행하도록 고취시켜 주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생활에 보다 가깝게 다가오게 해줄 수 있다고 믿는 세 가지 예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낳아 주시고, 길러 주시고, 희생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행복의 계획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 애쓰신 부모님들에게 감사를 표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시내 산에서 우리의 가슴에 천둥 같은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출애굽기 20:12)

저는 구세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에 대하여 하신 표현보다 더 훌륭한 표현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 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요한복음 19:26, 27)

두 번째, 우리는 배우고자 하는 소망을 키워주고, 명예롭게 살겠다는 결심을 마음속에 갖도록 해준 학교나 교회의 어떤 선생님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었으며, 그래서 감사하게 여기는 사람들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들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사람이 자기에게 영국의 계관 시인 테니슨을 알게 해준 고등학교 여선생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감사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얼마 안돼, 부드럽게 흘러 쓴 글씨체의 선생님 답장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윌리에게,
“윌리 군의 편지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나는 조그만 방에서 혼자 지내고, 요리도 혼자 해먹어야 하는, 이제는 마지막 앞세처럼 외로이 사는 80대의 노인이 되어 있군요. 윌리 군은 내가 50년 동안 교직 생활을 해왔는데, 감사의 편지를 받은 것은 윌리 군에게서가 처음이라는 걸 알면 좀 재밌어 하겠지요. 우울하고 추운 어느 아침에 날아온 그 편지는 오랫동안 웃음을 잃었던 내게 행복을 주었어요.”

과거나 현재나, 자신의 너무나 많은 부분을 주어서, 우리가 스스로를 위해 너무나 많이 취할 수 있게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는 영원한 감사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신의 동료들에게 "감사하다"는 표현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십대 시절은 부모님 뿐 아니라 십대인 자신에게도 어려운 시기일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소년, 소녀들의 인생에서 힘든 시기입니다. 소년들은 축구팀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소녀들은 미의 여왕이 되기를 바랍니다. "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마태복음 22:14)라는 말씀이 여기에 잘 맞습니다.

여러분에게 1년 여전 솔트레이크 근처의 머레이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로, 모두가 승자이고, 패자는 한 명도 없었던 현대판 기적 이야기를 들려 드릴까 합니다.

어느 신문 기사에서 이 사건이 집중 부각되었습니다. "참된 정신을 보여 준 동문회: 학생들이 장에 여학생 2명을 머레이의 여왕으로 선발"이라는 제목의 기사였는데, 기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테드와 러스 아이어 부부는 부모로서 할 일을 했다. 그들의 딸인 셸리가 머레이 고등학교 동문회 여왕 선발 결선까지 올라갔을 때, 그들은 딸에게 뽑히지 못할 경우 멋지게 승복하라고 조언했다. 그들은 열 명의 후보 가운데 단 한 명만이 여왕으로 선발된다고 설명해 주었다... 목요일 저녁에 학교 체육관에서 학생회 임원들이 학교의 동문 여왕에게 왕관을 수여할 때, 셸리 아이어는 대신 소속감을 경험했다. 선천성 다운 증후군을 가진 3학년생이 동료 학생들로부터 동문 여왕에 선발된 것이다... 후보자들이 소개되자, 테드 아이어가 딸을 데리고 체육관으로 입장했을 때, 체육관에는 고막이 터질 듯한 환호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들은 기립한 관객들의 환호를 받았다..."

셸리를 뒤따라 나온 학생들에게도 기립 박수가 이어졌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에이프럴 퍼션은 열살 때 겪은 뇌출혈로 신체 및 정신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기립 박수가 멈추자, 이 학교의 글로 메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이 토요일 오전 모임에서 언급한 행사: 머레이 고등학교 홈 커밍 퀸으로 뽑힌 셸리 아이어 자매가 친구들과 다른 후보자들로부터 축하를 받고 있음. 데저렛 뉴스의 척 윌이 사진을 제공함.

릴 교감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학생들은 내적인 아름다움에 투표했습니다..." 감격한 부모와 교직원들과 학생들은 거침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후보들이 나오는 걸 보자 눈물이 나왔어요. 머레이 고등학교가 정말 멋진 일을 해냈다고 생각해요.' (미주리 코르데츠, 데저렛 뉴스, 1997년 9월 26일, A1, A7)

그날 저녁을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으로 만들어 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드립니다. 스코틀랜드 시인, 제임스 배리의 다음 시구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12월에 6월의 장미를 만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추억을 주셨다네."

금년 8월에, 솔트레이크 군에는 한 가지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방 및 전국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던 내용입니다. 아주 어리고, 아주 용감하며, 아주 사랑스러운 소녀 다섯 명이 슬버폭질 놀이를 하다가 어느 부모님의 차 트렁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만 트렁크 뚜껑이 닫히는 바람에, 꿈쩍도

못하게 된 아이들이 열탈진으로 모두 사망하고 만 사고였습니다.

지역 사회 전체가 엘리샤, 애슐리, 맥켈, 오드리, 제사의 죽음에 온정 있고 사려 깊은 태도를 보여 주었습니다. 꽃과 음식이 담지 않고, 전화와 방문과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그 참혹한 사건이 일어난 다음 주 일요일에, 사고 현장인 스미스 일가의 집 앞으로 애도의 차량 행렬이 길게 꼬리를 물고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저희 부모도 이렇게 애도의 뜻을 표하는 사람들 속에 있고 싶었습니다. 차를 모는 동안, 우리는 성지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길을 따라 정말로 천천히 움직여 나갔습니다. "절대 감속, 어린이 놀이터"라는 교통 표지판이 보일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 눈에는 눈물이 넘쳐 흘렀으며, 마음에서 연민의 정이 넘쳐 나왔습니다.

전 날 저녁뿐 아니라 장례식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관 앞을 지나 비통해 하는 부모와 조부모들에게 위로를 표했습니다. 세 가족 가운데 두 가족은 그 사고로 자녀를 모두 잃어 버렸습니다.



사망이 침입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적군처럼 인생의 향연 중간에 습격하여 인생의 빛과 유쾌함을 앗아가 버리기도 하고, 힘들게 걸음을 옮기는 노인에게도 찾아 오고, 아직 인생의 절반도 살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소환장을 보내며, 어린 아이의 웃음을 잠재워 버리기도 합니다.

그 어린 다섯 천사의 장례식에서 저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쉽게 하는 말에서 지워 버려야 할 한 마디가 있습니다. '뿔뿔 하기만 한다면'이라는 말입니다. 비생산적이면서, 치유와 평안의 영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말입니다. 오히려, 잠언의 다음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5, 6)"

편이 닫히기 전에, 저는 숨진 어린이마다 누군가가 선물한 예쁜 인형을 하나씩 안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인인 유진 필드의 시가 떠올랐습니다.

먼지에 덮인 조그만 장난감 강아지
충실하고 건장하게 서 있다
발장게 녹이 슬은 병정

소총을 든 채 서 있다
조그만 장난감 강아지가 새 것이었을 때
그 병정이 행진을 했을 때
그 때 리틀 보이 블루가 장난감에 입맞추고
그곳에 두었었다

"자, 내가 올 때까지 가면 안돼"
"그리고, 시끄럽게 하지 마"
그는 바퀴 달린 침대로 아장아장 걸어가
예쁜 장난감 꿈을 꾸었다
꿈 속에서 천사의 노래 소리가
리틀 보이 블루를 깨웠다
해가 바뀌고 또 해가 바뀌었지만
조그만 장난감 친구들은 진실하다!

리틀 보이 블루에게 충실한 이 장난감
친구들,

바로 옛 그 자리에서
조그만 손길을 기다리며 조그만 얼굴의
미소를 기다리며 서 있다
장난감 친구들은, 그 조그만 의자의
먼지 속에서
이 긴 세월을 기다리면서,
입맞춤하고 간 리틀 보이 블루가
어찌 된 것일까 생각하고 있다
(성도의 빛, 1976년 2월호, 15-16쪽)

그 어린 장난감 강아지와 장난감 병정은 궁급해 할지 몰라도, 한없는 사랑의 하나님은 비통에 빠진 이들이 궁급해 하도록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을 찾도록 영감을 주시며, 여러분을 안아 주십니다. 예수님은 비통에 빠진 모든 이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18)

참된 평안의 원천은 단 하나입니다. 저는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 아시는 주님이 잠시일지라도 소중한 자녀들과 떠나 있게 된 분들을 연민의 마음으로 내려다 보고 계신다고 확신합니다. 치유와 평안의 은사는 절대 필요한 것이며, 예수님은 그분의 속죄를 통해 모두에게 그러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다음의 영감에 찬 계시와 위로의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나는 책임을 질 연령에 이르기 전에 죽는 모든 어린 아이가 하늘의 해의 왕국에서 구원 받을 것을 보았느니라." (교리와 성약 137:10) "이 세상에서 자녀가 성인이 되도록 기르는 특권과 기쁨과 만족감을 빼앗긴 어머니(와 아버지)는 부활 후에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과 만족과 특권을 누리 그의 자녀가 완전히 성숙한 영의 모습으로 자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복음교리, 412쪽) 비통해 하는 사람들과, 사랑했던 소중한 자녀들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말씀이 길르앗의 유향과 같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이러한 확신을 주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편 30:5)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의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27, 2, 3)

여러분이나 저나, 진지하게 구하는 모든 이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며, 아들이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주님의 성전이 많은 나라의 땅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거룩한 성약들이 맺어집니다. 해의 영광이 순종하는 자를 기다립니다. 가족이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매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1:28, 29)

우리 모두 감사를 표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다. 아멘.

교회 역원 지지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형제 자매 여러분, 힝클리 대관장님의 지시를 받아 이제 제가 여러분께 총관리 역원,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 및 교회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에 대한 지지를 묻겠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형제를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으로, 토마스 에스 몬슨 형제를 대관장단 제1보좌로, 제임스 이 파우스트 형제를 대관장단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같은 방법으로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토마스 에스 몬슨 형제를 십이사도 정원회의의 회장으로, 보이드 케이 패커 형제를 십이사도 정원회의의 회장 대리요,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으로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패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위스틴, 리처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랜드, 헨리 비 아이어링 형제를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

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관장단 보좌와 십이사도를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잭 에이치 고슬린드 장로와 더블류 유진 헨슨 장로와 제임스 엘 패러모어 장로와 로널드 이 포울맨 장로를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의 명예 회원으로 임명하며 이분들에게 우리와 함께 감사드릴 것을 제의합니다. 우리와 함께 이분들에게 감사드리기를 원하는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몬트 제이 브러프 장로와 더블류 유진 헨슨 장로와 잭 에이치 고슬린드 장로를 칠십인 정원회의 회장단에서, 잭 에이치 고슬린드 장로와 로버트 케이 델린바호 장로와 에프 맬빈 하몬드 장로를 본부 청남 회장단에서, 글렌 엘 페이스 장로를 본부 주일 학교 회장단 제1보좌에서, 그리고 닐 에이

앤더슨 장로를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 제2보좌에서 각각 해임하며 이 직책에서 봉사한 이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릴 것을 제의합니다. 우리와 함께 이분들에게 감사드리기를 원하는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와 말린 케이 켄슨 장로와 데이비드 이 소렌슨 장로를 칠십인 정원회의 회장단의 일원으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닐 에이 앤더슨 장로를 본부 주일 학교 회장단 제1보좌로, 존 에이치 그로버 그 장로를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 제2보좌로, 그리고 로버트 케이 델린바호 장로와 에프 맬빈 하몬드 장로와 존 엠 매드슨 장로를 본부 청남 회장단으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현재 구성되어 있는 다른 총관리 역원들과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들과 회장단을 맡고 있는 총관리 역원들과 본부 보조 조직의 회장단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힝클리 대관장님, 모두 만장 일치로 지지 하셨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기도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시온의 부모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저는 부모와 가족에게 불필요한 짐이 되는 부름을 주거나 활동을 하지 않도록 지도자들이 가정을 신중히 생각해 주시길 권유하고자 합니다.



1831년, 주님께서서는 시온의 부모에게 한 계시를 주셨습니다.(교리와 성약 68:25 참조) 저는 부모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28년 간 봉사해 왔으며, 십이사도 보조로 9년 간 봉사했습니다. 모두 합하면 37년이 되는데, 이는 정확히 제 인생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보다 훨씬 오래된 또 하나의 부름을 갖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바로 부모의 부름입니다. 곧 아버지요 할아버지로서의 부름입니다. 할아버지란 호칭을 얻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증조 할아버지란 호칭을 얻기까지 또다시 20년이 걸렸습니다. 이러한 호칭들, 즉 아버지, 할아버지, 어머니, 할머니란 호칭에는 책임과 경험에서 배어 나오는 권위가 따릅니다. 경험이란 강력한 스승입니다.

제가 가진 신권의 부름은 교회에서의 제 위치를 나타내 주고, 할아버지란 호칭

은 저의 가정에서의 제 위치를 말해 줍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고자 합니다.

부모의 책임은 말일성도들이 헌신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많은 회원들이 부모로서의 책임감과 충실한 교회 활동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려고 애쓰면서 갈등을 겪습니다.

가족의 복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는 교회에 감으로써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 남자가 아내와 자녀들을 인도하고 축복하도록 권세를 주는 신권이 있으며, 영원히 그들을 함께 묶어 주는 성약이 있습니다.

교회는 “자주 모[여]”(교리와 성약 20:75) “너희가 함께 모였을 때에는… 서로 가르치며 선도하”(교리와 성약 43:8)도록 명령받았습니다. 모사이아와 엘마도 그들의 백성들에게 똑같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모사이아서 18:25 및 엘마서 6:6 참조)

우리의 목적은 “아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말라기 4:6; 니파이삼서 25:5-6참조: 교리와 성약 2:2-3)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요셉 스미스 이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는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로써 주 앞에서 질책 당할 필요가 있느니라.”(교리와 성약 93:47)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은 그의 자녀를 잘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질책이란 단어가 그의 잘못을 고쳐 주는 데 사용된 유일한 때였습니다.

그의 보좌였던 프레드릭 지 윌리엄스도 “너는… 네 자녀에게 빛과 진리를 가르치지 아니하였나니”(교리와 성약 93:41-42)라는 똑같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감독인 뉴엘 케이 휘트니(교리와 성약 93:44, 50)와 마찬가지로 시드니 리그돈도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내가 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교리와 성약 93:49)이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우리는 도덕의 기준이 하락하여 이제는 낙하의 지경에까지 이르렀음을 보아 왔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부모와 가족을 위해 돕북 부어 주시는 영감의 인도도 보았습니다.

교회의 모든 교과 과정과 활동들은 가정과 관련시켜 재구성되었습니다.

- 와드의 가르침은 가정 복음 교육이 되었고,
- 가정의 밤이 재건되었으며,
- 계보는 가족 역사로 이름이 바뀌어 가족의 모든 기록을 모으기 시작했고,
- 역사적인 가족 선언문이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평의회에 의해 발간되었으며,
- 가족은 모임이나 대회 및 회의에서 널리 알려진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 이 모든 일들은 가족을 영원히 함께 인봉하는 권능이 행사되는 성전 건축 시대의 서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족을 향한 정면 공격을 견딜 수 있도록 부모와 주님의 종들에게 내려진 영감의 영을 알 수 있겠습니까?

가족을 위해 가정 밖의 활동을 준비할 때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마련하기로 결심한 어떤 아버지처럼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목적을 위해 모든 힘을 바쳐서 성공합니다. 그리고는 그 때서야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 가족이 함께하는 것이 무시되었음을 발견합니다. 그는 만족 대신 후회를 얻게 됩니다.

활동이나 프로그램 계획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앞서다 보면 부모의 책임이나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간과하기 쉬워집니다.

이러한 교회의 활동과 프로그램이 가족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복음의 원리는 이해되고 적용이 될 때 개인이나 가족 모두를 강화시켜 주고 보호해 줍니다. 가족에 대한 헌신과 교회에 대한 헌신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저는 “아기를 낳은 뒤로 그녀는 교회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라는 말을 듣고 대꾸하는 한 여성을 보았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은 그 여성은 감정을 섞어 말했습니다. “그 자매는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아기에게 생명을 주었지요. 그리고 아기를 키우며 가르치고 있구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장애인 자녀 때문에 집에만 있어야 하는 자매와 생활비 외의 지출로 두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 거의 참석하지 못하는 형제를 활동 회원으로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자매를 본 적은 있습니까? “우리 남편은 훌륭한 아버지이지만 감독이나 스테이크 부장도, 교회의 어떤 중요한 일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을 듣고 한 아버지가 강경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훌륭한 아버지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가족을 잘 보살피면서 교회에도 충실히 나온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라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위대한 행복의 계획을 배웁니다. (엘마서 12:32 참조) 집에서는 이를 실천합니다. 교회의 모든 부름과 봉사는 가정 생활을 영위하는 데 귀중한 통찰력과 경험을 가져다 줍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이 교회의 하나의 부름이라고 잠시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시각이 더욱 명확해질 것입니다. 사실상 그것은 그 이상입니다. 하지만 그런 정도로만 생각해도 우리는 가족을 포함시키는 활동을 계획하는 방법에 보다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저의 이 말씀을 교회에서 영감으로 주어지는 부름을 거절하는 구실로 삼



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지도자들이 정을 신중히 고려하여 부모나 가족에게 불필요한 짐을 지울 활동을 계획하거나 부름을 주지 않도록 권유하는 바입니다.

최근에 저는 교회에 직책을 가진 한 젊은 부부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그들은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어린 아이들을 맡길 보모를 자주 불러야 했습니다. 이 부부는 두 사람 모두 아이들과 함께 집에 있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청소년 활동을 계획할 때는 가족, 특히 어머니를 염두에 두고 계획하십시오. 어머니는 자신의 교회 부름과 남편의 부름 이외에도 자녀들을 준비시키고 이 활동, 저 활동으로 뛰어다녀야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어머니들은 실망하고 우울에 빠지기도 합니다. 모든 일을 다해 낼 수 없어서 죄스럽다는 표현까지 적혀 있는 편지도 받아 보았습니다.

교회 참석은 일상 생활의 압박에서 벗어난 중간 휴식이라 할 수 있으며 또 그래야만 합니다. 평안과 만족을 주어야 합니다. 교회에 참석하는 것이 압박과 좌절을 안겨 준다면 이는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만이 부모의 유일한 의무는 아닙니다. 다른 기관들도 부모의 도움을 요구할 때

우 합당한 명분이 있습니다. 학교와 고용주와 지역 사회, 이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최근에 한 어머니가 자기 가족이 인적이 드문 시골 와드에서 이사 왔다면서 당연히 그곳의 활동들을 하루 저녁에 모두 몰아서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잘한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위해 시간을 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가족이 식탁 주위에 함께 앉아 있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서쪽의 더 큰 와드로 이사 왔는데 회원들의 집은 교회와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저희 가족은 화요일 밤, 수요일 밤, 목요일 밤, 금요일 밤, 토요일 밤, 그리고 일요일 밤에도 일정이 잡혀 있어요. 우리 가족에게 너무 힘들어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청소년 활동을 계획할 때는 가족, 특히 어머니를 염두에 두십시오.

대부분의 가족은 매우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건강이나 재정적인 문제로 부담을 안고 있는 사람들은 노력하다가 쉽게 지치게 되어 결국엔 비활동으로 후퇴하고 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빛과 진리의 원천이자, 가족과 더불어 도움 받을 최상의 원천에서 위험과 슬픔이 있는 암흑으로 옮겨 가고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대회장인 태버내클에 가득 차 있는 회원들.

무엇이 확실하게 가장 어려운 문제인가를 짚어 보아야겠습니다. 어떤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가르침이나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정의 손실을 충분히 보상해 줄 활동을 꾸준히 제공한다면 부모들이 주의를 기울여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거나 자녀들을 가르치기가 더 힘들어질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기도와 영감을 통해서만이 그 어려운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을 듣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하지 못한 곳에 가지 않도록 재미있는 야외 활동을 자주 가져야 합니다." 일부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내도록 부모를 가르친다면 결국에는 자녀들이 집에 있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교회나 학교에서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없는 것을 가정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은 일하는 것, 책임을 지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자녀를 갖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배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들은 교회에서 십일조의 원리를 배우지만 그 원리가 적용되는 곳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는 매우 어린 자녀들도 어떻게 십일조를 계산하고 바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언젠가 해롤드 비 리 대관장님과 자매님께서 우리 집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리 자매님은 저희 어린 아들 앞의 식탁 위에 동전을 한 움큼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아이에게 새 동전들을 한 쪽으로 밀어 놓게 하신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네 십일조야. 주님의 것이야. 다른 쪽 것은 네꺼야." 제 아이는 양쪽을 살펴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더러운 동전 더 없으세요?" 진정한 가르침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와드 평의회는 가정과 교회 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완벽한 장소입니다. 이 곳에서는 각자 다른 입장에서 가족의 역할을 하는 아버지인 신권 형제들과 어머니인 보조 조직 자매들이 영감에 찬 통찰력으로 조직의 업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평의회 회원들은 각 조직이 부모와 자녀들에게 무엇을 제공하며 어느 정도의 예산과 시간을 쓸 것인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가족을 갈라놓기 보다 단합시킬 것

입니다. 또한 자녀들을 위한 활동보다 결혼 가정이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보살피는 일에 더 많은 것을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와드 평의회는 눈에 띄는 큰 자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부모는 부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한때 자신이 걸었던 길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젊은 가족을 도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모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습니다. "시온의 스테이크 안에 자녀를 가진 양친이 있으면 그 자녀의 나이가 여덟이 되었을 때 회개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침례와 안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 등의 교리를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 죄는 부모의 머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 68:25)

이러한 와드 평의회는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상적인 곳입니다. 이 곳에서 가정과 가족이 온전히 자리할 수 있으며 교회는 부모를 밀어내기보다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가르칠 의무와 교회가 주는 축복, 양쪽 모두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더욱 위험해짐에 따라 어느 때보다도 하늘의 권능은 더 부모와 가족에게 필요해졌습니다.

저는 경전에서 많은 것들을 공부했으며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언자와 사도들이 말씀하신 많은 것들을 읽었습니다. 그분들은 한 남자이자 아버지인 제게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인 우리를 진실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것의 대부분은 제 아내와 제 아이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에 대해 제가 느끼는 것으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가정에서 배웠습니다. 제 부모로부터, 제 아내의 부모로부터, 제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제 아이들로부터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구속주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키움

조셉 비 워스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영성을 얻게 될 것이며, 신앙과 소망과 사랑이 얼마나 우리 생활의 중심 요소가 되느냐에 기초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와 보다 조화를 이루는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휴가철이나 생일같이 중요한 날들이 있으면 달력에 표시를 해두곤 합니다. 해마다 생기는 그러한 날들은 우리의 생활에 어떤 발전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가운데 신경은 반성과 결심을 하는 시간이 됩니다.

영적인 거듭남의 기념일인 칠레일은 매년 특별히 기억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날입니다. 성전 인봉일도 특별한 기념일로 되새겨 볼 수 있습니다. 그 의식을 통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과 영원히 하나로 매인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합당성에 관한 집권, 특히 연례 성전 추천서 집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청지기 직분을 잘 수행했는지, 그 발전 상황을 점검해 보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영혼을 돌보고 보살펴야 합니다. 이러한 기회에, 우리는 성약을 새롭게 하고, 결심을 확고히 하며, 영원한 목표를 세웁니다.

몇몇 중요한 사건들은 평생에 한 번만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채 15개월도 안 되어서, 정확히 말하면 454일 후면, 달력에서 연도를 나타내는 숫자 네 개가 모두 동시에 바뀌는 해의 신경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일반 여론 조사를 보면 이 특별한 달력의 변화가 "사람들의 의식에 갈수록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조사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순간을 "매우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고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한 전문가는 1천년 단위로 달력이 변화하는 이 사건은 "사람들의 생활에 심오한 이정표가 되고, 멈춰서 새로 시작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망, NFO 리서치 사, 1998년 여름호)

이 생애에서의 구세주의 성역

구세주께서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것은 거의 2천년 전에 일어났던 감히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때를 전후로 하여 달력의 연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회개의 복음을 가르치고 교회를 조직하셨으며,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 속죄하시고, 십자가에 못박히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죽음을 이기고 회개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들은 인간 행위의 표준을 세웠으며,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구세주의 재림

아마도 이 시대의 고난을 피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구세주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지만, 주님께서서는 세상에 승리의 재림을 하실 때에 관하여 가장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24:36) 그분은 감람산에서 이 진리를 가르치셨으며,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한 현대의 계시에서 "그 날과 그 시를 아는 자는 한 사람도 없나니" (교리와 성약 49:7)라는 말로 그 가르침을 반복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 친히 지상을 다스리" (신앙개조 제10조)실 때가 올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교회의 장로들에게 "나의 포도원에서 마지막으로 일하라. 최후로 땅의 주민에게 외치라 ... 이는 나의 종의 입으로써 내가 말한 바 위대한 복천년이 임할 것임이라." (교리와 성약 43:28, 30)라고 말씀하셨던 1831년보다는 지금이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오실 날에 더 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세주의 재림의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말일에 살고 있으며, 절정의 시기에 구세주께서 육신을 입고 성역을 베푸시던 때보다는 재림에 더 가까운 시기를 살고 있다는 것만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순종하는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생은 유수와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을 만나기 위한 준비로써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말일성도로서, "우리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 무엇이든지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고 듣기 좋으며 칭찬할 만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들을 구하여 마지" (신앙개조 제13조)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어떤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소망합니까? 우리는 어떤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것을 구해야 합니까? 저는 우리가 구세주와 같은 성품을 키우기 위해 노력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신앙, 소망, 사랑

사도 바울의 다음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 전서 13:13) 이 거룩한 성품이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 뿌리내려 어떤 행동에서든지 우리를 인도하게 해야 합니다. 모로나이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 중에 으뜸이 되는 사랑을 좇으라... 누구든지 마지막 날에 사랑을 지닌 것으로 인정을 받는 자에게 모든 것이 잘되리로다” (모로나이사서 7:46-47) 사랑은 신앙과 소망의 외적인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찾고 얻으면, 해의 영광의 성품의 기초가 되는 이 세 요소가 이 생과 장막 너머 다음 세상에서까지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이 생애에서 너희 육신을 다스린 그 영이 영원한 세상에서도 너희 몸을 다스리리라.” (엘마서 34:34)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러한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성품들을 강화시키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을 더욱 기울이는 일을 단 하루라도 늦추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신앙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에게 거할 것입니다. 이러한 덕성이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처럼 [우리의] 영육을 적[실]” (교리와 성약 121:45)

것이므로 우리는 주님이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흠 없고 점 없는” (베드로전서 1:19) 상태로 자신 있게 설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저는 경전을 읽고 상고할 때마다, 우리 내부에 신앙과 소망과 사랑을 키우는 일이 한 걸음 한 걸음 행해야 할 과정임을 느낍니다. 신앙은 소망을 낳고, 이 둘은 사랑을 키웁니다. 모로나이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신앙이 있어야 하리니, 신앙이 있으면 소망이 반드시 있을 것이요 소망이 있을진대 사랑이 또한 있을 것이라.” (모로나이사서 10:20) 이 세 가지 덕성은 처음에는 차례로 얻어지는 것이지만, 일단 얻기만 하면 상호 의존 관계에 있게 됩니다. 하나라도 다른 요소를 갖추지 못하고서는 모두 불완전한 것입니다. 이들은 서로 지지하고 강화시킵니다. 모로나이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너희에게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요, 또 너희에게 신앙이 없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 받지 못할 것이요 소망이 없어도 구원 받지 못하느니라.” (모로나이사서 10:21)

이것들은 우리가 구하는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특성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 [한다]” (고린도전서 13:8)고 한 바울의 가르침을 잘 압니다. 분명히 우리는 생활에서 영적으로 시들지 않는 힘을 필요로 합니다. 모로나이는 다음과 같은 계시를 기록했습니다. “신앙, 소망, 사랑이 모든 의의 근원인 내게로 이르게 함을 저들에게 보이리라.” (이더서 12:28)

오늘날 지상에 회복된 주님의 교회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세주께 인도하며,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거룩한 성품들을 키우고, 배양하며, 강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사실, 주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그분을 섬기는 데 필요한 자격들을 밝혀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겸손하며 사랑이 가득하며 신앙, 소망, 자비의 덕을 지니...는 자 아니면 이 사업을 도울 수 없느니라.” (교리와 성약 12:8)

모로나이는 “사랑은 그리스도의 참된 사

랑이라” (모로나이사서 7:47)고 가르치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마음으로 따르는 자에게 허가하시는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 (모로나이사서 7:48)도록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사랑은 그것을 구하는 자, 곧 그것은 진실되게 간구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라는 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순수한 사랑으로 가득찰 수 있게 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복음의 첫번째 원리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제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신앙개조 제4조)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입니디.]” (히브리서 11:1) “신앙이란 완전히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것들을 바라[게 됩니디.]” (엘마서 32:21) 우리 말일성도들에게는 충만한 복음이 있기 때문에 강한 신앙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구하고 상고하고 기도한다면, 보이지 않지만 참된 하나님의 것들에 대한 신앙이 커집니다. “아주 작은 신앙” (엘마서 32:27)만을 갖고 시작한다고 할지라도, 또 “비록 [우리]가 믿겠다는 의욕만을 갖는다 할지라도” (엘마서 32:28~43 참조) 보다 더 주의를 기울이면, 신앙의 작은 씨앗이 자라서 튼튼하고 충실한 간증의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우리가 회개하게 해줍니다. 주님의 속죄로 인해 가능케 된 속죄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죄와 약점과 잘못을 용서 받음으로써 오는 고요한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영적인 거듭남을 믿기에, 우리는 침례를 받고, 성신의 은사를 받습니다.

우리는 순종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구세주의 부활 덕분에, 우리는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필멸의 생을 먼저 떠

났던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다시 만나고 격안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소망

모로나이는 당시의 성도들에게 “너희가 어떠한 소망을 가져야 하겠느냐?”라고 묻고,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의 부활의 권세를 통하여 영생으로 세우심을 받으리라는 소망을 가져야 할 것이니, 이는 약속하신 바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의 신앙으로 말미암음이라.”(모로나이서 7:41) 이더서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을진대 더욱 아름다운 처소, 곧 하나님의 우편에 거하리라는 소망을 가지리라 하였으며, 이 소망이야말로 신앙에서 비롯하여 인간의 영육에 닮아 되어”(이더서 12:4)

역경의 바람이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소망의 닢을 내리고 안전하게 머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 가두지 아니하(리라)”(요한복음 14:18)라고 약속하셨으며,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성별하사 [우리]의 유익이 되게 하실 것”(니파이이서 2:2)입니다. 시련이 너무 버거운 때에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역대하 20:15)라고 하신 주님의 분명한 약속에서 힘과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

일단 신앙이 자라서 확고하고 굳건한 간증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행복의 계획에 대한 소망을 주게 되고, 우리가 사랑이 많은 신 아버지의 자녀이며,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속죄하도록 아들을 보내 주셨다는 것을 신앙의 눈으로 보고 나면, 우리는 마음에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엘마서 5:14 참조) 우리는 “구속의 사랑을 노래하겠다는 느낌”(엘마서 5:26)을 갖게 되며, 우리 마음



에는 사랑이 넘쳐흐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것보다도 저희가 얻고자 하는 것[이며]… 사람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니파이 일서 11:22-23)임을 알게 되면,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 봉사하고 그들을 축복하기 바랍니다.

가족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에서는 가족의 성스러움을 분명하게 설명하면서, “남편과 아내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엄숙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어려서부터 성전의 거룩함에 관해서,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해 놓고 계신 축복들을 누리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 거룩한 목표의 모든 면을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있으며, 자녀들은 결국 때가 되면 그것이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전

신앙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이상은 거룩한 성전에서 가장 분명하게 보입니다. 우리는 그 성전에서 인생의 목적을 배우고, 주님

과 거룩한 성약을 맺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제자들처럼 보다 굳건하게 헌신하고, 온 세대에 걸쳐 영원히 가족을 인봉하게 됩니다. 성전에서 자신의 엔다우먼트를 받고 자주 가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거룩한 의식을 받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커지고, 소망이 강해지며, 사랑이 깊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엔다우먼트를 받을 때, 주님께서 자녀들을 위해 가지신 계획을 이해하게 되고, 각자 자신의 내부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잠재력이 있음을 인식하게 되며, 성약을 끝까지 충실하게 지킬 수 있기를 바라는 소망과 그렇게 하리라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성전 의식을 받는 것은 바로 사랑을 보이는 행동이며, 이 생에서 사는 동안 받지 못한 핵심적인 축복들을 앞서 가신 분들이 얻을 수 있게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그 분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그 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은 지난 4월에 전례 없이 많은 수의 새로운 성전을 발표하시면서 “성전 의식은 교회가 제공하는 최고의 축복입니다.”(성도의 빛, 1998년 7월호, 88쪽)라고 선포하신 바 있습니다. 주님은 이전보다 더 많은 말일성도들에게 이러한 최고의 축복들을 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집에서, 충실한 교회 회원들은 “하늘에서 오는

권능”(교리와 성약 95:8)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권능을 통해 우리는 유혹을 이기고 성약을 지키며,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복음에 대한 뜨겁고 두려움 없는 간증을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지난 7월에, 저희는 핑클리 대관장님을 모시고 유타 몬테셀로 성전 헌납식에 참석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이 성전은 주님께서 우리의 예언자에게 성도들이 보다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으라고 명하신 성전의 첫번째 소산입니다. 자신의 마을에 성전이 지어질 것이라고는 기대도 하지 못했던 충실한 성도들과 함께 한 매우 영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이들은 큰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 중에는 유타 주 남동부의 고원 지대에 시운을 세우고자 오랫동안 고생하고 노력하고 희생한 홀인더-룩 개척자들의 후손도 있었습니다. (처치 뉴스, 1998년 8월 1일자, 4쪽 참조)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에서는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례 없는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핑클리 대관장님께서서는 뛰어난 지도력으로 우리에게 보다 노력하도록 독려하십니다.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영성을 얻게 될 것이며, 신앙과 소망과 사랑이 얼마나 우리 생활의 중심 요소가 되느냐에 기초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조화를 이루는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도전과 시련이 분명히 있을 테지만, 유례없이 강한 확신을 갖고 있으면 보다 큰 평안과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27 참조)

간증

특별한 견증자로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시고,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예언자인 고든 비 핑클리 대관장님을 통해 교회를 관리하신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대비하여 그분의 거룩한 성품들을 키울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모래알의 진주

이 레이 베이트먼 장로
철심인 정원희

우리 모두가 개심과 지속적인 활동과 활동 촉진이라는 과정에 균형 잡힌 노력을 기울여 ... 모래알들이 하나님 왕국에서의 진주로 변하도록 돕시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명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순종함으로써 주님으로부터 큰 은총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아들 이삭을 주님께 희생 제물로 바치고자 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계명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아브라함의 손길을 제지하시고 그를 축복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창세기 22:17)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올 때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전히 그들에게 주어지며 아브라함이 맺었던 성약을 그들 또한 맺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를 자니라” (갈라디아서 3:29)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모아 그리스도에게로 데려오는 것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인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입니다.

그들을 찾기란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찾고 있습니까? 묻고 있습니까? 비회원인 우리의 좋은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이 혹시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닙니까? 그 사실을 알아보고자 입을 열고 있습니까?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선택된 자를 모으는 부름을 받았나니, 나의 선택된 자들은 내 음성을 듣고 자기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교리와 성약 29:7) 주님의 이 권고를 지키는 데 있어서, 교회에 관해 이야기합니까? 영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의 음성을 강박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도록 권유합니까? 그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 주니까?

경전에 이와 같이 적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마태복음 13:45-46)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값진 진주임을 알고 있습니다. 모래의 작은 알갱이 하나가 저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진주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값진 진주가 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것은, 의로운 친구와 봉사하는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책임감과 그들이

지속적인 활동을 하도록 도와 주는 사랑의 양육입니다.

힝클리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절함을 보이십시오. 개심시키려면 먼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개심은 우정에 뒤따릅니다. 가르칠 기회도 우정을 다진 연후에 오는 것입니다.” (고든 비 힝클리의 가르침, 375쪽) 우리는 친구들에게 같이 교회에 가자고 권유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선교사들이 친구들에게 토론을 가르칠 때 함께합니까? 우리는 그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복음 토론을 하게 합니까? 복음 토론 기간 중에 그들을 방문합니까? 우리는 구세주께서 우리에게 하도록 하신 것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을 열고는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 중 몇 사람을 크게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노니, 저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여 입을 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준 재능을 숨겼음이라. 그러한 자에게 화가 있나니, 내가 저들을 향하여 노여워함이니라. 저들이 내게 더욱 충실하지 아니하면 가진 것마저 빼앗기리라. (교리와 성약 60:2-3)

저는 여러분에게 세인트 찰스 와드의 회원들이 짐 휴스턴 형제에게 우정과 사랑을 어떻게 베풀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짐은 다른 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그 곳으로 가는 교통편이 불편했습니다. 그를 태워다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짐을 만나는 행운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물문경이 주어졌고, 읽고 기도하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회원들은 짐이 세인트 찰스 와드로 올 수 있도록 교통편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선교사들이 토론을 가르쳤고, 짐은 읽고 기도했습니다.

짐은 침례받은 후 감독이던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짐을 감독실로 데리고 가서 교회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신권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교회 회원으로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는 아론 신권을 부여 받고 가정 복음 교사로 봉사하라는 지명을 받았습니다. 장로 정원회



로버트 시 보우든 형제가 물문 태버나클 합창단과 물문 청소년 합창단을 지휘함.

회장은 건장하고, 충실하고, 부지런한 어느 형제를 가정 복음 교육 동반자로 지명해 주었습니다. 휴스턴 형제는 세인트 찰스 와드에서 가장 새로운 회원이었지만 자신의 가정 복음 교육 임무를 잘 완수하였습니다. 그는 처음 한 달 뿐만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자신의 가정 복음 교육 임무를 완수해 왔습니다. 그는 많은 부름을 받아 봉사했으며, 그가 가장 즐겨 했던 부름 가운데 하나는 스테이크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와드 회원들은 휴스턴 형제를 일싸안으며 그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에베소서 2:19)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짐은 자신이 받은 가정 복음 교육 및 다른 부름들을 하기 위해 운전을 배우고 차를 샀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를 지켜 준 것인지 아니면 그가 우리를 바르게 지키”(모로나이사서6:4) 도록 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힝클리 대관장님이 현재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을 그 당시 휴스턴 형제와 함께 이루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금년 여름에 저는 휴스턴 형제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자신의 가정 방문 교육조가 활동이 저조한 한 회원을 활동화시키기 위해 어떻게 도왔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자매님은 성전 예비반에 참석하여

준비를 갖추며 성전에 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영의 도움을 받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찾는 일에 우리의 열의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는 입을 열어 그들과 우정을 나누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도록 권유하며, 그들을 지지하고 양육하며 지속적인 활동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어디에서라도 가능하다면 그들이 성전에 갈 때 우리도 그곳에 참석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분에게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모두가 개심과 지속적인 활동과 활동 촉진이라는 과정에 균형 잡힌 노력을 기울여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모래알을 하나님 왕국의 진주로 만드시는 일을 도와 드리도록 합시다.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장로, 제사, 교사 그리고 회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힘을 다하여 손수 일하며 내가 명한 일을 준비하며 완수하라. 이웃 각 사람에게 전하는 너희 말은 온유하고 겸허한 경교의 말이 되게 하라. (교리와 성약 38:40-41)

저는 주님이 살아 계시며 주님의 예언자이신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을 통하여 교회를 인도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율법에 순종함 - 이웃을 위해 봉사함

에토스 엠 애모 장로
칠십인 정원희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봉사하기 위한 가장 훌륭한 준비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친구 여러분, 주님의 종들이 거룩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 연단에 처음으로 올라서는 저의 마음이 어찌하리라는 것은 짐작하실 것입니다.

제 인생에 많은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저를 위해 사랑과 속죄를 베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세계 언제나 사랑과 지지를 보내 준 제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과 손자녀들에게 드리고 싶은 감사로 제 마음이 벅차 오릅니다.

브라질 육군 사관 학교의 담벼락에는 생도들이 읽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명령하게 될 것이다. 먼저 순종하기를 배우라!” 저는 어려서부터 진보에 없어서는 안 될 위대한 덕성은 순종임을 배웠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맹종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로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순종으로, 인생에서 보다 높은 영적인 수준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때에는 그것

이 근거를 두고 있는 율법을 순종하였으므로 얻게 되는 것이니라” (교리와 성약 130:21) 핑클리 대관장님은 1982년에 “모든 축복은 율법에 순종함을 근거로” (물론이란 무엇입니까? 소책자, 1982년, 6~7 쪽)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의 예를 보여 주는 가장 훌륭한 본보기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 22:42) 라고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군대에서 제가 배운 또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제 나라의 군인들이 자신들의 임무에 대해 말할 때 일한다는 동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조국과 국민들에게 봉사해야 하는 책무를 늘 염두에 두고자 봉사한다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교회 봉사에 적용하여 그 정 의가 주님의 가르침에 근접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자녀들이 어디에 살든지 그들에게 봉사하라는 의미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오늘날 거의 6만 명에 이르는 선교사들이 자신들이 살아왔던 환경과는 전혀 다른 여러 나라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전에서와 마찬가지로, 상파울로 성전에서도 많은 형제 자매들이 주님의 집에서 봉사하기 위해 어떠한 희생이라도 기꺼이 치르코자 합니다.

순종과 봉사의 가장 아름다운 본보기는 우리 주변에 가까이 사는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연로한 미망인 아나리타 드 제수스 자매님은 브라질의 안폴리스에서 살았습니다. 그 자매님은 글을 읽고 쓰는 법을 몰랐습니다. 선교사들은 매주 그녀의 집을 방문하여 그녀에게 경전을 읽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다정다감하고 친절했습니다. 주일

마다 그녀는 선교사들에게 십일조 헌금 명세서 양식을 작성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가 낸 십일조 및 헌물은 불과 몇 센트에 지나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그녀는 율법을 알았으며 그 율법에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십일조를 내고 나서는, 예배당으로 사용하던 임대 건물 중에서 성찬식이 열린던 방으로 들어가, 연단 위에 꽃을 두곤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녀는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는 곳을 아름답게 가꾸으로써 형제, 자매들에게 봉사하였습니다. 그 자매님은 자신의 신앙을 통한 지극히 간단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순종과 봉사를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봉사하기 위한 가장 훌륭한 준비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몬순 부대관장님은 지난 4월 연차 대회에서 우리에게 “계명에 순종”하고 “사랑으로 봉사” (성도의 벗, 1998년 7월호) 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아나리타 자매님은 평생토록 그렇게 행했습니다.

저는 총관리 역원으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고, 파우스트 부대관장님과 접견했습니다. 그 분은 제가 그러한 부름에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으로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파우스트 부대관장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형제님, 자신을 찾아보세요.” 그날 밤 저는 제게 맡겨진 새로운 책임과 파우스트 부대관장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새벽 무렵이 되어서야 마치 여명을 깨치는 맑고 밝은 햇살처럼 분명한 대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도 주님께 순종하며 주께서 보내시는 어느 곳에서든지 봉사하여 보드나온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에 속한 충실한 회원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한 자녀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며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요 구속주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요셉 스미스는 회복의 예언자이시고 고든 비 핑클리 대관장님은 오늘날의 교회를 관리하도록 주님께 부름을 받은 예언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 드립니다. 아멘.

낙담을 극복함

발 알 크리스티슨 장로
칠십인 정원회

우리가 주님을 믿는 신앙을 더욱 강하게 하고 조금만 더 인내를 한다면, 우리가 봉착한 문제들은 성공적인 결말을 맺으며 해결될 것입니다.



교회 회원이라면 누구나 힘겨운 책무가 따르는 부름을 받을 때, 당연히 그 순간이 있기까지 자신을 이끌어 준 사람들이나 일들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칠십인 정원회에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게 됨에 따라, 저는 친구와 가족과 특별히 제 아내, 루스 앤에게 감사를 드리며 애리조나 주 피닉스 선교부의 선교사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저는 훌륭한 신 필리핀 국민들에게 봉사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저는 어느 한 노년의 모임에 참석하여 절망을 이겨 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발표를 시작하면서, 저는 참석자들에게 자신들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문제들 가운데 그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과 익명으로 함께 나눠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카드에 적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저는 회원들이 자신들의 삶을 영위해 가면서 부

딛히게 되는 중요한 문제들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여기 그들의 문제들을 열거해 보겠습니다.

1.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하는 농장 문제.
2.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아들의 문제.
3. 심대 아들과의 갈등 문제
4. 거의 실명한 만아들 문제
5.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
6. 사랑스러운 것보다는 결점 찾기에 매달리는 남편의 문제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중대한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예언자 예녹조차도 세상의 사악함을 보고 슬픔을 느꼈습니다. "예녹이 이를 볼 때에 그의 영육에 심한 통증을 느껴 자기 형제들의 일로 울며 하늘을 향하여 이르기를, 나는 위로 받기를 거절하리이다 하니, 주께서 예녹에게 이르시되, 너는 기운을 내어 즐거워하며 바라 보라 하시는지라."(모세서 7:44)

절망을 이겨내기 위한 노력에는 거처야 할 최소한의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1. 문제에 접근하는 자신의 태도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직업 또는 생활의 환경을 바꿀 수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태도야말로 언제나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2. 가족이나 친구, 또는 워드 회원과 같이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더욱 강하고 완전한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태도를 바꾸십시오.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봄으로써 절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나 영에 관한 개척자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부모의 죽음, 흉작, 병마 등을 겪은 후, 그녀는 자신의 태도를 바꾼 영적 경험을 통해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던 중에, 그녀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지나야, 어떤 선원이라도 잔잔한 바다에서는 키를 잘 조종할 수 있단다. 암초를 만나면 이를 피해 항해해야 한단다.." 그녀는 그 즉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의 마음이 비탄의 암초에 부딪히 산산조각 나지 않도록 훌륭한 선원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어머니", 1911년 1월의 청녀 일지, 45쪽) 환경을 바꾼다는 것이 어려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태도는 절망을 물리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기꺼이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전혀 예기치 못했던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시카고에서 탑승할 비행기에 수하물을 실으려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뒤에는 한 노인이 서 있었는데 몇 분 후에 그 노인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에 가십니까?" 저는 솔트레이크로 간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노인은 "나도 그곳에 갑니다. 당신은 물론입니까?" 라고 물어 왔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노인은 자신이 평생 말일성도로 살아왔으며 열심히 준비한 끝에 마침내 성전에 가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 노인은 가방을 열고 여러 해 동안 모아 온 선교사 사진들을 모두 보여 주었습니다. 몇 분 후에 우리는 유타행 비행기 기내에서 훌륭한 얘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우리는 재빨리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저는 그가 어디로 가야 할 지를 아는지 확인한 후에 그 노인에게 작별 인사를 고했습니다.

몇 주일 후에 저는 카드 한 장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크리스티슨 형제님, 형제님의 주소를 잃어버렸다가 이제야 찾게 되어 카드를 씁니다. 시카고에서 형제님을 만

난 것은 제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저는 어느 곳도 여행한 적이 없습니다. 전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전 형제님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는 정말로 즐거웠습니다. 언젠가 형제님을 뵙기 바랍니다.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날 일부러 도움이 되고자 계획 했던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도움을 구했던 그 형제님에게, 그리고 제가 마침 그 곳에서 도울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주님을 믿는 신뢰를 쌓아 가십시오. 저는 태도 변화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주님에 대한 더 큰 신앙과 신뢰의 필요성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저는 언젠가 절망을 이겨내기 위해 도움을 받았던 한 여성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성전 의식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면서 물문경에서 몇 구절을 읽고자 책을 집어 들었습니다. 엘마서 34장 3절에 시선이 멈추었습니다. “너희가 고난을 받게 되매 나의 사랑하는 형 엘마에게 어찌해야 할까를 간절히 물었고, 그가 너희에게 마음으로 준비해야 할 바를 이야기하였으며, 참으로 신앙을 갖고 인내를 가지라고 하였으니,” 엘마서에 나오는 그 성구는 그녀가 한 기도로 구하던 응답이었습니다. 그녀로선 오랜 시간 동안 풀기 위해 애쓰던 문제였지만 그 메시지는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신앙을 더욱 강하게 하고 조금만 더 인내를 한다면, 우리가 봉착한 문제들이 성공적인 결말을 맺으며 해결될 것입니다.

교리와 성약에는 다음과 같은 권고가 있습니다. “만약 네가 슬프면 마음에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주 네 하나님께 간구하라.” (교리와 성약 136:29)

저는 우리 모두가 자신의 문제들조차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문제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더라도, 우리의 태도를 향상시킬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친구들과 가족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또한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며, 우리가 겸손하게 그분의 사랑을 구한다면 우리의 절망을 통해 도와주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경고의 음성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경고의 음성을 높여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전하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약을 맺은 제자인 우리 모두에게 관련이 있는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친절하시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경고하고자 할 때면 언제나 종들을 부르십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경고란 사람들이 실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위협에 대한 경고라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경고하라는 부름은 더욱 힘들고 중요한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요나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니느웨의 완고한 백성들에게 경고하라는 주님의 부름을 받자, 그는 처음에는 피해 달아났습니다. 그는 여러 시대의 사악한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때로는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신앙을 갖고 앞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은 그에게 안전과 성공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살아가면서 자식으로서 부모로서 체험하게 되는 경험들을 통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부모가 된 사람은 자녀들이 아직 느끼지 못하는 위협을 감지하고 불안해 한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린 자녀의 마음을 움직여 위협으

로부터 돌아서게 할 수 있을까를 알기 위해 드리는 부모의 기도만큼 열렬한 기도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대다수가 부모님이 하신 경고의 음성을 듣고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위협에서 벗어나는 축복을 받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개구쟁이 시절의 어느 토요일 오후에 저는 어머님께 제 댄에는 너무나도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하기 위해 허락을 구했을 때,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아셨던 어머님께서는 제게 부드럽게 타이르셨던 것을 지금도 잘 기억합니다. 저는 어머님께서 몇 마디 되지 않는 말로 제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던. 제가 생각하기엔 주님으로부터 받은 어머님의 힘에 지금도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보면 그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 네가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단다. 하지만, 선택은 네가 해야 한단다.” 몇 마디 되지 않는 말로 경고할 수 있었던 어머님의 힘은 제가 어머님에 대해서 알고 있던 세 가지에서 기인되었습니다. 첫째, 저는 어머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둘째, 저는 어머님께서 이미 해 오셨으며 그로 인해 축복을 받으셨던 것을 제게 하려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셋째, 어머님께서 제게 해야 했던 선택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제가 주님께 어찌 본다면 주님께서 제게 대답해 주시리라는 확고한 간증을 제게 심어 주셨습니다. 사랑과 모범과 간증. 이 세 가지가 그날 제게 열쇠가 되었듯이, 주님의 종이 높이는 경고의 음성을 듣고 주의를 기울여 축복을 받을 때마다 언제나 이 세 가지가 함께했습니다.

경고의 음성을 높여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전하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약을 맺은 제자인 우리 모두에게 관련이 있는 중요한 것입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모든 회원에게는 다음과 같은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어 백성들에게 증거하며 경고하게 하노니, 이미 경고를 받은 사람은 저마다 자기 이웃을 경고할 책임이 있느니라.” (교리와 성약 88:81)

회복의 초기에는 위의 계명과 위협의 경고를 전할 책임이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웃을 경고할 책임은 침례 성약을 받아들인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비회원 친구와 친척들에게 복음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들을 초대하여 가르치도록 부름을 받고 성별케 된 복음 선교사들에 의해 가르침을 받도록 초대하는 일입니다. 만약 어떠한 사람이 가르침을 받으라는 우리의 초대를 받아들여기로 선택한다면, 침례의 물가로 나아오고 계속해서 충실하게 남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위대한 약속의 “소개”가 비로소 이루어진 것입니다.

교회 회원인 여러분은 복음 선교사나 스테이크 선교사로부터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해도 좋으나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도움을 받아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여러분에게 친척이나 이웃, 혹은 알고 지내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보시라고 할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날짜를 정해 가르칠 사람이나 가족을 준비시키고, 가능하다면 선교사를 초대할 준비시켜 달라고 부탁할 것입니다. 저는 바로 그와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선교사들의 이러한 초대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80세 된 한 미망인을 자매 선교사들에게 소개시켜 복음을 배우게 하고 제 자신이 그녀를 침례 주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제 두 손을 그녀의 머리 위에 얹고 교회 회원으로 확인했을 때, 저는 그녀가 침례받기로 결정함에 따라 그녀의 조상들과 후손들이 축복 받으리라는 느낌에 따라 축복을 주었습니다.

다. 그녀는 돌아가셨지만, 몇 주 내에 저는 그녀의 아들과 함께 성전에 가서 그 아들이 그녀에게 인봉되는 의식에 참여할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도록 초대했던 사람들과 함께 이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이며, 그 결과 생애에서 이보다 기쁜 일이 별로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선교사나 우리 모두에게 똑같습니다.

“만일 너희가 나의 아버지의 왕국의 내게로 데려온 단 한 사람으로 인한 기쁨이 그처럼 클진대 많은 사람을 내게로 데려오게 될 때면 너희 기쁨은 얼마나 더 크겠느냐!” (교리와 성약 18:16)

물론 선교사들이 우리를 돕고 격려하겠지만, 침례실이나 성전에서 그런 순간들을 보다 자주 갖는 것은 우리 자신의 책임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하는 것과 그에 관해 무엇을 하기로 선택하는가에 크게 좌우됨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위협이 없다면 경고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것을 느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협의 징후들을 짐짓 무시해 버리려는 태도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보다 쉽게 받아들여줍니다. 만족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굳이 전할 필요가 있을까? 아무 것도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자신과 저 사람들에게 설마 위협이 있겠는가?

위험이란 눈에 잘 띄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나 우리에게 실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가족들과 더불어 영생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부여받은 사람의 손에 의한 침례를 받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로 선택하는 것임을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가족이 영원히 함께하는 유일한 길은 이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공되는 성스러운 성약을 받아들이고 지키는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게으름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분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 분은 저를 고용해 주었으며, 제게 친절히 대해 주었습니다.

다. 그 분은 저를 높이 평가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저는 그 분이 알게 된 유일한 말일성도였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와 함께 복음에 대해 이야기할 좀 더 나은 순간을 올 때를 기다린다는 명목으로 둘러댔던 온갖 변명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은퇴한 후 저는 멀리 떨어져 살게 되었는데, 어느 늦은 저녁에 그 분은 부인과 함께 캘리포니아 카멜 시에 있는 자신들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교통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느꼈던 비통한 감정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분은 부인을 사랑했습니다. 자녀들을 사랑했습니다. 부모를 사랑했습니다. 손자들을 사랑했습니다.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장차 다가올 세상에서 그들이 어떻게 될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 분을 그곳에서 만났을 때,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그 눈으로 “할, 너는 알고 있었어. 왜 내게 말해주지 않았지?”하고 물어 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분을 생각하고, 또한 제가 침례를 주었던 그 미망인과 그녀에게 인봉된 가족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저는 더 잘해야겠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도록 초대하는 제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 주신다는 신앙을 갖는다면, 우리는 보다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방법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첫째는 언제나 사랑입니다. 친절은 단 한 차례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느껴야 하며, 우리가 초대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어야 하는 사랑을 이 같은 말로 설명하셨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고린도 전서 13:4) 또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 전서 13:7)

저는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아 왔습니다. 한 가족이 우리 집 근처의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 집은 새집이었기 때문에, 저는 일

단의 말일성도들과 어울려 그 집의 조경 작업을 하느라 며칠 밤을 보냈습니다. 조경 작업을 마치던 마지막 날 밤, 저는 그 가족의 가장 옆에서 있던 기억이 납니다. 그는 우리가 한 일을 살펴보면서 가까이에서 있던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네 물몬들이 우리 가족을 위해 가꿔 놓은 세 번째 정원인데, 내가 보기엔 이 정원이 가장 나은 것 같소.”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는 제게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크게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웃들은 그와 그 가족들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베푸는 사랑의 행위가 줄곧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집에 오는 길에 그곳에 트럭 한 대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다른 주로 이사 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뭔가 도와 줄 것이 없을까 하고 다가갔습니다. 이삿짐을 트럭에 싣고 있는 그 사람을 저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까이 다가서자, 그는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어링 형제님.” 제가 알아보지 못했던 그는 그곳에 살다가 결혼하여 다른 곳으로 이사간, 이제는 장성한, 그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보여 주었던 사랑 덕분에 그는 이제 교회에서 침례받은 회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사랑으로 시작되었다는 것만 큼은 알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행하도록 권유하는 것의 훌륭한 모범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더욱 어둠에 빠져드는 세상에서, 구세주의 이같은 계명은 더욱 중요한 것이 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16)

우리 대부분은 자신이 태우는 조그만 모범의 촛불이 사람들이 알아보기에 너무도 희미하다고 겸양해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바라보는 눈이 많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 봄에 다른

교회의 성직자들과 지도자들이 약 300여 명 가량 참석한 모임에서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많은 참석자들과 개인 접촉을 했습니다. 저는 왜 그들이 교회의 기원과 어린 요셉의 첫 번째 시현과 살아 계신 예언자에 대해 전하는 제 메시지에 것처럼 주의를 기울이는지 물어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본질적으로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한 사람이나 혹은 한 가족의 이야기를 -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를 안다는 이야기 - 해주었습니다. 자주 반복된 이야기는 자신들의 이웃에 사는 말일성도 가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알고 지낸 사람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가족입니다.” 그들이 자주 언급한 것 중에는 재난에 대처하여 지역 사회 혹은 공공 지원이 이루어질 때, 교회의 회원들이 그들이 보기엔 대단히 훌륭하게 봉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러한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은 교회 속에 담긴 진리를 인식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삶에서 그러한 진리의 열매가 맺혀진 것을 이미 보았으며, 가까이 들으려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회복의 진리, 곧 가족이 영원히 인봉될 수 있으며 복음이 우리의 본성 그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모범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준비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다 잘해야 할 세 번째는 간증을 통해 초대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모범은 길을 열어 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입을 열고 간증을 전해야 합니다. 간단한 사실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리와 선택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영적인 진리를 증거하는 간증이 참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몇 가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영적인 진리를 알고 나면 그대로 생활할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친구들에게 선택하도록 권유하기에 앞서 해야 할 것들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진리의 간증을 전할 때, 장차 진리를 알게 되면 반드시 해야 할 선택을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중요한 두 가지 예가 있습니다. 물몬경을 읽고 선교사에게 가르침을 배우도록 초대합니다.

물몬경이 참됨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를 읽고 모로나이서에 나와 있는 대로 물몬경이 참된 것인지를 알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우리의 친구들도 그러한 선택을 하고 똑같은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물몬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될 때, 그들은 또 다른 선택을 할 기회를 맞게 되는데, 선교사에게 가르침을 받으라는 여러분의 초대를 받아들일 것인지에 관한 선택입니다. 간증과 함께 그와 같은 초대를 하기 위해서는, 선교사들이 주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들을 가르치도록 선교사들을 여러분의 가정으로 초대하기로 선택할 때 여러분은 그러한 간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그러한 기회를 가까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다면, 그들이 자신들의 연령과 교육 정도를 초월하는 힘에 의해 영감 받았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후에, 선교사에게 배우도록 다른 사람들을 초대할 때, 그들이 진리를 가르치며 행복으로 인도하는 선택을 제시해 준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우리가 충분한 사랑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선한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 이웃이 우리의 초대를 받아들이기 위해 충분한 간증의 힘을 지니고 있는지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느끼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에게 책무를 주시면서 교리와 성약 1편에 수록되도록 지시하신 용기를 복돋아 주는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말세에 내가 택한 제자의 입으로 경고의 음성이 온 백성에게 미치리라.” (교리와 성약 1:4)

그분의 제자, 곧 우리의 자격 요건을 언급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약한 것이 나아와 능력 있고 강한 자를 쳐부술 것이요...” (교리와 성약 1:9)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나의 복음의 충만함이 미약한 자와 단순한 자로 말미암아 땅 끝까지 전파되며...”

(교리와 성약 1:23)

그리고 또 이르시기를, "겸손하였으매 강하게 되어 하늘에서 내려오는 축복을 받게 하며..." (교리와 성약 1:28)

주님은 이 확신을 초대 선교사들은 물론 오늘날의 선교사들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주신 확신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사랑할 수 있으며, 복음이 우리의 삶에 미친 영향으로 인해 이웃에게 선택하라는 우리의 초대가 마치 주님이 하시는 초대로 그들에게 들릴 것이라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의 완전한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사랑과 관심을 느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그 초대에 응하지 않거나,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려고 다가가면 그 사람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의 사랑이 함께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몇 번이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종으로부터 배우도록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방문 교사나 가정 복음 교사의 방문이나 혹은 감독의 전화에서 그러한 것들을 느끼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종 리하이가 아들들에게 가르친 것은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진실된 것입니다.

"나의 아들들아, 나는 너희가 위대하신 중보자를 따르며 그의 계명을 지키며 그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 성령의 뜻을 좇아 영생을 택하라" (니파이서 2:28)

선교사에 의해 가르침을 받는 것을 택하는 것은 바로 영생으로 향하는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너희가 너희 뜻대로 행하여 영원한 죽음의 길이나 영생의 길을 스스로 택할 수 있음을 기억하라." (니파이서 10:23)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사는 것만이 주께서 이 생애 동안 누릴 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화평과 내세에서 누릴 영생의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임을 증거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이 일은 그분의 사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예언자를 지지함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이 복음은 참됩니다. 세상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복음은 그것이 해야 할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해 계속 정진할 것입니다.



최 근 제 친구 한 사람이 제게 "자네와 포티나이너스 팀의 퀴터백인 스티브 영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글쎄,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되는군. 어디 자네가 한번 말해 보게나."라고 대꾸했습니다.

그 친구는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자네들은 말야, 다음 시즌에 또 볼 수 있을까 하는 걸세."

하늘의 축복과 곁에서 돌봐 주는 불박이 간호사 루비와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하기에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게 너무도 유용한 심장 박동 조절 장치를 가질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늘 그 고마움을 잊지 않습니다.

허리를 재조정하고 너무나 멋지다고 생각되는 무릎으로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최신 보청기와 특수 안경은 참으로 놀라운 발견입니다.

아, 하지만 제 마음은 어떻게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잠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간증을 전하고, 우리가 참여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이 위대한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문슨 부대관장이 교회 총관리 역원들, 특별히 우리의 예언자를 지지하는지 물었을 때, 여러분이 손을 드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또한 여러분이 열렬히 손을 드시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든 축복과 위안을 받고 있구나." 그와 동시에 저는 교회 역사상 일어났었던 다른 몇몇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마음의 눈으로 미국 전역에 흩어져 사는 제 가족들의 모임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들은 조지아, 체플힐,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텍사스, 캘리포니아, 그리고 이곳 솔트레이크시티 등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 생활하는지 집에서나 예배당에서나 어린 아이들이 자신의 손을 들어 전체와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부모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드는 것은 모두들 그렇게 하는 듯 보이기 때문에 동의의 표시로 그러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알고 있는 지식과 힘클리 대관장님은 우리의 예언자이자 지도자이시라는 간증을 인정하고 그에 대해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지의 표시로 손을 드는 동시에, 그분의 지시를 따르고, 말씀을 경청하고, 권고하면서 그에 대해 기도하고, 예언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유의하겠다는 표시로 손을 듭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교회의 조직에 관한 지시를 받았는데, 이것은 계시로써 교리와 성

약 20편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1830년 4월 6일 뉴욕 주 라파예트의 피터 휘트머의 농장에서 벌어진 일을 상상해 보십시오. 가로, 세로가 각각 6미터, 9미터밖에 안 되는 작은 통나무집에서 가진 바로 이 모임에서 교회가 조직되었던 것입니다. 모인 사람들이 자신들이 받은 명에 따라 그 협소한 곳에서 요셉이 올리버를 축복하고 올리버는 그를 축복했던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교회 조직은 이런 방법으로 그 작은 모임에서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과 올리버와 하이람과 사무엘 스미스 그리고 두 명의 휘트머는 침례를 받고 뉴욕 주의 "법률에 좇아" (교리와 성약 20:1) 움직였습니다. 다시 한 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모임의 영적인 분위기가 축축히 젖어 들고, 지금의 우리도 이곳에서 그래왔듯이, 그들에게 지지를 해 달라는 제안 즉, 예언자 요셉과 올리버를 초대 장로로 지지하고 교회를 발족시키자는 건의가 이뤄졌을 때 그들이 받았을 느낌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시에 관한 일부 일기와 기록에 따르면, 사람들은 그 모임에서 천국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몇몇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처음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예언자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포함되어 있었으니 그 상황을 머리에 그려 보십시오. 이 경륜의 시대의 교회의 공식 모임에서 성찬식이 처음으로 행해져 이제는 굳게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구세주의 찢겨진 살과 흘린 피를 상징하는 빵과 물을 전달하는 느낌이 어떠했겠습니까!

예언자와 하이람이 순교한 후 1844년에 행해진 또 다른 지지 모임에 대해 상상해 보십시오. 또한 시드니 리그돈이 "관리자"의 자리를 인수해 교회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욕망으로 펜실베이니아 주 피츠버그에서 왔을 때 나부에 소집됐던 그 모임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여러 곳으로부터 십이사도들이 속속 나부로 돌아왔습니다. 그 상황이 어떠했을까요. 특히 시드니 리그돈이 비록 자신이 예언자의 눈 밖에 나긴 했었지만, 논리적으로도 자신이 제 1보좌인 이상 부름을

받을 사람은 자기 뿐일 것이라는 제언을 했을 때 모임의 분위기가 어떠했겠습니까. 또한 그 자리에 있던 브리감 영이 십이사도를 대표해, 충실한 형제들이 예언자에게서 십이사도 및 십이사도들과 함께 하는 권능에 대해 어떠한 가르침을 받았는지 성도들에게 설명하던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이 두 가지 입장이 제시되고 투표가 행해진 후, 몇몇 사람들은 브리감 영이 말씀할 때 그에게서 어떤 변화를 보고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언자 요셉의 음성을 들었으며, 심지어 브리감 영에게서 예언자의 얼굴 형상 중 일부를 본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세월이 가고 우리가 좀더 많은 것을 배우며 이 사업에 관한 영적인 지시에 더욱 민감해짐에 따라,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감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교회를 십이사도들의 손에 맡기기 위해 1844년 그 모임에서 있었던 지지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후 1847년 성도들이 미주리 강의 아이오와 주 쪽으로 모여들었던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브리감 영은 제1진 성도들과 함께 이곳 솔트레이크 계곡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2월이 되자 그는 미주리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 그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케인즈빌에 십이사도 가운데 아홉이 집합했고, 다른 두 명은 이곳 솔트레이크 계곡에 있었고 나머지 하나는 텍사스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홉 명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1847년 12월 5일 율슨 하이드의 집에서 가진 모임에서 대관장단이 재조직되었지만, 그들은 그에 대해 성도들의 비준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이 모임은 3주 동안 연기되었고, 그 동안 사람들은 케인즈빌에다 통나무로 된 작은 예배당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에 있던 사람들과 미주리를 횡단해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갈 차비를 하고 마차를 타고 온 교회 회원들에 의해 3주 만에 작은 예배당이 하나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임에서 교회 대관장단을 재조직하는 발의가 있었으나 그러려면 오늘날 우리가 하는 것과 같은 지지 즉, 손을 들어 예

언자를 지지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마침내 대관장단이 다시 조직되었으며, 브리감 영은 히버 시 킴볼과 윌라드 리차즈를 그의 보좌로 선정했습니다. 그렇듯,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님이 필요에 따라 계시로써 정하신 권능을 부여하려면 사람들의 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보듯이 이 사업은 계속해서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연단에서서 90평생이 넘는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 여러 영적인 경험들을 목격하고, 느끼고, 알고, 때로는 그것의 일부가 되어 보면서, 이 일은 참으로 주님의 사업임을 감히 간증드립니다. 실제로 이것은 계시된 바대로 주님의 사업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인식했고, 지금도 그렇게 느끼며, 그것을 여러분에게도 선포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듯이 구세주께서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마태복음 10:39)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날 몇몇 학자들을 포함해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마 잘못 번역되었을 거예요. 정말이지 상식 밖의 소리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분명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생각 또한 확고하길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 만능주의적인 세계 즉,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바빌론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신문지상의 경제면을 보든 정치면을 읽든 간에, 여러분은 어디서 힘을 얻을 수 있으며 우리가 당면한 문제와 난관의 해결책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답은 다름 아닌 예언자의 음성, 다시 말하면 지상에 계신 하나님의 예언자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데 있습니다.

구세주의 그와같은 말씀을 빌자면, 물질주의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는 관심사가 오직 삶의 물질적인 측면들 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축적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 생각은 하질 않거나, 그들이 좀더 수준 높은 삶을 살게 도와주며 살질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그분이

보이신 모범적인 생활을 발견할 때 비로소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어떤 일을 하는 데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과 복음을 함께 나누거나 그들이 도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좀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도록 도우려는 생각을 하며,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하며 그들과 함께 나눌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그들을 돕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구세주께서 말씀하시는 삶, 영원한 축복, 하늘의 축복, 성전 축복, 나아가서 우리와 함께 하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그러한 모든 축복을 찾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께 제 사랑과 간증과 지식을 나누어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다음의 단순하고 짧은 찬송가가 사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께 간증합니다.

단 하나님의 자녀
 날 세상에 보내
 부모와 함께 살도록
 가정을 주셨네
 길을 찾아가게
 저를 도와주소서
 주와 함께 살도록
 가르쳐 주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찬송가 187장)

그것은 이 짧고 간단한 노래처럼 간결하고 순수하며 분명합니다. 그것은 가르쳐 줍니다. 오늘 저는 십이사도 정원회 및 기타 모든 총관리 직원들과 더불어 고든 비 헝클리 대관장님을 교회의 대관장으로, 그의 보좌이신 토마스 에스 몬슨 형제님과 제임스 이 파우스트 형제님을 손을 들어 대관장단으로 지지함을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복음은 참됩니다. 세상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복음은 그것이 해야 할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해 계속 정진할 것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제 사랑과 간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1998년 10월 연차 대회,
 토요일 오전

아론 신권과 성찬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아론 신권 소지자는 주님의 영의 동반과 천사의 성역을 누리기 위해 합당하게 성찬을 취하는 모든 교회 회원들을 위해 그 문을 열어 줍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저는 오늘 저녁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론 신권을 소유한 젊은이들과 그들을 관찰하시는 감독님들과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아론 신권 소지자들이 주님의 성찬을 잘 준비해 교회 회원들에게 전달하는 거룩한 활동에 대해 말씀 드리려 합니다.

I.

1829년 5월 15일 침례 요한이 아론 신권을 지상에 회복시켰습니다. 그는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의 머리에 손을 얹고 다음과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나와 같은 일에 종사하는 종들아, 나는 너희에게 메시야의 이름으로 아론 신권을 부여하노라. 이

는 천사의 성역, 회개의 복음, 죄 사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를 베푸는 열쇠를 가지고 있느니라. 이 신권은 또다시 레위의 자손들이 의롭게 제물을 주게 바칠 때까지 결코 세상에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교리와 성약 13편)

후일 주님은 이에 대해 더 많은 진리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소신권은...천사의 성역의 열쇠와 예비적 복음의 열쇠를 지니고 있느니라.

"이 복음은 회개와 침례, 죄 사함의 복음 이요."(교리와 성약 84:26-27)

아론 신권이 "천사의 성역의 열쇠"와 "회개와 침례, 죄 사함의 복음"에 관한 열쇠를 갖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의미는 침례 의식과 성찬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침례는 죄 사유함을 위한 것이며, 성찬은 침례 성약과 축복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회개가 먼저 있는 다음에 가능합니다. 이 의식에서 맺은 성약을 준수할 때 우리에게는 그분의 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천사의 성역은 그러한 영의 임재하심 중의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II.

먼저 주님께서 가르치신 교리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침례가 우리의 구원에 필요하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한복음 3:5) 침례는 구원의 첫째 되는 의식입니다. 우리는 침례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고 그분을 섬기며 그 계명을 지킬 것을 성약합니다.

지상 사역이 끝날 무렵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으로 성찬을 선보이셨습니다. 그분은 빵을 떼어 축복하여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마태복음 26:26).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누가복음 22:19) 그분은 또 잔을 들고 감사하며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마태복음 26:28)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성찬을 선보이시면서 성신에 대한 가르침과 약속도 주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이라고 알려진 거룩한 행사에서, 예수님은 보혜사 즉, 성신의 임무에 대해서도 설명하셨습니다. 보혜사는 그분을 증거하며 다른 진리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보혜사가 자신의 제자들에게 오시도록 그들을 떠나야 한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요한복음 16:7)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을(누가복음 24:49) 입히울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무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능력은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이 사도들 위에 "부어"질 때 임했습니다.(사도행전 2:33 참조)

이와 유사하게 구세주께서는 미 대륙에서도 성찬을 소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을 받아 먹는 자는 나의 몸을 기억하여 먹는 것이요, 잔을 받아 마시는 자는 나의 피를 기억하여 마신 것이라. 그러므로 그 영혼이 결코 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하고 흠족하리라"(니파이삼서 20:8). 그 약속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분명합니다. "무리가 모두 먹고 마시고 난 연후에 보라 영으로 충만하여진지라."(니파이삼서 20:9)

성찬을 취하는 것과 성신의 동반을 받는

것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는 계시된 성찬 축복문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빵을 취하면서 우리는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고 항상 그분을 기억하며 그 계명을 지키겠다고 증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분의 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지는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20:77 참조)

늘 성신의 동반을 받는다는 것은 현 세계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값진 재산이라 할 것입니다. 성신의 은사는 우리가 침례받은 후 멜기세덱 신권의 권능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의 축복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격리시켜야만 합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는 불결하게 되고 주님의 영은 우리를 떠납니다. 주님의 영은 "성스럽지 않은 성전에"(모사이사서 2:36-37; 엘마서 34:35-36; 힐라맨서 4:24 참조) 거하시지 않습니다. 또한 깨끗하지 않은 것은 그분의 면전에 거할 수 없습니다.(에베소서 5:5; 니파이일서 10:21; 엘마서 7:21; 모세서 6:57 참조)

몇 주 전 저는 동력 사슬톱을 사용해 뒷마당에 있는 나무를 잘랐습니다. 무척 힘든 일이었습니다. 일을 다 마쳤을 때 저는 지저분한 튜브와 기름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어느 누구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몰로 깨끗이 씻어 다른 사람들 앞에서 편하게 보였으면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그리고 지도자들 가운데 침례받은 후 죄를 짓지 않고 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침례 후에도 좀더 깨끗해지기 위한 규정이 없다면, 우리 각자는 영적인 것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성신의 동반하심을 받을 수가 없고, 최후의 심판 때 "영원히 버림 받"(니파이일서 10:21)아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따금 죄라는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해지도록 침례받은 각 회원들을 위한 과정을 마련해 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성찬은 그러한 과정에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상한 심령과 애통한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여 주님께 나아와 성약을 준수하며 성찬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방법으로 침례 성약을 새로이 할 때, 주님은 우리가 침례받을 때 깨끗해지는 것과 같은 결과가 새롭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정결케 되며 그분의 영 또한 늘 우리와 함께하시도록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의 중요성은 매주 성찬을 취하라고 하신 주님의 계명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교리와 성약 59:8~9 참조)

이 점에 있어서 아론 신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죄 사함에 관한 이 모든 중요한 절차는 침례의 구원 의식과 새로이 하는 성찬 의식을 통해 실행됩니다. 이 두 의식은 감독단의 지시하에 아론 신권 소지자들에 의해 집행되며, 그들은 회개 및 침례에 관한 복음의 열쇠와 죄 사함의 열쇠를 행사합니다.

III.

아론 신권의 이 의식들은 천사의 성역과도 아주 중요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경전에서 사용되는 천사라는 용어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천국의 존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조지 큐 케논, 복음 진리, 제럴드 엘 뉴퀴스트 발체(1987년), 54 쪽) 경전은 천사가 직접 출현했던 경우를 아주 여러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사가라와 마리아(누가복음 1장 참조), 베냐민 왕과 니파이, 힐라맨의 아들(모사이사서 3:2; 니파이삼서 7:17-18 참조)에게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몇몇 사례에 불과할 뿐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러한 나타남이 천사들이 베푸는 성역의 전부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어린 아론 신권 소유자였던 저는 천사를 볼 수 없으리라 생각했었고, 그와 같은 출현이 아론 신권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의 성역은 역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천사의 메시지는 음성을 통해서나 아니면 단순히 생각이나 느낌으로만 마

음에 전해집니다. 존 테일러 대관장님은 "천사 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는 일은 가슴이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마음에 임하니... 이는 영원한 세계에서 오는 계시입니다." (복음 왕국, 지 호머 더햄 발췌[1987년], 31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파이는 반항하는 자신의 형제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상기시켜 주면서 천사의 성역이 세 가지 국면으로 나타났음을 설명했습니다. 즉, 비록 그들의 "마음이 무디어 듣지 못하"였어도 (1)그들이 "천사를 보았고", (2)그들이 "시시로 천사의 음성을 들었"으며, (3)천사가 그들에게 "작고 조용한 소리로 말하였" (니파이일서 17:45)다는 것입니다. 경전은 그 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복음을 가르쳐 인간을 그리스도에게 데려오기 위해 천사가 보내졌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4; 엘마서 39:19; 모로나이서 7:25, 29, 31-32; 교리와 성약 20:35 참조) 천사의 메시지는 대부분 눈에 보이기보다는 마음에 느낌으로 오거나 음성으로 들립니다.

아론 신권이 어떻게 천사의 성역에 관한 열쇠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에 대한 답은 주님의 영의 경우와 똑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의 동반과 영적인 교통이라는 축복은 오직 청결한 자들에게만 주어 집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아론 신권의 침례 의식과 성찬을 통하여 우리는 죄에서 깨끗해지며, 성약을 준수한다면 주님의 영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부여받았습니다. 저는 그 약속은 성신은 물론 천사의 성역까지도 지칭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성신의 권세로 말하는 것이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 (니파이일서 32:3)기 때문입니다. 그렇듯이, 아론 신권 소지자는 주님의 영의 동반과 천사의 성역을 누리기 위해 성찬을 합당하게 취하는 모든 교회 회원들을 위해 그 문을 열어 줍니다.

IV.

제가 방금 말씀드린 교리는 경전에 다 나

와 있습니다. 우리는 경전을 통해 신권으로 의식을 집행하는 사람은 주님을 대신해 행동한다(교리와 성약 1:38; 36:2 참조)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교사, 제사, 집사가 성찬을 준비하고 집행하고 전달함에 있어서 주님을 대표해 행동하는 거룩한 임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즉, 그에 관한 상세한 규칙을 제언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전세계에 있는 우리 교회의 와드 지부 상황이 너무나 다양하다 보니까, 어느 한 상황에서만 필요한 듯 보이는 특정한 규칙이 다른 상황에서는 부적절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저는 교리에 준해 한 가지 원리를 제안할 생각입니다. 만일 모든 사람이 다 이 원리를 이해해 그에 맞게 행동한다면, 여러 규칙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만일 각 경우에 규칙이나 상단이 필요하다면, 교리나 관련 원리들에 부합되게 지역 지도자들이 그것들을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성찬을 집행하는 것과 관련해—그것이 준비, 집행, 혹은 전달 중 그 어디에 해당되든—제가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집행자가 회원으로 하여금 예배와 성약을 새롭게 하는 데서 벗어나게 하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주의를 산만케 해서는 안 된다는 이 원리는 동반자 원리 가운데 일부와도 상통합니다.

집사, 교사 및 제사는 항상 용모가 단정해야 하며 경건한 자세로 엄숙하고 신성한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성찬을 준비하는 교사의 특별한 임무가 거의 눈에 안 띄는 일이지만, 그렇더라도 품위와 정숙함과 경건함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교사는 자신들이 준비하는 상징물이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나타내는 것임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이 성스러운 의식이 산만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제사들이 성찬 축복문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읽어야 합니다. 축복문을 경솔하게 빨리 읽어 내려가거나 안 들리게 입으로 중얼거려서는 안 됩니다. 참석자 모두가 이 의식과 성약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



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그것이 너무 중요하므로 해야 할 말들을 정확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성찬을 취하면서 성약을 새롭게 할 때, 이 신성한 말씀들에 집중하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 저는 어린 시절 겪은 가슴 아픈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6살 난 제사였을 때 일입니다. 당시 저는 한 지방 방송국에서 라디오 아나운서로 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소속 와드의 성찬 테이블에서 축복문을 읽고 있는데, 참석한 한 소녀가 제 기도가 선전 광고 소리 처럼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창피스러웠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50년이 흐른 지금도 그 나무람이 제 귓전에 맴돕니다. 형제 여러분, 그 성스러운 축복문의 중요성을 늘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의 종으로서 전 회중을 대표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들리도록, 이해가 되도록, 그리고 진심을 담아 [축복문을] 읽으십시오.

집사는 경건하고 질서 정연하게 성찬을 전달해야 하며, 자신들에게 시선을 끌게 하는 불필요한 몸짓이나 표현은 삼가 하십시오.

오, 행동 하나 하나에 있어서 회중이 예배와 성약을 맺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일은 삼가십시오. 준비, 집행, 전달 등 성찬을 주재하는 사람들은 모두 단정하고 정숙한 옷차림을 해야 합니다. 남의 이목을 끌 만한 개성적인 차림새는 금해야 합니다. 겉모습은 물론 행동에 있어서도, 그들은 모든 참석자들이 이 거룩한 의식의 목적인 예배와 성약을 맺는 일로부터 주의를 다른 데로 쏠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원리는 눈에 보이는 것은 물론 보이지 않는 일에도 적용됩니다. 이 거룩한 의식을 집행하는 사람 가운데 합당치 못하게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리고 이 사실이 누군가에게 알려진다면, 그러한 참여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 심각한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혹시라도 이 중에 합당치 못한 분이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감독님께 말씀하십시오. 신권 임무에 합당하고 적절하게 참여하기 위한 자격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감독님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빵을 떼는 일을 맡는 제사들만 빼고, 아론 신권을 소지한 모든 사람은 예배하고 성찬을 취하려 준비하는 사람들과 함께 성찬 찬송을 따라 불리야 합니다. 가장 영적으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이것을 집행하는 아론 신권 소지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성찬 찬송을 부르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아론 신권은 "회개와 침례, 죄 사함의 복음"(교리와 성약 84:27)의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구세주의 속죄가 주는 정결함의 능력은 우리가 성찬을 취할 때 새롭게 살아납니다. "그의 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교리와 성약 20:77)리라는 약속은 우리의 영성에 매우 중요합니다. 아론 신권의 의식들은 이 모든 것에 꼭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이 진리임을 간증하며, 아론 신권 형제님들이 자신들의 신성한 임무의 중요성을 이해하여 그 안에서 합당하게 행동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신권 정원회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

신권 정원회의 이름에 합당하게 되고 그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1918년, 농부인 조지 고츠 형제는 미국 유타 주 리하이 시에서 사탕무를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해에는 유난히 겨울이 빨리 와서, 농장의 사탕무들이 많이 얼어버렸습니다. 조지와 그의 어린 아들 프랜시스도 이 농작물을 수확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고, 매우 힘들었습니다. 한편으로 전염성이 강한 유행성 독감이 나돌았습니다. 이 무서운 질병으로 조지의 아들 찰스와 찰스의 어린 두 딸과 아들 하나가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겨우 6일 동안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고, 조지 고츠 형제는 이들을 장례지내기 위해 유타 주 옥든까지 세 번이나 다녀와야 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지나고 조지와 프랜시스도 마차에 올라 사탕무 밭으로 돌아왔습니다.

밭으로 가는 길에 그들은 이웃 농부들이 사탕무를 싣고 공장으로 가는 마차의 행렬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지나가는데, 마차를 몰고 가는 사람들마다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조지 아저씨, 안녕하세요?",

"참 안됐습니다.", "불행이 그렇게 겹치다니, 정말 안됐네요.", "우리가 다 친구잖아요, 용기 내세요."

맨 마지막 마차에는 얼굴에 주근깨가 많은 제스퍼 롤퍼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명랑하게 손을 흔들어 인사를 건네며 외쳤습니다. "조지 아저씨, 이게 마지막이에요!"

고츠 형제는 아들 프랜시스에게 고개를 돌리고 말했습니다. "전부 우리 거라면 좋겠구나."

이들이 농장 입구에 도착하자, 프랜시스는 마차에서 뛰어내려 아버지가 마차를 몰고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었습니다. 조지는 마차를 멈추고 밭을 바라보았습니다. 밭에는 사탕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때 조지는 제스퍼 롤퍼가 "조지 아저씨, 이게 마지막이에요!"라고 외쳤던 말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지는 마차에서 내려, 매우 애착을 가졌던 기름진 땅에서 한 줌의 흙과 무청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열심히 땅을 훑던 이러한 상징물들을 마차 밑에 넣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무청 더미 위에 주저 앉았습니다. 최근 겨우 6일 동안에 사랑하는 가족 네 명의 시신을 집으로 데려와 장례를 치렀던 이 사람은, 손수 관을 만들고 무덤을 파고 수의를 입히는 일을 했던 이 사람은, 그 모진 시련에도 불구하고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았으며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이 사람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런 다음 일어나 눈물을 닦고 하늘을 쳐



다보며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와드의 장로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저는 바로 그러한 장로들에 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권을 소유한 형제들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신권 정원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님은 이렇게 설명 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선택을 받으면 그의 임명장에는 라틴어로 조직의 의무와 회원 자격 요건이 상술되어 있었으며, 항상 “*퀴렘 보스 우넵*”, 즉 ‘우리는 당신이 선택 받은 조직의 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글이 써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신 권은 정원회로 조직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정원회란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고 추진시켜 나갈 수 있는 권능을 받은 형제들의 선택된 조직을 의미합니다. 정원회는 형제들의 조직입니다. 신권 직분에 성임 받은 형제가 정원회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전은 대관장단과 심이사도 정원회, 칠십인 정원회를 포함하여, 오늘날 예수 그리

스도의 교회에서 필요한 신권 정원회와 그에 따른 의무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스테이크의 “상임 성직자”는 대제사, 장로, 그리고 아론 신권의 세 정원회인 제사, 교사, 집사로 구분됩니다.

60여 년 전에 심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스티븐 엘 리차즈 장로님은 신권 정원회의 기능에 대해 일목 요연하게 정의했습니다. 정원회는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배움의 장소이고, 둘째는 우정 증진이고, 셋째는 봉사 조직입니다. 이 세 가지 면에 대해 간단히 살펴 보겠습니다.

첫째, 정원회는 배움의 장소입니다. 신권 정원회나 그룹이 공과를 배우게 될 때, 그 회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영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공부함으로써 더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신권회에 교과 과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상호부조회와도 공통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원회는 회원들에게 활력을 심어줄 수 있고, 예언자의 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매월 둘째와 셋째 일요일 공과는 교회 대관장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1998년과 1999년의 교재는 브리감 영 대관장의 가르침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이 책은 풍부한 교리와 실생활에의 적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개인이나 가족이 영원한 지침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일요일에는 현재의 가르침을 공부하는데, 대관장단이 승인한 현 시대의 복음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형제 여러분들은 정원회나 그룹의 지도자이므로, 이 새로운 교과 과정에 관해 대관장단에서 제공한 지침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이 가르침들을 정확하게 이행하십시오.

항상 훌륭한 교재를 가지지 못했던 아론 신권 정원회는 이제 훌륭한 교재들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금세기 초 몇몇 스테이크는 아론 신권회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지침을 마련한 반면, 다른 스테이크에서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의 기준으로 비취볼 때, 비정상적인 신권회를 갖곤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종교적인 공과를 하거나, 토크쇼, 정글북, 황야의 부르

짓음, 돼지는 역시 돼지, 목장의 사나이 프랭크와 같은 모험 소설을 공부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와 같은 문화적인 교육이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정원회 시간은 보다 귀중한 것들을 위해 쓰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아론 신권은 "우리의 행동을 인도하는 성약", "어머니와 그들의 신성한 역할 존중", "장애자를 존중하고 격려함", "도덕적 용기" 등과 같은 교과 과정이 있습니다. 아론 신권 정원회에는 정원회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해주는 진정한 신권회 반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정원회는 우정 증진의 장소입니다. 1982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로버트 엘 백맨 장로님은 마크 피터슨이라는 소년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소년이 집사로 성임된 직후, 집사 정원회 회장단은 마크와 그의 부모님을 방문했습니다.

약속한 시간에 현관의 벨이 울렸습니다. 현관에는 회장단 소년들이 하얀 셔츠에 넥타이를 매고, 각자 경전을 든 채 서있었습니다.

마크와 그의 부모님과 함께 앉아 기도한 다음, 모두에게 안건을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집사 정원회 회장은 경전을 펴고, 마크와 그의 부모님들에게 아론 신권의 권능과 설명, 그리고 집사의 의무에 관한 구절을 읽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 다음 회장은 복장, 성찬 전달 방법, 심부름하는 사람으로서의 태도, 금식 헌금 수거 방법 등, 마크의 책입과 의무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고는 질문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방문을 끝내면서, 회장단은 마크를 정원회 회원으로 환영하며,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움을 청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떠날 때, 마크의 눈은 휘둥그레져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훌륭해요!"

신권 정원회의 우정 증진은 참으로 훌륭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칠십인 정원회 회원이 되었을 때, 저는 언젠가 시간이 지나 정원회 회원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합당성을 입증할 수 있게 되면, 형제님들

이 저를 받아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그들의 표준에 부합하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형제님들은 저를 즉시 환영해 주셨습니다. 저보다 훨씬 위대하시고 많은 업적을 이루신 그분들이 처음부터 저를 똑같은 형제로 대해 주시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분들은 저를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며, 또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결과 저는 최선을 다하여 저도 정원회를 위해 뭔가를 기여해야겠다는 강한 열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형제애와 우정 증진에 관해 많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신권이 단지 개인적인 발전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룹이나 정원회는 필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존재 목적은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절대적인 필요성에 의존하는 데 있습니다." (성도의 빛, 1969년 1월, 84쪽)

새로 침례 받은 형제와 가족의 경우에는 정원회의 우정 증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원회 지도자들은 각자의 와드나 지부의 평의회에서 개종자들이 계속 활동화 할 수 있도록 소리 높여 가르치고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정원회는 봉사 조직입니다. 앞서 제가 새로운 멜기세덱 신권 교과 과정에 대해 말씀 드렸을 때, 매월 첫째 일요일에 하는 일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날의 모임은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일요일에는 신권 소유자들이 정원회에서 만나 각자의 의무와 작업 계획에 대해 배웁니다. 안건에는 훈련과 토의, 보고와 임무 지명 등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신권 의식의 올바른 집행과 축복에 관해 배웁니다. 지금은 신권을 행사해야 할 때입니다. 신권으로 일해야 할 때입니다. 유타 주 리하이에서 80년 전에 장로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던 조지 고츠 형제의 사탕무를 수확해 주는 계획을 수립하는 모임을 상상해 보십시오.

멜기세덱 신권과 아론 신권 정원회는 봉사함으로써 영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신 대제사장이시며 모범이신 예

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가복음 10:43~45)

이십 여 년 전에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께서는 신권 정원회와 관련하여 한 가지 비전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권 정원회가 정원회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힘의 원천이 되고, 회원 각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될 때, 그때야말로 놀라운 날, 주님의 목적이 달성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나는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신권 정원회 회원입니다. 나는 나의 형제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도와 줄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들 역시 나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함께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성약된 아들로서 영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일함으로써 당황함이나 두려움 없이, 언제 불어 닥칠지도 모르는 적대 세력에 굳건히 견디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굳건히 서 있을 것입니다.'" (성도의 빛, 1978년 2월호, 131~132쪽)

우리는 이것이 성취될 위대한 날을 지연시키거나, 더 오래 기다려서는 안됩니다. 신권 성임을 받은 여러분 모두는 정원회 회원입니다. 정원회를 구성하기에 충분한 형제들이 없는 곳에 사는 경우, 나중에 정원회가 될 신권 그룹의 회원이 됩니다. 신권 정원회의 이름에 합당하게 되고 그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정원회 반의 형제들과 함께 공부하십시오. 그들과 함께 정원회 일원으로서 우정 증진을 나누십시오. 그들과 함께 정원회 봉사에 참여하십시오. 형제 여러분, 정원회다운 정원회를 만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에이치 브라이언 리차즈 장로
칠십인 정원회

젊은이로서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여호수아 24:2, 15)

이 말씀은 여호수아 시대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할 선택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준비시킬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의 중요성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우리 시대의 예언자들이 하신 말씀들을 일부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워드 더블류 헌터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전의 예언자들은 유능하고 합당한 모든 젊은이는 복음 선교사로 봉사해야 한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저는 오늘날에도 이것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하나님의 아들을 따르십시오”, 성도의 빛,

1995년 1월호, 88쪽)

또,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이전에 말한 적이 있습니다만, 선교 사업은 필수적인 신권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젊은 남성들은 그런 짐을 져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책임이자의 무인 것입니다.”(“성전에 관한 생각, 지속적인 활동, 선교 사업”, 성도의 빛, 1998년 1월호, 52쪽)

주님은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기로 결심하는 오늘날의 젊은이에게 어떤 말을 하실 것 같습니까? 주님은 열아홉 살 난 울슨 프랫에게 사랑이 그윽히 배어 있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아들 울슨이여, 나 주 하나님[이] … 네게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듣고 또 불지이다 …

“… 내가 믿었으므로 복이 있도다.

“또 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으므로 더욱 복이 있도다.”(교리와 성약 34:1-5) 여러분은 봉사하라는 부름에 순응한 젊은이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실 수 있습니까?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들이 합당하게 되며 주님께 봉사하겠다는 소망을 갖도록 준비시킬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대를 위해 예비된 그러한 자녀들을 알고 있는 청지기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들을 맡기셨으며, 그들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청지기 직분에 따른 축복 가운데 하나는 주님께 봉사하도록 자녀들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교회에 속한 부모님들과 그들의 자녀들에게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에 강한 감동을 주는 물문경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부모가 어린 자녀들의 삶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조국의 자유를 수호하겠다고 자원하고 나선 2천 60명의 젊은이들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들은 힐라맨을 앞세우고 전장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같이 모두 심한 상처를 입었음에도 …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엘마서 57:25) 어찌된 영문입니까? 그것은 저들이 “모든 명령에 복종하며 분명하게 임무를 수행하였”(엘마서 57:21)기 때문입니다. 힐라맨은 이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까닭을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이리하여 나는 저들의 모친들이 가르쳤다고 나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기억하였노라.” (엘마서 57:21) 그렇다면, 저들의 모친은 저들에게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어 의심하지 않는 자들을 큰 권세로 보호하여 주시리라”(엘마서 57:26).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의 삶에 미치는 여러분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고 계십니까? 자녀들에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살아 계시며 그분은 모든 유능하고 합당한 젊은이들이 선교 사업을 하길 원하신다고 가르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은 주님의 부름에 응답할 신앙을 갖게 될 것입니다.

감독 여러분, 여러분이 맡고 있는 청지기 직분의 일환으로 와드 내의 젊은이들이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준비시킬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일찍 시작하십시오. 젊은이들이 엘마의 시험을 이해하도록 도와 주십시오. 그들 마음속에 선교사로 봉사하겠다는 씨앗을 심어 주십시오. 그런 후에 주님께 그 씨앗이 좋은 씨앗인지 온 마음으로 알아보도록 격려하십시오. 그렇게 한 후에 그들을 도와 그 씨앗을 양육하게 한다면, 그 씨앗이 자라 그 젊은이가 선교 사업에 봉사하는 기적을 거두는 나무로 성장할 것입니다.

저는 제 자녀들에게 선교 사업에 봉사하도록 가르치고 준비시켰던 제 아내 리차즈 자매와 여러 감독과 신권 지도자들에게 언제나 깊은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템플 스퀘어 북쪽에 짓고 있는 교회의 새로운 회관의 벽. 뒷편에 교회 본부 건물(왼쪽)과 요셉 스미스 기념관, 솔트레이크 성전, 그리고 태버나클이 보임.

어떻게 하면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는 젊은이들의 수를 크게 늘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모님들이 자신들에게 부과된 책임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부모들은 선교 사업에 봉사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해야 합니다. 이는 단지 미국이나 영국, 몽고, 혹은 브라질과 같은 특정 국가의 젊은이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내의 유능하고 합당한 모든 젊은이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감독 여러분, 여러분도 이와 같이 자신의 책임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합니다.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은 "충분히 이해된 참된 교리는 태도와 행위를 변화시킨다" (성도의 빛, 1986년 10월호, 17쪽 참조)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가 참으로 크다는 복음 교리는 선교 사업을 대하는 젊은이의 태도를 변화시켜 놓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량없는 속죄를 베풀기 위해 궁극적인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속죄만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 함께 살 수 있는 유일

한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부모들과 감독들과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 참된 교리를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준비되며 봉사하고자 하는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조 제이 크리스티슨 장로님의 말씀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 '선교 사업을 나가는 것이 여러분의 일정에 맞다면, 혹은 여러분이 선교 사업을 좋아한다면, 아니면 선교 사업이 장학금이나 이성 교제나 교육 계획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선교사로 나가십시오!' 복음 전도는 계명이지 단순한 제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축복이며 특권이지 희생이 아닙니다. ... 명심하십시오, ... 주님과 그분의 예언자들은 여러분에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성도의 빛, 1997년 1월호, 41쪽)

젊은이로서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행하는 선행은 지위되지 않고 영원토록 남아 있을 것입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강한 선교사 군대가 오늘날 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이 이 위대한 군대에 소속되는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게 하십시오. 이 지상에 오기 전에 이미 신뢰받고 입증된 이러한 젊은이들은 평범한 젊은이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시대에 오도록 예비된 선택된 영들입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과하신 위대한 책임에 대해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개인 및 가족 기도를 드리는 중에 교회 내의 모든 젊은이들이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겠다는 소망을 갖고 그에 합당하게 생활하게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여 주시겠습니까?

교회의 젊은이들이 봉사하기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 젊은이들이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분명하게 따르는 데 있어서 힐라맨의 이천 용사처럼 되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이들이 산 위에서 밝게 빛나는 빛이 되어, 그 옛날 여호수아처럼 자신들 또한 주님을 섬기기로 했다고 온 천하 만방에 외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참으로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하나님의 신권은 이 세상에서 선을 진작시키는 탁월한 권세가 되었습니다. ...이 위대한 권세가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않음으로써 이 권세를 약화시키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신권을 지닌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보여 주신 헌신과 충실함에 대해 제 사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초에 저는 세 아들을 데리고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제 아버님이 미 육군 병사로 참전했던 프랑스의 격전지를 방문했습니다. 전쟁에 휩쓸렸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 고통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으며, 그 후유증 또한 처참한 것이었습니다. 수백만을 헤아리는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비록 제 아버님은 전사는 모면하셨으나, 죽을 때까지 정신적·육체적인 상처를 짊어지고 가셔야 했습니다. 끔찍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은 일기의 서두에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만약 그 일을 다시 해야 한

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의무이므로". (조지 에이 파우스트 일기, 소장본) 80년의 세월이 묻혀 있는 아름다운 시골길을 지나 우리는 양편의 병사들이 함께 묻혀 있는 묘지와 격전지를 방문했습니다. 파리 외곽의 국군 묘지에서 저는 스탠포드 헝클리의 묘지 십자가에 손을 얹고 헝클리 대관장님께 휴대 전화로 전화를 걸어 제 감회를 전했습니다.

제1차 세계 대전이 특히 우리 가족에게는 비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님의 몇몇 육촌 형제들이 대체로 같은 전쟁터에서 적으로 대적하며 싸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후에 이 친척들과 친분을 갖게 되었는데, 그들이 점잖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독교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거창한 지정학적인 역학 관계나 전쟁의 발발 동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들이셨습니다. 제 아버님처럼 그들도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조국에 봉사했던 것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 대전과 뒤이은 여러 전쟁들은 너무나 큰 고통을 야기했고 무수히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간단히 한마디로 말하자면 전쟁은 대체로 극도의 권력욕에 기인합니다.

오늘 밤 저는 신권을 지닌 젊은이들에게 권세와 그 적합한 사용,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책임의 수행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

다. 권세란 굉장히 매력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습니다. 자기 형성의 시기에 있는 젊은이들은 여러 형태의 권력가에 매력을 느낍니다. 인기 스포츠맨, 연예인, 부유층 인사, 정권을 가진 자 등이 이러한 권력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일부 젊은이들이 특히 학업 성적이 좋지 않거나, 대표팀에 들지 못하거나, 엄선된 합창단의 단원으로 선택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굴욕감을 느낄 수도 있으며 나아가 자신의 부족함을 상쇄시켜 줄 것같이 생각되는 집단으로 유인되기도 합니다. 소속감이나 권력에 대한 이러한 갈망은 마치 나방이 불빛에 피어 들 듯이 그들을 길거리의 폭력배들이나 폭력적인 성향을 띤 유사 조직에 피어 들게 하여 육체와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습관에 젖어 들게 합니다.

신권을 지닌 젊은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권세의 근원에 자유롭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권입니다. 다른 힘의 근원과는 전혀 딴 판으로, 거룩한 신권은 합당하게 사용하는 가운데 영원히 지속될 영적이고도 물질적인 힘이 계속해서 자라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권능과 굳게 매어져 있어 뱌 수 없으며" (교리와 성약 121:36) 또한 "의의 원칙이 아니고서는 운용될 수 [없습니다]." 교리와 성약 121:36 신권에 관하여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지식과 교리, 구원의 계획, 그리고 중요한 모든 일이 하늘로부터 계시되는 통로입니다. 이것은 전지 전능하신 이께서 ... 자신을 오늘 날까지 계속해서 사람의 자녀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통로이며 또한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의 목적을 알려 주실 통로입니다." (교회사 4:207)

이 권세는 의무를 이행하는 충실함의 정도에 따라 주어집니다. 예언자 요셉은 "주님은 수행해야 할 일의 정도에 맞게 권세를 주셨으며, 우리 앞에서 펼쳐지는 경우에 필요한 힘을 주시며,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만큼은 도와 도움을 주셨습니다." (교회사 1:176)라고 말했습니다. 한 예로 예언자 엘리야는 자신의 신권을 사용하여 하늘로부터 불이 내

리도록 하여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 줄 수 있었습니다.

휴 비 브라운 부대관장님은 총관리 역원이 되시기 전에, 영국에서 캐나다군의 장교로 복무하면서 큰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그 앞에서 차려 자세를 취했으며 그를 "장교님"이라 불렀습니다. 하루는 병원에서 누군가가 뺨고자 한다는 전갈을 받았습니다. 그가 그 곳에 도착하자, 누군가가 그를 한 젊은이가 병들어 누워 있는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브라운 형제는 자신이 한때 그 젊은이의 주일 학교 교사였다는 사실을 기억해 냈습니다. 그 젊은이는 "브라운 형제님"하고 부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위해 형제님의 권능을 사용해 주시겠습니까? 의사들은 제가 살아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를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그 젊은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면서, 대영제국의 제복을 입을 때 자신이 느꼈던 모든 자부심이 사라졌습니다. 그 젊은이가 필요했던 도움은 대영제국 군대의 장교로서 갖는 어떠한 권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신권의 권능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되라", 휴 비 브라운, *브리감영 대학 올해의 연설* (1967년 2월 14일), 8~9쪽)

신권의 권세에는 무거운 책임들이 따르게 됩니다. 진실로 우리는 의무를 행하고자 할 때 비로소 신권의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 교회의 신권 소유자들은 역경을 통해 그에 따른 의무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배워야 했습니다. 교회 초기의 형제들은 미덥지 못하고 경험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예언자 요셉으로 이끌게 하시는 가운데 형제들을 가르치셨으며, 그들을 체로 치셨습니다. 그들은 박해를 받고 무자비하게 탄압을 받으면서 자신들의 의무를 행하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족했습니다. 일부 초기 성도들은 세 차례나 모진 시련과 단련의 과정을 견뎌 끝까지 이 산속에 있는 계곡에서 안식처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세 차례에 걸친 시련 가운데 첫째 것은 1834년의 봄과 여름에 조직되었던 시온

진영이었습니다. 둘째 것은 그 후 4년 뒤에 있었던 일로 수천 명의 성도들을 미주리 주에서 일리노이 주로 이주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12년이 지난 후에 일리노이에서 윈터 쿼터스로 그리고 그 다음해에는 미대륙의 서부에 있는 산속의 계곡으로 이주하는 장엄한 서부로의 이주였습니다.

시온 진영은 미주리 주 잭슨 군에 성도들의 사회를 재건하기 위해 조직되었습니다. "시온을 다시 찾기 위한" (비 에이치 로버츠, 교회 역사) 이러한 노력에 약 200명의 남자가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개인적인 지도력에 따라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도 1600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를 여행했습니다.

당시에 16세의 나이로 시온 진영에 참가하도록 선발된 조지 에이 스미스는 형제들이 감당해야 했던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는 1834년 5월 26일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날씨가 너무나 무더운 탓에 우리는 갈증으로 심한 고통을 겪었다. 갈증을 해소하고자 생명체가 득실대는 수렁의 물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나는 이빨로 곰들대는 해충을 걸러내는 법을 배웠다." ("조지 앨버트 스미스의 역사", 타이프라이터로 쓴 문서, 역사 분과, 자료 관리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17쪽) 다음 날 기진맥진한 솔로몬 험프리가 땅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가 깨어났을 때, 방울뱀이 머리에서 30 센티미터도 채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서 꼬리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뱀은 그와 모자 사이에 있었는데, 그 모자는 그가 잠들 때 쥐고 있었던 것이었다. 여러 형제들이 그의 주변에 모여들며 말했다. '방울뱀이오, 죽입니다.' 그러나, 험프리 형제는 말했다. '안 되오, 내가 그 뱀을 보호하겠오. 그 뱀이 나와 함께 단잠을 잤으니 여러분이 그 뱀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겠오.'" (조지 앨버트 스미스의 역사, 18쪽) 저는 어떠한 경우라도 방울뱀이랑 같이 단잠을 자고픈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조지 에이 스미스 형제는 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언자 요셉도 여행하는 동안 줄곧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도맡아 하였다. 진영을 보살피고 관리하는 외에도 대부분의

시간을 걸어갔다. 그의 발은 온통 물집이 잡히고 피가 나 쓰라렸다. 무더운 여름철에 매일같이 40~64킬로미터를 걷는 데 따른 당연한 결과였다. 하지만 그는 여행하는 동안 단 한마디의 불평이나 투덜거림도 하지않은 반면에, 진영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에게 ... 식량 부족, 저질의 빵, 구더기 낀 베이컨과 치즈 등에 관해 불평했다. ... 우리가 시온 진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기도도 하지 않았으며, 사려 깊지 않으며, 조심성 없고 부주의하며, 어리석고 사악했으나, ... 요셉은 마치 어린 아이들을 대하는 것처럼 참을성을 갖고 우리를 가르쳐야 했다. 그러나 진영에는 결코 투덜거리지 않고 언제나 준비되어 있으며 지도자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기꺼이 행할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조지 앨버트 스미스의 역사, 33쪽)

비록 시온 진영이 성도들에게 미주리 주 잭슨 군에 있는 그들의 소유지를 다시 찾아 주겠다고 천명했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무엇보다 값진 혹독한 배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생명 그 자체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신앙이란 사실을 배웠습니다. 1835년 2월 14일에 열린 한 대회에서, 시온 진영에서 봉사했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십이사도 정원회 및 칠십인 정원회의 일원들이 선택되었습니다. 이 용감한 형제들이 이후 50년 동안 교회를 인도했습니다.

주님은 교회 역사에서의 이 기간 동안에 신권에 따른 또 다른 위대한 의무를 가르치셨습니다. 교리와 성약 104편에서 주님은 가난한 사람에 관한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어느 사람이 내가 만든 것을 풍성하게 갖고 있으면서도 나의 복음의 율법에 따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자기의 몫을 나누어 주지 아니하면 저는 악한 자들과 더불어 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받으면서 눈을 들어 바라보리라." (교리와 성약 104:18) 이 판결문에 따라 미주리 주에서 탈출하던 시기인 1839년 1월에 많은 형제들이 "이 주에서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남지 않을 때까지 ... 서로 지원하고 돕기로" 성약을 맺었습니다. (교회

사 3:251; 3:250, 252~255 참조)

1839년 2월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다니엘 스틸웰 토마스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미시시피 강을] 건너기 전에 우리는 마차에서 짐을 내리고는 가난한 사람들을 데려 오고자 마차를 돌려보냈다. 이렇게 하여 여전히 폭도들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다니엘 토마스에게는 다섯 자녀가 있었는데 신발은 고작 한 켤레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궁핍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 마차를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 후 1845년 10월 6일에 일단의 신권 소유자들이 나부 성전에 모여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이 다른 성도들과 함께 서부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성약이 적힌 서류에 자신들의 이름을 엄숙히 서명했습니다. 1846년에 십이사도 평의회는 성도들의 서부 이주를 돕기 위해서라면 나부와 커틀랜드에 있던 성전은 물론 그 지역의 모든 교회 자산을 팔아도 좋다는 권한을 관제인에게 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여전히 계속되는 신권 의무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 미망인, 고아, 미혼모와 그의 가족들을 포함하여 모든 회원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우리는 우리 형제들 가운데 영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 그들은 물론 그들의 가족까지도 “이 세상에서는 평화를 얻고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을”(교리와 성약 59:23) 누릴 수 있도록 할 또 다른 책임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아론 신권을 지닌 젊은이 여러분은 신권의 의로운 행사를 통해서 맛볼 수 있는 만족을 이제 어렵듯이 보았습니다. 이 신권은 “천사의 성역의 열쇠”(교리와 성약 84:26)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 내는 침례라는 신성한 의식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이 계시에게 허용됩니다. 아론 신권 소유자들은 성찬의 신성한 상징물을 집행하고 전달합니다. 이 두 의식은 구세주의 속죄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여러분은 가정 복음 교육 동반자로서 교회를 살피며 회원들에게 “기도할 것과 가족의



의무를 다할 것”(교리와 성약 20:51)을 권고해야 합니다.

또 다른 특별한 의무가 훌륭한 젊은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돌보는 권능을 지닌 사람들의 권고를 따르는 의무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부모님의 의견에 동의하든지 하지 않든 간에 그분들에게 순종하십시오. 부모님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하며, 또한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정원회 회장과 감독, 스테이크 부장, 사도, 선전자, 계시자, 특히 히클리 대관장님과 교회의 다른 총관리 역원들의 말씀에도 귀 기울이십시오. 그분들은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권은 이 세상에서 선을 진작시키는 탁월한 권세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회의 변두리에서 맴도는 소수가 아닙니다. 선을 진작시키는 이 위대한 권세가 우리들에게 맡겨졌습니다.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않음으로써 이 권세를 약화시키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의의 갑옷을 단단히 입어야 합니다. 신권의 위대한 모든 권세를 끌어낼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합당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거래에서 완전히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궁핍한 이들을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로서 우리는 온 세상에서 의와 진리의 대업을 촉진시킬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의 권능을 부여받은 종입니다. 이 권능과 함께 거룩한 사업이 세상에 나아 가도록 할 의무가 따릅니다. 우리는 전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단체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허락된 열쇠와 권세와 권능으로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위대한 신임에 참되어야 합니다.

미래에도 여전히 우리는 계속해서 장애물과 난관과 도전과 적대 세력 등과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사람을 기만하고 마음을 산만하게 하고 타락시킬 수 있는 방법을 더욱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채찍질당할 것입니다. 미래의 어느 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투자하신 이 위대한 권세로 무엇을 행했는지에 대한 보고를 고든 비 히클리 대관장을 통해 예언자 요셉에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고든 비 히클리 대관장의 영도력 아래서 하나님의 사업이 힘차게 나아가고 있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구세주께서 돌아가신 후에, 그분의 사도들은 그분의 이름으로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가야바를 비롯한 대체사장 무리들에게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사도행전 4:7)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세상에 이 모든 것을 거룩한 신권의 권세에 의하여, 거룩한 신권의 권세를 통하여,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짐을 선언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엄숙히 간증드립니다. 아멘.

오늘이 내일을 결정합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우리 모두 주님에 대해 배웁시다. 주님이 계심을 믿읍시다. 주님을 신뢰합시다. 주님을 따릅시다. 주님께 순종합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분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있던 없든 간에, 참으로 많은 신권 소유자 여러분 앞에 서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신권 모임은 제가 아론일 때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매우 멋진 모임이었습니다. 우리의 찬송가에도 나오듯이 예언자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소중한 축복인 것입니다. (“예언자의 음성”, 찬송가, 12장 참조)

우리는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을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으로, 또한 이 시대의 교회의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합니다. 어느 아버지가 당시 다섯 살이던 아들에게 있었던 일을 자랑스럽게 편지로 보낸 적이 있었는데, 아들이 대관장님을 사랑하고, 대관장님의 모범을 따르고 싶어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크리스토퍼는 다섯 살 때 일요일마다 교회에 갈 준비를 거의 스스로 하곤 했습니다.

특별한 일요일, 제 아이는 난생 처음으로 양복을 입고 넥타이도 매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는 물려받은 넥타이를 찾으려고 직접 옷장을 뒤지더니 매듭을 지을 필요가 없는 다소 험 클럽식 넥타이를 꺼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넥타이를 흰 셔츠에 단 다음에 형들의 옷장에 오랫동안 걸려 있던 어린이용 해군복 상의를 꺼내서 걸쳐 입었습니다.

아들아이는 직접 목욕탕으로 들어가 금발머리를 깔끔하게 빗었습니다. 그때에 제가 교회에 갈 준비를 마치려고 목욕탕으로 들어갔습니다. 크리스토퍼가 거울을 보며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아이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짜잔, 크리스토퍼 비 힝클리랍니다!” 이 아버지는 조그만 어린이가 주님의 예언자를 유심히 관찰해 왔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영원한 교훈들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꾸며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어떤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까?

오래 전 제 막내아들 클라크가 브리감영 대학교에서 신학 강의를 듣고 있었는데, 한번은 교수님이 클라크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네의 부친에게서 받은 모범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가?”

후에 그 교수님은 클라크가 수업 시간에 했던 대답을 편지로 제게 알려 주셨습니다. 클라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론 신권 집사 때, 아빠를 따라서 아이다호 주 벨러드

근처로 핑 사냥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월요일로, 사냥철의 마지막 날이었죠. 핑을 찾아서 들판을 한없이 걸었지만 단 몇 마리 밖에 보지 못한 데다, 그마저도 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때 아빠가 그러셨어요. ‘클라크, 총을 이 도랑에 내려 두고,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자꾸나.’ 전 아빠가 핑을 더 많이 찾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리차드 엘 에반스 장로님이 위독하신데, 그 월요일 정오가 되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 모두가 무릎을 꿇고 에반스 장로님을 위해 짧게라도 함께 기도를 드리기로 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모자를 벗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도 그때 일을 잘 기억하지만, 정말이지 세 아들이 지켜보면서 배우고 있었고, 자신의 간증을 쌓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집사, 교사, 제사와 같은 아론 신권을 소유한 사람들의 통제적인 행태를 분석해 보면 상당수의 집사들이 비활동에 빠져서 적절한 시기에 교사에 성임되지 못하는 사실에 염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교사 직분을 가진 형제가 제사에 성임되지 못하고, 특히 제사 직분을 가진 회원이 벨기세텍 신권에 성임되지 못하는 경우도 똑같습니다. 형제 여러분, 결코 그레서는 안됩니다. 우리에게는, 이 청년들이 신권의 행로를 견도록 인도하고 영감을 주어서 죄나 실수의 눈사태 때문에 발전에 방해를 받거나 영원한 목표로부터 멀어져 가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감독과 감독 보좌 여러분, 각 아론 신권 청년들의 활동 수준을 연구해 보고 각자의 발전과 활동을 확고하게 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새로 부름 받은 어떤 감독님은 보좌들과 가진 첫번째 모임에서 “아론 신권은 우리가 책임져야 할 주요 대상입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제2보좌에게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모든 집사들이 적절한 나이가 되면 교사 직분에 합당하게 되고 그렇게 성임되게 인도할 책임을 개인적으로 맡으시기 바랍니다.” 제1보좌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형제님은 교사들에 대해서도 같은 책임을 지고 그들이 일정대로 제사 직분에 합당하게 되고 성임되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런 다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사들이 멜기세덱 신권을 받고 장로로 성임되게 하는데 똑같은 책임을 지겠습니다. 우리가 협력하고, 하나님이 도와 주시면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대로 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비판이 아니라 따를 모범이 더 필요합니다. 아론 신권 정원회의 고문 여러분이야말로 청남들의 교사요 모범입니다.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공과를 준비했습니까? 청남 한 명 한 명을 잘 알며, 어떻게 그들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고, 그들의 장래의 가능성을 형성하도록 도울 것인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정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가르치면 청남들이 여러분의 말을 듣고 있다고 추측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교회 행정 건물의 서쪽 위윈실이라고 하는 곳에는 화가인 해리 앤더슨이 기증한 아름다운 그림 한 점이 걸려 있습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이 사랑의 주요 대상인 수많은 어린이들에 둘러싸인 채 낮은 돌담에 앉아 있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저는 그 그림을 주목해서 볼 때마다, 다음 성구가 생각납니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마가복음 10:14)

언젠가 제가 그 방에서 곧 큰 수술을 받게 되어 있는 어린 소년에게 신권 축복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년과 소년의 부모에게 예수님과 어린이들의 그림을 보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구세주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한없는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소년에게 질문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네" 하고 그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몬슨 형제님, 어떻게 하면 저 그림에서처럼 이런 염소를 잡아서 끈을 매죠?"

저는 잠시 예기치 못한 질문을 받고 아찔했지만,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너와 나에게 끈으로 맨 염소보다 훨씬 중요한 선물을 주신다. 그분은 하늘로 가는 도로 지도를 주시지. 그분의 가르침과 모범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은 신권 모임에서 해리 앤더슨의 그림, 어린이들과 함께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 언급했음.

과 사랑은 세상의 그런 것들보다 훨씬 소중한 선물들이란다."

주님은 "와서 나를 따르라" (누가복음 18:22)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권고를 따르는 것이 현명합니다.

아론 신권을 소유한 모든 청남이 구세주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에 따라 생활하게 한다면, 그들은 후에 합당한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영적이고 효과적으로, 또 사랑스럽게 변화를 입을 때 온 세계의 수많은 고귀한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고 그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리에 대한 간증을 갖게 된 이 고귀한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으며, 침례의 물로 들어가 교회의 회원으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교사 정원회 회장이었을 때 경험한 것을 형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를 담당했던 감독단의 한 분이 지도자 훈련을 위해 회장단과 서기를 그분의 집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로 주어짐 임무를 수행할 것인지에 관한 의견을 원했습니다. 우리는 그 형제님의 부인이신 네티 자매님이 그분의 주특기인 고기 파이를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형제님

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종종 예고 없이 우리의 자매들에게 어떤 역할들을 하게 하는 좋은 사례 아닙니까? 그 모임은 제가 참석해 본 가장 좋은 모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훈련을 받았으며, 우리 정원회 회원들을 돌보겠다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고기 국물 소스를 잔뜩 바른 맛있는 고기 파이를 먹은 뒤, 우리는 그 감독 보좌와 자매님에게 함께 모노폴리라는 주사위 게임을 하자고 했습니다. 분명히 다른 할 일이 많았을 텐데, 그분들은 기꺼이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그 모노폴리 게임에서 이겼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날 저녁에 교회 행정과 신권 정원회 행정에 관하여 배운 교훈만은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 발발 초기의 뜨거운 상황에서, 우리 교사 정원회 회원 가운데 한 명인 프리트즈는 우리 나라를 지키고 싶어 했지만, 군에 입대할 최소한의 나이가 되지 않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는 나이를 속여서 미국 해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는 곧 멀리 태평양 해상 전투에 투입되었습니다. 그가 승선하여 복무했던 함선이 침몰하여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프리트즈는 살아 남

아서 후에 참전 리본을 단 제복을 입고 정원회 모임에 나타났습니다. 제가 프린츠에게 "우리를 위해 해줄 말이 없니?" 하고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도 모두 군입대를 할 시기가 가까워 있었던 것입니다.

프린츠는 잠시 생각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든 뭐든, 절대 거짓말하지 마" 그 한마디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언젠가 들었던 가르침 가운데 일부를 인용하고자 합니다. 아론 신권의 임무는 청년 각자가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다음과 같이 하도록 강화하는 것입니다.

1. 복음에 개심한다.
2. 신권의 부름을 영화롭게 한다.
3. 뜻있는 봉사를 한다.
4. 맹기세텍 신권을 받기 위해 준비한다.
5. 복음 선교사로 봉사한다.
6. 성전 성약을 맺고 아버지가 될 준비를 한다. (아론 신권 지도자 지침서, 6쪽 참조)

구세주께서 하셨던 것처럼, 전세계에서 뛰어난 선교사들이 봉사하면서 선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진리를 가르칩니다. 그들은 어둠을 내쫓습니다. 기쁨을 전파합니다. 그리스도에게로 고귀한 영혼들을 데려옵니다.

선교사 부름을 받는 특별한 날이면 그 예비 선교사를 중심으로 부모와 형제 자매들과 조부모님이 모여서, 그 예비 선교사가 조심스럽게 부름장을 개봉할 때의 긴장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정적이 흐른 뒤, 그가 주님의 예언자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셨는지 발표합니다. 감정이 북받쳐 오릅니다. 금세 눈물이 쏟아져 나오고, 가족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의 유대 안에서 기쁨을 나눕니다.

주님의 사업을 행하는 복음 선교사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부름에 응답한 분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우리는 백성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물몬이 준 거룩한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물몬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보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이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여 저들로 영생을 얻게 할 뜻으로 주께

부름을 받은 자라." (니파이삼서 5:13)

1926년, 독일-오스트리아 선교부의 프레드 타드제 선교부장은 8월에 독일 드레스덴에서 선교부 대회를 갖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선교사들은 기본적으로 "지갑이나 전대도 없이" 그들의 임지에서 이 대회 장소까지 걸어오게 되었습니다. 약간의 돈이라도 지참하지 않으면 부랑자로 오인되어 체포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알프레드 리폴드 장로와 그의 동반자인 파커 토마스 장로는 북쪽 길을 걸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어느 지점에선가, 이 두 사람은 어느 가정을 방문하여 한 여성과 그녀의 여덟 자녀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장로들에게 남편이 자신과 아이들을 두고 떠나버려서 돈이 한푼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장로들을 들어오게 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 한푼 없이 여행하니, 배가 고프겠네요. 앉으세요." 그녀는 장로들에게 각각 자두잼을 바른 큰 빵 조각 하나씩을 주었습니다. 선교사들은 그 "아침 식사"를 축복했으며, 음식 축복을 하면서 주님께서 그 여성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런 다음 선교사들은 떠났습니다. 그 집을 출발하여 약 2킬로미터 정도 갔을 때, 토마스 장로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느닷없이 "돌아가야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오자마자, 리폴드 장로는 "왜 돌아갔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토마스 장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자매님이 필요한 것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했지요. 그런데 제게 20달러 짜리가 있었거든요. 그것이 제 주머니에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서 그 분에게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매우 신경 쓰일 것 같아서요."

30여 년 전, 저는 남태평양 제도에서 여러 가지 일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제이 버논 몬슨 형제님이 자매님과 함께 멀리 떨어진 쿡 제도의 라로통가로 가서 지방부장으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후에, 그분은 제게 서신으로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이곳의 발전으로 우리는 더없이

기쁜 마음입니다. 특히 정부 대표자 및 사업계 인사들이 우리와 교회에 대해 선의를 갖게 되고 우리와 훌륭한 관계를 맺게 된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됨에 따라, 한 가지가 가능해졌습니다. 바로 저희 조카 부부인 오딘 매닝 박사 부부가 이곳 쿡 제도에서 탁월한 봉사를 하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매닝 박사는 안과 의사인데, 제가 그에게 편지를 써서 라로통가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해주기 바란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저의 제안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 보수가 없다, 2)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3) 체류하는 3개월 동안 다른 의사들에게 의술을 전수시켜 달라, 4) 라로통가에 있는 동안 진료실과 집을 제공하겠다, 5) 라로통가에서는 의료 장비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수술 장비를 직접 갖고 와달라."

버논 몬슨 형제님의 편지는 이렇게 계속되었습니다. "매닝 부부는 항공 우편으로 답장을 보냈는데 단 두 마디였습니다.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준비가 시작되자, 쿡 제도 정부는 매닝 박사를 돕고 그에게서 의술을 배울 유능한 의사들을 지명했습니다. 총 284명이 진료를 받았는데, 대부분이 안경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53명의 환자가 백내장 같은 중증 안과 질환 수술을 받았습니

다. "3개월짜리 이 프로그램은 매우 훌륭하고도 훈훈한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축복을 받았습니

다. 이로써 성도들은 고무되었으며, 이 제도에 의료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교회의 회원이 된 것에 새로운 자부심을 얻었습니다." 편지는 그렇게 끝났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난 후, 저희 부부는 브리감 영 대학교가 후원하는 성지 순례에 초대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희 부부가 배의 갑판에 앉아 있는데, 옆에 앉아 있던 남자 분이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몬슨 장로님, 저는 캘리포니아 주 우드랜드 힐즈에서 온 오딘 매닝이라고 합니다. 직업은 안과 의사인데, 제 삼촌과 숙모님이 봉사하시던 라로통가에서 짧은 기간 동안 의료

선교 사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회생과 봉사를 잘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생각하실 때, 기분이 어떠시죠?” 하고 매닝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감격에 젖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영적으로 가장 보람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유람선에서 그 특별한 시간에, 갑판의 그 특별한 장소에 있었다는 것은, 더구나 한번도 만난 적이 없는 바로 그 사람의 옆에 앉게 되었다는 것이 결코 우연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매닝 박사를 포옹하면서, 그가 앞을 못 보다가 이제는 볼 수 있게 된 사람들 뿐 아니라 구세주이신 주님을 위해 봉사해 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을 때, 하늘이 가까이 느껴졌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주께서 바다의 섬들 위에 사는 자들과 맺으신 약속이 크시도다.”(니파이서 10:21)

끝없는 죽음에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분이 진리의 교사이지만, 단순한 교사 이상인 분임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온전한 생활의 모범이지만, 단순한 모범 이상인 분입니다. 그분은 위대한 의사이시지만, 단순한 의사 이상인 분입니다. “잃어버린 군대”인 인류를 구원하신 주님은 말 그대로 세상의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평강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시며, 바로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살아 있는 자요, 죽임을 당하였던 자니, 아버지와 너희의 증보자니라.”(교리와 성약 110:4)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 모두

- 주님에 대해 배웁시다.
- 주님이 계심을 믿읍시다.
- 주님을 신뢰합시다.
- 주님을 따릅시다.
- 주님께 순종합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분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엄숙하게 간증드립니다. 아멘

청남과 성인 형제들에게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우리의 집에 질서를 세워야 할 때가 왔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큰 기회를 갖고 보니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우선 아론 신권 형제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디에서 이 모임을 참석하고 계시든, 오늘 저녁 함께 하고 계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식일 모임과 세미나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배워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더욱 깊게 하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신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선교사로 봉사하고 싶다는 소망을 갖고 계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성전에서 결혼하고, 훌륭한 가족을 양육하고 싶다는 소망을 갖고 계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무 목표도 없이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목표가 있고, 계획이 있는 분들입니다. 성장과 강인함으로만 이끌어 줄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온 힘을 다하고, 확실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최

근에 캘리포니아 주 북부 지역에서 말일성도 청남들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로부터 한 가지 선언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19개 스테이크에서 모인 이 청남들은 개척자들이 비극을 겪었던 한 유적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본 것들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그들의 유산에 대해 돌이켜 보는 가운데, 물론 트레일 소년단 야영 선언문에서 서명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 서약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보이스카웃이고 하나님의 아론 신권 소유자임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이 캘리포니아 주의 설립을 도와 주신 물론 대대의 장병들과 말일성도 개척자 형제 자매님들을 이끌어 준 가치관과 원리들을 지킬 것을 맹세합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자손으로서, 그분들과 같이 봉사함으로써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는 1998년 7월 18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개심할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경전을 공부할 것이며,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간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일할 것이며, 주님을 모범을 따르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신권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만찬인 성찬을 집행하는 데 합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마다, 선조들처럼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대신권인 멜기세덱 신권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군대에 응모하여, 모든 이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도록 권하는 복음 선교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약의 청남들입니다. 우리는 영

원한 결혼 성약을 받기 위해 준비할 것입니다. 우리가 존중하고 목숨을 바쳐서 보호해 줄 의로운 아내와 자녀를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처럼, 어떠한 위험이나 유흥이 있더라도, 주위 세상의 상태가 어떻고 해도, 우리는 충실할 것입니다. 앞서 가신 분들처럼, 우리는 자기 중심 주의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이득을 버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평화로운 사회를 세우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 우리는 이 서약을 지키겠습니다.”

이 서약서에 서명한 모든 형제들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단 한 명이라도 자신과 교회와 주님께 한 약속을 저버리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만약 모든 청년들이 그런 서약서에 서명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고자 한다면, 이 세상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마약으로 인생을 망친 사람도 없을 것이고, 어린이를 죽이는 어린이들과, 감옥으로 가거나 죽임을 당하는 청년들이 소속된 폭력 집단도 없을 것입니다. 교육은 추구할 만한 상이 될 것이며, 교회에서의 봉사도 소중히 여길 만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가정에는 더 큰 평화와 사랑이 임할 것입니다. 음란물을 접하거나, 음란 잡지를 읽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사귀는 자매들을 존중하고 아꼈 것이며, 그 자매들이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과 있더라도 두려움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온 세상의 청년들이 힐라맨의 어린 용사들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계획에 선교 사업이 포함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업을 위해 어디라도 기쁘게 가서, 시간과 마음과 힘과 열정과 사랑을 다해 봉사할 것입니다.

현재 선교 사업을 하고 있는 한 젊은이가 보낸 편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가족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읽는 것이 실례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난 한 해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 이 작은 지부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이동한 뒤에 제

삶에 정말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제 자신을 잊을 수 있는 것을 배웠으며, 효과적으로 일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배웠으며,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제가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 저는 믿는 대로 생활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사람들과 일에 대해 배웠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을 몰랐던 사람들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넘쳐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우치는 자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단지 느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자주 구원의 계획에 대한 꿈을 꾀니다. 주위에서 일어났던 기이한 일들에 관해 생각해 봅니다. 우리 가운데에 서 있는 천사들의 권세와 힘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가끔도 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 같던 언어로 간증할 수 있도록 내 주위에서 도움을 주는 천사들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가 시현으로 보았던, 불사 불멸의 영광이 있는 평화로운 것에 대해 생각합니다… 지금의 제가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큰 평화와 기쁨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젊은 친구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선교 사업으로 향해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은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쉽고 편안할 것이라는 약속도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절망과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것이라는 약속도 드릴 수 없고, 가끔씩 실질적인 참담함을 당하는 일도 없을 거라는 약속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시기에도 이를 수 없는 큰 성장을 선교 사업 기간 동안에 이룰 것이라는 약속은 드릴 수 있습니다. 새롭고 훌륭하고 영원히 지속되는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활을 들여다보고, 새로운

우선 순위를 매기며, 주님과 보다 가까운 생활을 하게 되고, 진정으로 훌륭한 기도를 하게 되며, 여러분이 행하는 일이 모두 선한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생활하게 된다는 것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 위대한 교회에 속한 청년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말일성도라는 말의 의미에 그대로 걸맞는 성도가 되겠다는 보다 확고한 결심과 결의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매력적이고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성취와 업적과 봉사를 할 수 있는 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좀더 나이가 많은 청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나이가 어린 청년들에게도 어느 정도 교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세상과 관련된 것들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의 배경으로, 창세기 41장의 몇 구절을 여러분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애굽(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파라오)가 매우 혼란스러운 꿈들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의 궁전에 있던 박사들도 해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바로 앞에 요셉이 불러 왔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하숫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하숫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 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악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

“그 파리하고 흉악한 소가 처음의 일곱 살진 소를 먹었으며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 세약한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흉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라니” (창세기 41:17-32)

지금, 제가 앞으로 다가올 흉년에 대해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의 집에 질서를 세워야 할 때가 왔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수입을 다 써가며 살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빚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전세계의 시장에 크고 무서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제는 깨지기 쉬운 것입니다. 자카르타나 모스크바의 경제 변화가 즉시 전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개개인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 폭풍우 치는 날씨를 맞을 수 있습니다.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결코 불황의 상태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1930년대의 대공황을 겪었습니다. 1932년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당시 이 지역의 실업률은 33퍼센트가 넘었습니다.

당시 저희 부친은 교회에서 가장 큰 스테이크의 스테이크 부장이셨습니다. 현재의 복지 프로그램이 생기기 이전이었습니다. 저희 부친은 가정용 난로와 스토브에 불을 지펴서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 나무 자르는 대형 사업을 마련하여 이끄셨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석탄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나무를 자르는 분들 중에는 과거에 유복했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결코 불황의 상태를 겪지 않기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을 비롯해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큰 액수의 분할 불입금을 떠안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1997년 3월에 그 빚은 총 1조 2천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것은 전년도보다 7퍼센트 늘어난 액수입니다.

1997년 12월에는, 미국의 5억 5천 만에



서 6억의 가정이 신용카드 빚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빚은 평균 7천 달러가 넘었고, 이자와 비용만 해서 연 1천 달러에 달했습니다. 1993년에 수입의 16.3퍼센트를 차지했던 신용카드 빚의 비율도, 1996년에는 19.3퍼센트로 늘었습니다.

빚지는 1달러마다 지불해야 할 이자가 붙는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돈을 갚지 못하면, 파산이 뒤따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일어난 파산 건수는 무려 135만 118건이었습니다. 이것은 1992년에 비해 50퍼센트나 상승한 것입니다. 올해 2사분기가 지났을 때, 거의 36만 2천 명이 파산 신청을 냈는데, 이것은 3개월 단위로 볼 때 가장 높은 신청 건수였습니다. 우리는 유혹적인 광고에 많이 속습니다. 텔레비전은 시청자로 하여금 자기 집 가치의 125퍼센트에 달하는 돈을 빌려 줄 수 있다는 유혹적인 광고를 내보냅니다. 그러나 이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1938년 연차 대회 of the 신권 모임 당시, 제이 르우벤 클라크 이세 부대관장님께서 이 연단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자 는 자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으며 죽지도 않습니다 … 일단 빚을 지면, 이자는 밤낮으로 매분마다 여러분의 동반자가 되며, 그 빚을 피하거나 빚으로부터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떨쳐 버릴 수도 없으며, 칸청이나 요구나 명령에 굴복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길 중간에서 있거나 그 진로를 방해하거나 요구 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여러분을 눌러 부서뜨려 버립니다.” (대회 보고, 1938년 4월, 103쪽, 성도의 벗, 1996년 1월호, 36쪽)

물론 집을 사기 위해 돈을 빌려야 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형편에 맞는 집을 사서, 자비도 중단도 없이 30년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늘 우리 머리 위에 머물러 있을 지불금의 액수를 줄이도록 합시다.

비상 사태가 언제 닥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신의 직업에서 꽤 성공을 거둔 한 사람의 사례를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는 편안하게 살았고, 큰 짐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큰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예상도 하지 못하고 있던 중에,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는 불구가 되었으며, 돈을 벌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치료비가 엄청났으며, 지불해야 할 다른 금액들도 많았습니다. 채권자들 앞에서 속수 무책이 되어 버렸습니다. 눈 깜짝 할 사이에, 그렇게도 부자였던 그가 무일푼 신세로 주저앉고 만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후, 주님께서서는 이 부채 문제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계시를 통해 마틴 해리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쇄업자에게 진 빚을 청산하여 속박에서 벗어나라.” (교리와 성약 19:35)

이에 대해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님도 이렇게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인간의 마음과 가족에게 평화와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형편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를 지치게 하고 낙담시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부채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히버 제이 그랜트, 복음 표준, 111쪽)

교회에서는 자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정이 심각한 부채를 지고 있을 때, 자립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의무를 지우고 있을 때, 그는 속박 속에서 독립도, 자유도 가질 수 없습니다. 교회 업무를 관리하는 데에도, 우리는 모범을 세우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정책의 하나로서, 우리는 정책적으로, 필요할지도 모를 때를 위하여 교회 수입의 일부를 해마다 저축해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채를 전혀 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떤 운영이나 사업이나 그 사업 조직에서,

교회는 돈을 빌리지 않고 일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우리는 프로그램을 줄이고 지출을 삭감해서 수입에 맞는 운영을 해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빌리지 않을 것입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날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교회가 모든 부채를 다 갚았을 때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뒤로 교회는 부채를 전혀 지지 않았습니다.

부채에서 자유로워지고, 필요할 때를 대비해 작은 돈이라도 저축해 둘 수 있다면, 그 얼마나 행복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파우스트 부대관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을 것 같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은 예전에 집을 사면서, 집을 담보로 하여 4퍼센트의 이자를 내야 하는 돈을 빌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자가 적은데, 서둘러 갚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분은 돈이 생기자, 자매님과 상의하여 큰마음 먹고 한꺼번에 다 갚아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분은 이자에 속박된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일할 때 항상 웃으시고 휘파람을 부실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재정 상태를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지출할 일이 있을 때, 검소하게 쓰시고, 가능한 한 빛은 피하시고, 빛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갚아서 빛의 속박에서 벗어나시기를 권고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믿고 있는 현세와 관련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질서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빛을 모두 갚고 난 뒤, 비록 아주 적은 액수라도 저축해 놓은 돈이 있다면, 그 때에는 모진 풍파가 여러분의 가정에 몰아닥쳐도, 여러분은 아내와 자녀들을 지켜 줄 보호막을 갖게 될 것이며, 마음에 평화를 얻을 것입니다.

이 사업이 성스러우며,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간증 드리며, 이 모든 것을 구속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 드립니다. 아멘.

1998년 10월 연차 대회
일요일 오전 모임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심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십일조는 빈부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의 행복과 전세계 교회 회원들의 복지에 근본이 되는 원리입니다.



언제나 이 연단으로 나아 올 때마다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저는 겸손하게 여러분에 앞에 섰습니다. 제가 전해야 하는 모든 말들을 여러분이 영으로 이해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저는 하늘의 문을 여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담한 경제 대공황이 만연한 1930년대에 당시 소년이었던 저는 할아버지의 농장에서 일하면서 신앙과 희생에 관한 위대한 교훈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농장에 부과된 세금은 연체되어 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할아버지께서는 한 푼의 돈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가목이 들어 풀과 건초가 부족해지자 소와 말들이 죽어 갔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들판에서 얼마라고 할 것도 없는 건초를 거두어들이고 있을 때, 할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건초가 나 있는 들판 한 구석으로 마차를 몰고 가 건초를 마차에 가득 싣고 십일조 창고에 가서 그것을 십일조로 내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당장 우리 가족의 생계가 달린 소들이 굶어 죽어 가는 판에 도대체 할아버지께서는 어떻게 건초를 십일조로 낼 수 있는 것일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주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큰 희생을 할 아버지께 바라시는 것일까 하는 의아함마저 품었습니다. 결국 저는 어찌되었던 주님께서 방편을 주실 것이라는 그분의 큰 신앙에 놀랐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후손들에게 남기신 신앙의 유산은 돈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손들의 마음속에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주님과 주님의 거룩한 사업을 사랑하셨다는 기억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 분은 부자가 되신 적은 없지만, 주님의 품안에서 평온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젊은 시절 제가 감독으로 봉사하던 때에, 저의 와드에는 헨리 디 모일 부대관장님이 사셨는데, 저는 그분을 통해 십일조의 정신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십일조 결산을 하던 자리에서 모일 부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독님, 저는 온전한 십일조보다 조금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십일조는 빈부에 관계없이 전세계 모든 교회 회원의 개인의 행복과 복지에 근본이 되는 원리입니다. 십일조는 희생의 원리이며, 또한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초등학교에 다닐 때 저는 십일조에 대한 시를 암송했었습니다. "십일조가 무엇이니? 언제라도 대답할 수 있네. 천 원에서 백 원, 백



모임 전에 대관장단이 잠시 한담을 나눴다. 왼쪽부터: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제1보좌: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제2보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총관리 직원

대관장단



토마스 에스 문슨 부대관장



고든 비 힌클리 대관장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십이사도 정위원회



보이드 케이 페커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하이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넬슨



멜린 에이저 옥스



영 러셀 핼러드



조셉 비 워스틴



리처드 지 스킷



로버트 디 핼일즈



제프리 알 홀린드



멜린 비 아이어링



제임스 이 파우스트



조셉 비 워스틴



제프리 알 홀린드



로버트 디 핼일즈



닐 에이 맥스웰



러셀 넬슨



멜린 에이저 옥스

보좌관 소개 (임파견 순)



안철 이브레아



경호스 에이치아이드



남길 엔더슨



달연스 엠 아처빌드



벤 비 핑크스



에환 제이 에이치엔



흥남 함 프릭드포드



문연 제이 프라브



응연지오 루시



은케이 커릭



상연 에프 차일드



계원 제이 코플먼



선서 제이 콘다



진필 록



광연 정 록



로버트 제이 엘리아호



은비 덕슨



흥스 단디에이



조현 시 딘



봉 제이 패트스톤



은 예이치 그로버그



병연스 시 하먼



응연 정 하워드



응연스 존스



전 이 정슨



응연스 비 노인슈타인



응연스 에프 케이스



흥남 롱포 카



응연유 기구버



경연 정 코포드



은연 에드슨



은 예이 미켈슨



은 에신더 비 모리슨



은 에프 웨스턴



은 에이비 에프 무토도포드



리처드 디 옹워드



응연스 엠 예모필



이 케이 에이치엔



응연스 엠 브라운



응연 에이 볼



리처드 디 록



리처드 디오 알 엠 코스타



리처드 제이 레인드



리처드 제이 페이노즈



리처드 제이 웨스턴



리처드 제이 웨스턴



리처드 제이 웨스턴



리처드 제이 웨스턴



리처드 제이 웨스턴



리처드 제이 웨스턴



리처드 제이 웨스턴



리처드 제이 웨스턴



리처드 제이 웨스턴



리처드 제이 웨스턴



리처드 제이 웨스턴



리처드 제이 웨스턴



리처드 제이 웨스턴



리처드 제이 웨스턴



리처드 제이 웨스턴



리처드 제이 웨스턴



응연유 디블류 퍼터슨



흥스 디 파커



응연유 피닉스



응연유 피닉스



응연유 피닉스



응연유 피닉스



응연유 피닉스



응연유 피닉스



응연유 프라그 스투브



응연유 프라그 스투브



응연유 프라그 스투브



응연유 프라그 스투브



응연유 프라그 스투브



응연유 프라그 스투브



응연유 프라그 스투브



응연유 프라그 스투브



응연유 프라그 스투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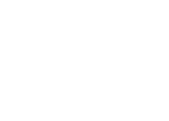
응연유 프라그 스투브



응연유 프라그 스투브



응연유 프라그 스투브



응연유 프라그 스투브



응연유 프라그 스투브

보좌관 소개 (임파견 순)



응연 크리스티안스



응연 데이 볼



응연 에드워드 브라운



응연 에이 볼



응연 데이 볼



응연 데이 볼



응연 데이 볼



응연 데이 볼



응연 데이 볼



응연 데이 볼



응연 데이 볼



응연 데이 볼



응연 데이 볼



응연 데이 볼



응연 데이 볼



응연 데이 볼



응연 데이 볼



응연 데이 볼



응연 데이 볼



응연 데이 볼



응연 데이 볼



응연 데이 볼



응연 데이 볼



응연 데이 볼



응연 데이 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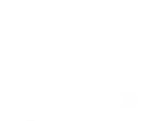
관리 감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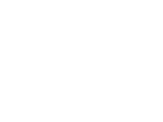
리처드 시 어블러



리처드 시 어블러



리처드 시 어블러



리처드 시 어블러



리처드 시 어블러



리처드 시 어블러



리처드 시 어블러



리처드 시 어블러



리처드 시 어블러



리처드 시 어블러



리처드 시 어블러



리처드 시 어블러



리처드 시 어블러



리처드 시 어블러



리처드 시 어블러



태버니클에 돌아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대회 방문자들.

원에서 십 원 내는 것입을.” 그러나 저는 십 일조의 의미를 할아버지와 모일 부대관장님 으로부터 배우고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일조의 율법은 간단합니다. 자신의 연간 개인 소득에서 십분의 일을 내는 것입니다. (교리와 성약 119:4 참조) 대관장단은 소득이란 수입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교회 지침서 1권: 스테이크 부장단 및 감독단 참조(1998), 134) 우리 개인 수입의 십분의 일은 사람과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형식주의적인 법칙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한 개종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일조를 내는 데 있어서 빈부의 차이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십분의 일만 내면 되는 것이죠. 많이 벌지 못한다 해도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돈을 많이 번다 하더라도 십분의 일만 내면 되고, 적게 번다 하더라도 십분의 일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당신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어깨를 펴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세계의 회원들에게, 그들 중 많은 사람이 하루 생활을 연명하기도 힘들어하는 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제정한 십일조의 법을 지키도록 촉구하는 까닭은 무엇이었습니까? 필리핀의 세부에서 히클리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설사 [회원들이] 빈곤한 가운데 살더라도…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생활하며, 비록 몇 푼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십일조와 헌물을 낸다면, …밥 그릇에 쌀을, 몸에 걸칠 의복을, 머리를 둘 안식처를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밖의 다른 해결책이 없는 줄 압니다.” (성도의 벗, 1997년 8월호, 7쪽)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는 십일조를 낼 여력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니파이일서 3:7 참조) 십일조를 내기 위해서는 우선 신앙의 도약이 있어야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을)…알

리라”(요한복음 7:17) 우리는 십일조를 냄으로써 십일조에 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진실로 저는 미천한 수입이라도 그 일부를 주님께 되돌리려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십일조를 내지 않는다고 교회 회원이 회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잃게 될 뿐입니다. 주님은 말라기를 통해 물으셨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말라기 3:8)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십일조를 주님께 되돌린다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하늘 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은 확고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말라기 3:10) 비록 십일조에는 세상적이며 영적인 축복이 모두 따르지만, 충실한 자에게 주시는 단 하나의 절대적인 약속은 “너희가 영원한 부를 가지게 될 것”(교리와 성약 38:39)이라는 약속입니다.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님은 이 약속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셨습니다. “십일조의 법을 지키는 사람에게 번영이 찾아옵니다. 금전적인 측면만을 생각하고 번영이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번영이란…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간증에서, 복음대로 생활하고 가족도 그와 같이 하도록 격려하는 권세에서의 성장을 말합니다. 그러한 것이 가장 참된 의미에서의 번영입니다.” (복음 표준, 지 호머 두르함 편저(1941), 59쪽)

야에코 세키 자매는 이 소중한 약속을 일부 체험했습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일본 알프스 국립 공원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넷째 아이를 가진 상태라 조금 피로함을 느껴 나무 아래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이 처한 재정 문제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답답해서 그만 울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완전한 십일조를 내

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희생해 왔습니다. 언제 저희 가족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 주셔서 저희의 짐을 가볍게 하시겠나이까?’

“저는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놀고 있던 남편과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 문득 저는 제가 풍성한 축복을 받았으며 하늘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축복은 제 가족이라는 영의 증거를 느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일조가 희생이라 하기보다는 축복이라 생각하거나 심지어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회원들이 갖는 위대한 축복 가운데 하나는 해마다 한 번 감독과 만나 십일조를 결산하고, 온전한 십일조를 냈다고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는 것은 감독에게도 또한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는 대가족을 거느린 우리 와드의 한 형제가 자녀들을 모두 데리고 십일조 결산을 하러 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형제는 가장 어린 자녀로부터 시작하여 한 사람씩 자신의 십일조가 완전한 것인지를 감독에게 보고하게 했습니다. 모든 자녀들이 보고하고 나자, 그는 아내와 자신의 가족을 위한 보고를 했습니다. 이 가족은 그들의 충실함에 따른 풍성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의 십일조가 1838년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주어진 계시에서 공포된 그대로 집행되고 있다고 안심해도 됩니다. 교리와 성약 120편에 나와 있듯이 지명된 18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만나 이 신성한 기금을 집행합니다. 그 평의회에 참여하는 우리들은 이 신성한 책임이 “저들에게 고하는”(교리와 성약 120편) 주님의 음성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히클리 대관장님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성전을 존재하게 하기 위해 성전 건립을 발표하셨습니다. 세계의 모든 곳에서 성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성전이 영적인 성소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들과 그들의 가족을 파멸시키려는 욕망을 가진 사탄

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성전을 갖기를 원하는 교회 회원들에게, 저는 먼저 여러분이 성전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 십일조를 내는 신앙을 보이라고 권고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커틀랜드에서 교회 장로들에게 계시하신 대로, “인자가 올 때까지는 오늘이라 부르리니, 진실로 지금은 회생의 날이요, 나의 백성의 십일조의 날이라” (교리와 성약 64:23)

주님은 헌물이란 단어를 복수로 사용하셨는데, 이는 여러 헌물을 뜻합니다. 주님은 충실함을 나타내는 조건으로 십일조와 금식 헌금을 내어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도울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명이나 회비 혹은 교칙과 같은 명목이 아닌, 또 다른 헌금을 낼 수 있는 특권을 부여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금으로는 일반 선교사금, 인도주의적 지원, 물문경 기금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히클리 대관장님이 발표하신 새로운 성전 건축에 자발적으로 기여할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교회의 일반 성전 기금을 내고자 많은 회생을 하신 한 사람으로부터 익명의 편지를 받았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위해 돈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렇게 하기를 보류하고 성전 기금으로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목표한 것을 이루기까지는 새 옷이며 새 신발이며 책이며 머리 손질이며 목걸이 등에 돈을 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큰 회생이 되리라 생각했었지만, 오히려 기쁨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상과 성취가 따르는 경험이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에서 회생을 요구하지 않는 종교는 생명과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신앙을 갖게 할 만한 충분한 권세를 결코 가질 수 없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회생을 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이러한 신앙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러한 회생에 의지해야만 이러한 신앙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 강화 (1985), 69~70쪽)

우리가 내는 헌금은 우리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됩니다. 최근에 저는 제가 속한 와드의 성찬식에 참석했습니다. 모임이 시작되기 전에, 몇몇 사람이 헌금 봉투를 감독단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들은 만면에 웃음을 띄며 행복해 했습니다. 이 봉투 안에는 주님의 축복에 대한 겸손한 감사의 표시로 그들이 기쁘게 내는 십일조와 기타 헌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지닌 신앙의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이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속도로 세상의 많은 곳에서, 특별히 경제적인 표준이 높지도 않으며, 새로운 회원들이 신앙의 원리 및 축복과의 관계를 아직도 배우고 있는 국가에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충실한 회원이 되는 데는 회생과 헌납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기쁨과 세속적인 소유가 인생의 주요한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영생의 은사에는 우리의 모든 소유와 자신의 존재까지도 기꺼이 희생하는 것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역병을 보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주님은 다윗에게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회생 제물을 바치라고 명하셨습니다. 다윗이 아라우나를 만나러 갔을 때, 아라우나는 왕이 왜 오고 있는지를 알고는 관대하게도 회생 제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왕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대답은 의미 심장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사리라 값 없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라” (사무엘하 24:24)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타작 마당을 사서 회생을 드리자 역병이 그쳤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우리는 수많은 형태의 폭력과 악과 사악함이라는 역병이 넘쳐 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성약을 지키고 십일조와 헌물을 내는 사람들은 현대의 이러한 치명적인 여러 악으로부터 보다 굳건하게 보호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가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는 회생을 통해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세계 종교의 경향이 명백히 드러나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것을 아무런 노력이나 희생도 하지 않고 값싸게 얻을 수 있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조금 갖는 것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반면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 되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노력과 희생이 요구됩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십일조와 헌물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종교는 일요일만을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에는 일상 생활에서 모범적인 행동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책임이 따릅니다. 또한 부름을 받아들이고 충실하게 그 부름에 봉사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뿐만 아니라 회원들이 고결한 성품과 성실, 주님과 이웃에 대한 정직을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성소가 되고 사랑이 가득한 곳이 되도록 해야 할 책임이 따릅니다. 세상 악의 끊임없는 공격에 맞서 싸우는 힘든 싸움을 의미합니다. 때로 회원이 된다는 것은 인기를 잃거나 정치적인 공정에 영향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거룩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운명예롭게 여기며 특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세계 만방으로 널리 영적인 도움의 손길을 뻗쳐야 할 위대한 시기입니다. 참으로 바라보기에 경이로운 뿐입니다. 이 사업은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 교회의 머리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인도되고 있습니다. 고든 비 히클리 대관장님은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이십니다. 저는 히클리 대관장의 영감받은 지도력이 모든 인류에게 축복을 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최대의 회생은 바로 구세주께서 직접 자신의 생명을 드린 회생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개개인 “나로 인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셨는가?” 라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며, 우리 영혼을 치유하시는 분이며, 우리의 구세주요 인류의 구속주가 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그분의 거룩한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한 소망

닐 에이 맥스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진정한 소망은 원하는 바를 묵상만 하는 것보다 훨씬 차원이 높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척추를 약하게 하지 않으며, 끈게 만들어 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머리가 여전히 조금 윤이 납니다만, 제 이발소 친구들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느라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연차 대회 때마다 머리 모양이 달라지긴 해도 효과 좋은 치료를 더 많이 받고 있다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이 넘칩니다. 먼저는 주님께요, 다음은 제 특별한 아내와 가족, 유능하고 자상한 의사들과 간호사들, 절위해 기도해 주시는 너무나 많은 친구와 회원들에게 그렇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이유 때문에, 오늘의 사회는 회망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매우 미묘하게 뒤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소망이라는 말을 쓰는 데는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일정 목표점에 도달하기를 얼마나 '원하는가'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경제가 개선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방문을 "소망"합니다. 그러한 소망은 진지하지만 단기적인 소망의 전형입니다. 인생의 절망은 흔히 단기적 소망이 실패한 데서 연유합니다. 그 대신, 저는 궁극적인 소망의 절대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극적인 소망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궁극적인 소망은 예수님과, 그리고 위대한 속죄로 인한 축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축복이란 만민의 부활을 가져온 축복이요, 자유케 하는 회개를 할 수 있게 해준 축복이며, 경전에서 말한 대로 "온전한 회망의 밝은 빛"을 가능케 한 축복입니다.

모로니이는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소망을 가져야 하겠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소망을 할 것이니(라)." (모로니아서 7:40-41, 또한 앨마서 27:28 참조) 따라서 진정한 소망은 변덕스러운 것들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 불멸한 것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연히, "소망"은 다른 복음 교리, 특히 신앙 및 인내와 시로 얽혀 있습니다.

의심과 절망과 탈감각이 한 묶음이드이, 신앙과 소망과 사랑과 인내가 한 묶음입니다. 그러나 후자의 성품들은 꾸준히 정성을 기울여 배양해야 하는 반면, 의심과 절망은 민들레와 같아서 별로 정성을 들이지 않아

도 잘 싹이 트고 번식해 나갑니다. 슬프게도, 좌절은 육적인 사람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옵니다.

예를 들어, 인내가 있으면 우리는 평탄하지 않은 인생사를 보다 평탄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신앙과 소망은 항상 상호 작용성이 있어서, 항상 쉽게, 혹은 정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소망에서 기대하는 바는 "분명히" 참됩니다. 그래도 회복된 복음의 가르침을 보면, 소망은 신앙과 유사하지만, 때때로 더 넓은 영역을 갖습니다. 신앙을 보면, 이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1:1, 또한 이더서 12:6, 요셉 스미스 역 히브리서 11:1 참조) 그런데 소망은 때때로 신앙이 갖는 현재의 그러한 경계 너머까지 영역을 갖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언제나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저 진정한 소망의 "나팔 소리"만으로도 사람들을 집합시킬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몇몇 동료들은 즐거나 달아나도, "산 소망"은 여전히 우리 앞에 환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찬송가, 6장, 베드로 전서 1:3 참조) 소망은 풀죽어 있던 제자들이 기대에 부풀어서 서둘러 텅 빈 동산 무덤으로 달려가게 만들었습니다. (마가복음 16:1-8, 누가복음 24:8-12 참조) 소망은 한 선지자가 사람의 손바닥보다도 커보이지 않던 먼 곳의 구름에서 생명을 구해 주는 비를 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러한 궁극적인 소망은 "영혼의 닻"을 이루고 있으며, 성신의 은사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통해 보유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6:19, 또한 앨마서 25:16; 이더서 12:9 참조) 대조적으로, 불사 불멸에 대한 기대도 없이 인생을 보게 되면 소망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책임감마저도 쇠약해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19, 앨마서 30:18 참조)

당연히, 인간 세상에는 깊은 신앙심의 영향도 받지 않고, 혹은 그 뜻을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세상일만 해나가지만, 그래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빛"을 끌어



많은 대회 방문자들이 모임 후에 템플 스퀘어 동쪽 입구를 떠나고 있음. 뒷편에 솔트레이크 성전이 보임.

와서, 어느 정도까지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84:46, 모로나이서 7:16, 요한복음 1:9 참조) 바람직하게도, 세상에는 천성적으로 영적인 것을 느낄 수 있고, 이를 통해 자신을 지탱해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소망은 모순되고 예측하지 못한 사건에 너무 쉽게 상처를 입기 때문에, 세상에는 인생사에 대한 절망감이 더욱 팽배해지고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정치계에 대한 냉소주의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꾸 쌓여 가는 사회의 다른 걱정거리들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염려가 없는 사람들조차도 보편적인 절망감을 느낍니다. 많은 이들이 패트릭 모니헌 상원 의원이 명명한 “부도덕성의 합리화”에 편승함에 따라, 차가운 세속주의가 그 절망감의 일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부도덕성의 합리화, 미국의 학자, 1993년 겨울호, 17쪽) 참으로 많은 절망은 부도덕에서 유발됩니다. 그 부도덕은 하나님

정의내리신 것입니다.

불만족과 대립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로 인한 소망의 상실은 당연히 이기심의 팽배를 촉진시키는데, 많은 이들이 체념하여 자기 본위로 돌아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소망의 옷이 벗겨져 버리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면서 “내일 죽을 터이니”라고 이유를 둘러대고, “사람은 죽으면 그만인 것이다”라는 그릇된 결론을 내려 버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고린도전서 15:32, 엘마서 30:18)

장차 닥칠 어려움들을 탄식해 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유용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사건들이 결국은 보다 훌륭한 하나님의 방법과 그분의 왕국에 관심을 갖게 하여 “해같이 아름답고 달같이 맑게”(교리와 성약 105:31)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이나 국가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계속 선택하겠지만,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한 궁극적인 결과는 바꾸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서둘러 무르익어 가는 과정에서, 가라지가 항상 더욱 가라지처럼 보이

고 있는 사실을 두고 놀라지 마시다. “민족들이... 혼란한 중에 끈고”해지는 이 시기 동안에는, 실제로 그 혼란 때문에 유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악마의 왕국이 반드시 흔들릴 것임이요, 악마에게 속한 자들을 깨우쳐 회개하게 함이 필요함이라.”(니파이서 28:19)

사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추측밖에 할 수 없지만, 것처럼 “깨우치게” 한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편, 궁극적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다음의 간결한 구절이 주는 진리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만사는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 지느니라.”(교리와 성약 64:32)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이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 때에는, 현재의 인간의 수준에서 “소망”의 상태를 참작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경전에서 말한 것처럼, “대부분의 백성이 모두 바르지 않은 것을 내세우는 일은 드문 일”(모사이아서 29:26)입니다. 그러나 만일 사회의 태도에서 거대한 변화가 정말로 일어나면,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모사이아서 29:26, 27 참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일 때에만 정말 필요한 방향과 올바른 궤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희망의 밝은 빛”(니파이서 31:20)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소망은 선한 대업이 세상적인 면에서 별 가치가 없어 보이는 때에도 우리로 하여금 그 대업에 “힘써 노력하게” 합니다.(교리와 성약 58:27 참조) 마찬가지로, 진정한 소망은 원하는 바를 묵상만 하는 것보다 훨씬 차원이 높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척추를 약하게 하지 않으며, 끈게 만들어 줍니다. 소망은 경솔하지 않고 잔잔한 것이며, 미숙함 없이 열망하는 것이며, 자기 도취 없이 기쁜 마음으로 꾸준한 것입니다. 소망은 역경을 이겨내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 끝까지 “잘 견디어”(교리와 성약 121:8) 내겠다는 결의를 하게 하는 현실적인 기대입니다.

“산” 성품인 소망은 장례식에서도 우리 곁에 조용히 서 있습니다. 우리 눈에 눈물이 나오지만, 절망 때문은 아닙니다. 오히려, 애절한 이별이 더욱 실감 나서 나오는 눈물

입니다. 그러한 석별의 눈물은 변화되어서, 머지않아 영광스러운 기대에 대한 눈물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소망은 현란하고 공공연한 광신 행위가 아니라, 조용한 그리스도인의 예배를 촉진시킵니다. 핀리 피터 던은 이렇게 재미 있게 말했습니다. “광신자란 자신의 생각에 주님도 사정을 알면 똑같이 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이다.”(세 번째-최고, 사람들이 말하는 최고의 것 637 가지, 로버트 바이언 편(1986년), 549번)

진실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기를 제대로 인내하지 못하면서, 무엇이 최선 인지를 아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고작 손목시계를 차고 있으면서 우주의 시계와 달력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혼계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 그분과 그분의 아들처럼 되어서 본향에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 발전의 과정에는 우리에게 약점을 보여 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이 있다면 운유해질 것입니다. 그분의 도움이 있으면 그러한 약점까지 장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더서 12:27 참조)

그러나 자신의 약점을 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약점들은 인생의 상황에 의해 정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과정의 일환이며, 고통스럽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행복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더욱이,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님께서는 이처럼 현명한 권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혼계보다 칭찬을 원한다면, 둘 다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선생을 택하고 지키기 위하여”, 1993년 연례 대학 대회에서 전한 말씀, 브리감 영 대학교(1993년), 42쪽)

소망을 갖고 전진해 감으로써, 우리는 반복적으로, 즐겁게, 어제는 멀리만 보이던 지평선 위에서 있을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바로 자신의 경험에서 훨씬 더 큰 소망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어떻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로마서 5:3-4)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에 관하여 “지난날이 입증해 주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노래부릅니다.(찬송가, 6장)

당연히, 참된 소망을 가진 사람들도 자신의 개인 상황이 때때로 만화경처럼 흔들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변화 무쌍한 일시적 상황에서도 “신앙의 눈”(엘마서 5:15)을 가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참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주위의 부패 속에서도 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들의 반응은 안정되어 있는데, 여호수아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여호수아 24:15)

우리가 세상 전부를 고칠 수는 없겠지만, 우리 가정에서 잘못되어 있는 점들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톨키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세상 모든 것을 지배할 책임은 없지만, 여기에 있는 동안 그것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즉 우리가 사는 곳에서 악을 일소하여 후손들이 깨끗한 세상을 살 수 있게 할 책임은 있다.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한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왕의 환국(1965년), 190쪽)

형제 자매 여러분, 가족의 범위에서 볼 때,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깨끗한 세상”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만 가정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소망도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가진 발이 어떻든지, 우리는 바울의 말대로 “소망을 가지고 갈며”,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내일이 어제의 불모가 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의 사랑이 식어도 진정하고 궁극적인 소망은 우리가 더욱 사랑하게 해줍니다.(마태복음 24:12 참조) 세상의 죄악이 무익을 때에도, 우리는 더욱 거룩해질 수 있으며, 경솔하고 거칠어져 가는 세상에서 더욱 정중하고 인내심 있게 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공포에 휩싸여도 더욱 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모로나이서 20:22 참조)

소망은 쉽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베드로전서 3:15)할 수 있으면 더욱 그렇습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지식을 나누지 않고 선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시야와 느낌이 줄어들게 된다”고 하셨습니다.(테저렛 뉴스 위클리, 1855년 5월 9일, 68쪽)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들을 찾는다면, 성신이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들”을 보여 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신의 영감 어린 역할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니파이이서 32:5 참조) 소망을 잃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가까운 친척에게, 낙담해 있는 이웃에게, 또는 길 모퉁이의 누군가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에게 글을 가르치거나, 양로원의 노인 환자를 도움으로써, 또는 바쁘고 일에 지쳐 있는 부모님을 위해 기꺼이 심부름함으로써, 많은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에 관하여 간단한 대화를 나눔으로써 역시 소망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한편, 세상이 세속적이고 개방적인 사람들과 영적인 가치들을 고수하는 사람들로 더욱 양극화될 것이라는 점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시야가 줄어들지 않고, 소망으로 인해 축복을 받은 우리 제자들은 어떤 이유로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골로새서 1:23)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두에게 손길을 내밀시다.

존 웨슬리가 작곡한 찬송가, “와서 새로 위치라”(교리와 성약 121:8)에서처럼, 우리 모두 다 알듯이 우리의 삶과 세월은 빠른 속도로 흘러가며, 우리가 빨리 지나가게 되는 그 길은 매우 여러 갈래입니다. 그러나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로써” 모든 것을 이겨낸 사람들은 “잘하였도다 내 기쁨에 참여하여 내 보좌에 앉으라”(영문 찬송가, 217장 참조)라는 영광된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소망의 복음을 통해, 하루의 이 영광된 순간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구세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소규모 성전 - 많은 축복

데이비드 이 소렌슨 장로
철십인 회장단

성전이 가까이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맺은 성약을 기억하고 고결한 성품을 유지하며,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맥 스웰 장로님, 당신은 그야말로 교회의 보배요 온 세상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를 축복하며 축복과 가호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자매 여러분, 여러분 앞에 선다는 것은 두려운 경험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가족은 중남부 유타 지방의 목장에서 살았는데, 저는 말을 타고서 소 떼를 몰고 돌보는 일에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달려드는 황소를 살피는 것이 오히려 쉬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친구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우리가 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온 마음으로 믿고 있습니다.

아직 교회 회원이 불과 몇 명에 지나지 않던 교회 초창기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몇몇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은 마치 어머니의 품에 안긴 아기의 미래에 대해 알 수 없듯이 이 교회와 왕국의 미래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 저녁에 여러분이 보고 있는 신권 소유자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이 교회는 북미와 남미는 물론 세계 전체를 가득 채울 것입니다."(윌포드 우드럽 인용, 대회 보고에서, 1898년 4월호, 57쪽) 현재 우리는 그 예언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회원수가 증가함에 따라 성전의 필요성 또한 커졌었습니다. 13년 전에 헝클리 대관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성스럽고 중요한 의식은 장려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각처에 성전이 건립되어 성도들이 성전 의식을 위해서 먼 길을 여행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성도의 빛, 1986년 1월호, 54쪽)

교회 회원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보다 가깝게 성전을 건립하기 위해 교회가 기울이는 노력의 결과가 어떠한지 수치를 통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00년에 운영된 성전은 4곳이었으며 모두 유타 주에 있었습니다.

이후 1900년에서 1950년까지의 50년 동안, 4개의 성전이 헌납되어 전체로 8군데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처음 100년 동안, 거의 10년에 한 채 꼴로 성전이 건립되었습니다.

1951년에서 1980년까지의 30년 동안, 다른 11개의 성전이 건립되어 총 19개의 성

전이 되었습니다. 성전 건립이 한층 빨라졌지만, 여전히 일부 성도들에게 성전에 간다는 것은 수년 간의 저축과 장거리 여행을 의미했습니다.

1980년대에 이르러 교회가 성전 건립에 보다 많은 역량을 투입한 결과, 1997년도까지 헌납된 성전이 32개에 이르렀는데, 이는 1년에 두 개 꼴로 헌납한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어느 시대보다도 성전 건립에 박차를 가하는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1998년 현재, 성전 2개가 헌납되었고 15개가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26곳의 성전 부지가 선정되어 기공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롭게 신축될 이러한 성전 43개와 현재 운영 중인 성전을 모두 합하면, 94개의 성전이 됩니다.

이는 교회 회원인 우리들에게 지극히 놀라운 축복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구약에는 백성들이 이러한 성스러운 장소를 세운 뒤에 가졌던 기쁨의 일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니)...모든 백성이 여호와와의 전 시대(역주: 주님의 집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에스라 3:11, 또한 10, 12~13 참조)

새로운 성전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도 또한 주님을 찬양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순간들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헝클리 대관장님을 비롯한 그 외 많은 분들이 새로운 성전을 짓기 위해 더욱 헌신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잠시 멈춰 서서 왜 성전이 이처럼 중요인지 자문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회원들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모여 모임을 갖는 집회소와 우리가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특별한 건물과의 차이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헝클리 대관장은 그 차이점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독특하고 훌륭한 건물들과 그 안에서 행해지는 의식들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궁극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의식들은 우리들이 믿는 신학 교리에서도 가장 의미 심장한 것입니다."(성도의 빛, 1996년 1월호, 53쪽) 다시 말하자면 교회 교리의 핵심, 곧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움을 우리가 표

현할 수 있도록 도와 주기 때문에 성전은 우리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것입니다.

성전은 적어도 두 가지 방법으로 이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전은 상징적으로 또한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에게 대하여 상기시키며 가르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성역의 주된 부분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요한복음 7-8장; 마태복음 21-23장; 마가복음 11-12장; 누가복음 20장 참조), 자주 성전 상징을 들어 가르쳤으며, 자기 자신을 성전에서 사용되는 상징, 예를 들어 빛과 물에 빗대어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날의 성전 의식에서도 많은 것들이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성전 외부에 있는 첨탑은 하늘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며, 우리가 성전 내부에서 입는 흰옷은 요한 계시록의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요한계시록 7:14)에 나오는 그 옷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선하심을 끊임없이 일깨워 주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성전은 성도들의 사회를 강화시킵니다. 조지 큐 케는 부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의 초석이 놓일 때마다, 성전이 건립될 때마다. ...지상에서의 사탄의 권세를 약화시키고 하나님의 권세와 경건을 증가시킵니다."(로간 성전 초석 기공식, 1877년 9월 19일; 놀란 포터 울슨에서 인용함, 로간 성전: 초기 100주년 [1978], 34쪽)

성전은 언제나 주님의 면전에 있음을 상징하여 왔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출애굽기 25:8, 22) 정기적으로 주님의 집에서 꾸준히 예배를 본다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의 집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세계 도처에 수많은 성전을 지음으로써 보다 많은 교회 회원들이 그리스도와 우리를 위한 그분의 희생을 기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전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맺은 성약을 기억하고 고결한 성품을 유지하며,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성전의 물리적 존재나 외형적인 상징성 외에도, 성전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도록 고취시키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이는 우리가 성전에서 행하는 의식을 통해서입니다. 모든 성전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명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지며, 이러한 의식들은 멜기세덱 신권의 권능으로 이루어집니다. 교리와 성약 84장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의식과 신권의 권위 없이는 경건의 능력은 육신을 가진 인간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느니라"(교리와 성약 84:21) 모든 의식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면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영원한 결혼 의식과 같이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의식들이 있는 반면에, 오랫동안 영적인 준비를 세심하게 갖춘 후에야 그러한 의식이 미치는 영향을 비로소 알게 되는 의식들도 있습니다. 고린도인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서한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님의 영을 지녀야 할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린도전서 2:12, 11, 14 참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우리를 위한 계획을 주님의 영을 통해 알고 이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보다 큰 평화와 사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전 의식은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

도 필요한 가족 강화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을 위해 대리 의식을 행함에 따라 부모와 자녀 간을 "굳게 연결하는 줄"이 형성됨으로써 권세가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살아 계실 동안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던 조상들을 위해 성전에서 대리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고린도전서 15:29 참조)

일본에서, 저는 21세 된 청년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침례를 받은 그는 자신의 집안에서 유일한 교회 회원이었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위하여 가족 역사 사업을 마친 그는 할아버지께서 자신을 위해 더 이상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그를 대신해서 하는 것을 의미하는 대리 의식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침례탕에서 나오면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제 가족 중에 유일한 교회 회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느끼며 증거도 받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의식을 받음으로써 가족들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었고, 그의 생활에서 가족과의 단합을 새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맨타이 성전 헌납식에서 로렌조 스노우 대관장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성전이 교회 회원들에게 천국의 문이 되어, 영원한 생활과 영원한 통치로 이끌어 주는 좁고 곧은 길을 열어 주기를 간구합니다."(맨타이 성전 헌납식, 1988년 5월 17일)

형제 - 자매 여러분, 하늘의 문이 우리에게 열려 있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분께 나아오도록 부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말씀드립니다. 아멘

주님에 대해 증거하십시오

수잔 엘 워너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2보좌

불안정한 가치와 혼란케 하는 목소리들이 난무하는 사회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답을 줄 수 있는 방법은 간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알며 그분의 사랑을 느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과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장려한 창조물들로 가득한 세상을 계획하셨습니다. 구세주를 증거하는 모든 것들을 헤아려 본 적이 있습니까? 석양과 조가비, 라일락과 호수, 곤충과 동물, 신비로운 아침과 별이 빛나는 밤 하늘, 이러한 모든 것들이 구세주를 증거합니다.

주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은 각기 닮은 것이 있고, 나를 증거하기 위해 창조되고 지음을 받았나니, 속세의 것이나 영의 것을 막론하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 위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나를 증거하느니라." (모세서 6:63)

이 세상 어느 곳에 살든지 찬란히 떠오르는 태양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태양은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밝혀 주는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합니다. 힘차게 흐르

는 강물과 굽이굽이 돌아 흐르는 시냇물은 구세주께서 영적인 것들에 대한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키는 생명수의 원천이심을 증거해 줍니다. 들에 핀 백합화나 가장 자그마한 참새들조차 그분의 관대하고 직접적인 보살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모든 창조물 가운데, 그분의 자녀인 우리만이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의 자녀인 우리만이 자신의 영적 확신을 개발시킬 수 있는 수용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의 자녀인 우리만이 목소리를 사용해 그분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자녀인 우리는 그분과 그분의 복음을 증거할 특권과 신성한 의무를 기뻐합니다.

얼마 전에 제 손녀인 수지가 경전 한 권을 받았습시다. 그 애는 다니고 있는 학교의 친구들과 선생님이 교회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새로 받은 경전에 기록된 신앙개조를 그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뉴스가 될 만한 소식을 나누는 시간으로 예정된 학교 수업 시간에 발표하는 것이 적절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 시간이 왔습니다. 여덟 살 난 수지는 반원들 앞에 서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는다." 계속 읽어 가던 중에, 신앙개조 제7조에 이르렀을 때, 한 학급 친구가 큰소리로 불평했습니다. "이건 최근의 뉴스가 아니잖아!" 선생님은 그 즉시 대답했습니다. "글쎄, 내게는 뉴스인데 그러니!"

우리는 누구나 복음의 좋은 소식을 나누

며 우리의 확신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영의 속삭임에 민감할 때, 우리의 믿음을 겸손하게 표현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수줍음이 많은 여덟 살 난 어린애조차 자신의 신앙개조를 나누고자 하는 소망을 느꼈습니다.

복음의 좋은 소식을 증거할 때, 우리가 전하는 간증을 통해 성신은 그 메시지가 참됨을 증거할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함께하며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에 확증을 주는 주님의 영으로부터 힘이 나옵니다. 니파이의 물몬경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사람이 성신의 능력으로 이야기할 때에는, 성령의 권세가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을 전함이라." (니파이서 33:1)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우리가 믿고 느끼는 바를 겸손하게 전한다면, 영은 또한 우리 영혼에게 우리가 말하는 바가 참되다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은 간단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증은 간증을 전하는 데서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등불" 성도의 빛, 1988년 12월호, 36쪽)

불안정한 가치와 혼란케 하는 목소리들이 난무하는 사회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답을 줄 수 있는 방법은 간증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말과 행동으로 증거함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하며, 정기적으로 가정의 밤을 가지면서 그렇게 합니다.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부모와 자녀들은 교회 모임이나 활동에서 배운 것들, 그리고 복음 원리를 적용시킨 매일의 경험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신성한 가족의 테두리 안에서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그리고 이 아름다운 지상에서 가족과 함께 살면서 받는 축복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영적인 감수성을 갖고 있으며,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물을 관찰합니다. 그들은 흙탕물에서 미끄러지듯이 기어가는 벌레를 보면 자연스럽게 흥미를 느끼고, 소라 껍질을 귀

에 대면 들리는 바다 소리에 황홀해 하며,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의 신비로운 모양에 매혹됩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며 그 아이가 이 아름다운 세상을 발견하는 것을 바라보는 일은 우리 누구에게나 넘치는 기쁨을 허락하는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위대하고 신성한 특권은 그 아이가 이 세상의 창조주를 알고 그분이 이 세상에 있는 그분의 모든 자녀에게 주시는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 우리의 생각을 나누고 그분에 대해 증거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자신의 영적인 통찰력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문을 열어 주게 됩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그러한 느낌들이 신성한 원천에서 나온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면, 구세주에 대한 그들의 이해와 사랑은 규칙에 규칙을,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자라날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경전에 나오는 말들을 듣고 또 스스로 읽게 되면서, 자신들의 영적인 느낌을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경전 상의 어휘들과 친숙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조차도 글을 제대로 읽기 훨씬 전에, 복음의 메시지를 느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우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비록 두 살밖에 안 됐지만 브레들리는 가족 경전 읽기 시간에 참여하기를 좋아합니다. 자기 차레가 오면, 경전을 들고 조심스럽게 책장을 넘기며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해요,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간증의 기초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할아버지는 최근에 산에서의 가족 모임에서 손자들을 데리고 산책하러 갔습니다. 그들이 산림 속의 개척지에 다다랐을 때 그 할아버지는 어린 아이들을 통나무 위에 앉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이 번민하던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여쭙어 보기를 원했던 요셉 스미스라는 열네 살 난 소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소년 요셉이 하나님께서 답해 주시



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집 근처의 숲에 들어가 기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자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앉아 있기가 힘들었던 네 살 난 자니는 참지 못하고 불쑥 말을 뱉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전에도 들었어요."

할아버지는 요셉의 진지한 기도에 대해 말했으며,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방문으로 어떻게 응답 받았는가를 얘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자 어린 자니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할아버지, 참 훌륭한 간증이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자니는 그 이야기를 다시 듣는 걸 좋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거룩한 이야기를 일생 동안 이미 여러 번 반복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 스미스에 대한 나의 간증을 손자·손녀에게 전할 때보다 더 강하게 주님의 영이 증거하는 것을 느껴 본 적이 없습니다." 할아버지와 어린이들은 다 같이 성신의 증거를 느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자니처럼 경전 이야기를 이미 들었겠지만, 그 이야기와 그 속에 담긴 원리가 참되다는 것을 증거하는 우리의 개인적인 간증을 그들에게 들려주었습니까?

간결하고 거룩한 간증의 말들이 미치는 영향을 그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간증의 말을 확증시켜 주는 영의 영향력을 누가 제대로 산출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어렸을 때 그들의 마음에 심어진 간

증의 씨앗은 그들을 사랑하는 자들의 간증을 통해 진리를 증거할 수 있을 만큼 평생토록 자라날 것입니다.

부모는 신성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도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삼촌과 고모와 같은 친척과 친구들과 지도자들과 교사들이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간증을 나눔으로써 증거를 더할 수 있습니다. 경전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두 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씀이 입증되리라."(교리와 성약 6:28)고 말합니다.

이미 장성한 자녀들을 둔 부모들로서는 낙담하며 자녀들이 보다 어렸을 때 좀더 간증을 나누었다면 하고 후회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난해에 돌아가신 제 부친은 그분의 일평생을 통하여 제게 살아 계신 간증이 되어 왔습니다. 더구나 제 부친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자녀 및 손자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여러 세대에 대해 전할 개인 역사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부친이 가족에게 유품으로 남긴 것 가운데 그분의 간증과 사랑이 담긴 기록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제 부친께서 손가락을 꼽으시면서 제게 가르쳐 주셨던 부친의 간증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1. 하나님은 하늘에 살아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입니다.
2.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며 구속주입니다.
3.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상에 회복되고 물몬경이 번역되도록 쓰임을 받은 하나님의 도구이다.
4.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오늘 날 지상에 있는 주님의 교회이다.
5. 이 교회는 계시를 받는 살아 계신 예언자에 의해 인도된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은 또한 저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간증이 참되다는 것을 겸손하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창조물을 보며 우리 모두가 그분을 증거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의의 권세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주님께서 올바르게 정의를 행하시길 대로 행하기로 선택하면 결국은 언제나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에서 모든 분이 유익을 얻기를 바라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일부 청소년은 미래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그들은 주위에서 보는 것들과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근거로 그러한 잘못된 자세를 정당화시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장래가 심각해져 가는 이혼율, 높아져 가는 범죄, 마약 복용, 테러 행위 및 인생을 망치게 하는 다른 잔혹 행위들 때문에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사는 동안 개개인이 내린 잘못된 선택의 끔찍한 결과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 손상을 입고 종종 다른 사람들까지 다치게 하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대개 실수, 판단력 부족, 또는 인간의 약점이라고 불립니다. 이것들은 모두가 자기 정당화를 수반합니다. 정직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것들은 그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주님이 중한 범법에 뒤따른다고 경고하신 대로, 끔찍한 결과들을 낳은 것에 다름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래에 의욕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역사상 가장 활기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긍정론의 근거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희망과 확신의 가장 큰 원천은 여러분이 주님의 충만한 가르침을 익히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들은 훌륭한 사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주님의 신권과 교회가 회복됨으로써, 의롭게 생활할 때 참된 행복과 중요한 성취를 보장해 주는 의식과 성약이 주어졌습니다.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이 인생 안에서 아름다움을 찾고자 할 때 그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에서도 저는 너무나 찬란한 태양이 뜨는 것을 보았으며 새로운 하루를 즐겁게 맞이해 주는 새들의 울음 소리를 들었습니다. 초라한 오두막 옆에 놓인 조그만 화병에서나, 주위의 세상을 찾으려는 듯 뛰어 노는 아이의 수줍으면서도 환한 웃음에서도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가장 걱정스러운 세상 사건들을 노골적으로 자세히 알려 주는 언론 매체에만 관심을 집중시킨다면 여러분은 우울해질 것입니다. 주의만 기울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세상에서 경건하게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기록한 잠재력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이 즐겁고 충만한 삶을 살도록 도와 주실 것입니다.

결정을 내림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수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려해 보십시오. 결정을 내리는 데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첫째 상황에 기초한 결정, 둘째, 영원한 진리에 기초한 결정이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각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에 기초한 결정의 유형이 갖는 기본적인 원칙은 그것이 옳으나 그러나보다는 결과가 원하는 것이냐에 따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정을 계속 인도할 표준을 근본적으로 세우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현재 가장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느냐에 따라 선택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이 길을 따르는 사람은 자신의 힘과 능력, 그리고 자신을 위해 행동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지원에 의지합니다. 사탄은 이러한 식으로 선택이 내려지도록 독려합니다. 이러한 선택은 사람들이 가장 호소력 있게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해를 미치고 마는 결정을 내리도록 유혹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사탄에게 선사해 줍니다.

머지않아, 상황에 기초하여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심각한 범법을 하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올바른 길에 머물게 할 진리의 쇠막대는 없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계명에서 벗어나게 하는 미묘한 유혹에 수없이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선택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거나, 사회적으로 더 잘 받아들여지고 친구들을 더 폭넓게 사귄 수 있게 해준다는 식의 주장으로 정당화됩니다. 기본 원칙이 없어도 현명한 사람은 가끔씩, 일시적으로나마 인생값은 성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취는 모래성과 같습니다. 일단 진짜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은 무너지게 되고, 종종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 유형인, 영원한 진리에 기초한 결정은 주님의 유형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여러분이 주님의 행복의 계획에 따라 결정을 하도록 인도해 줍니다. 그러한 결정은 원하는 결과나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올

바르나에 중점을 둡니다. 주님께서 올바르게 행하기로 선택하면 결국은 언제나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그 유형은 여러분이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지금 너무나 갈망하고 있는 무언가를 버리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의의 권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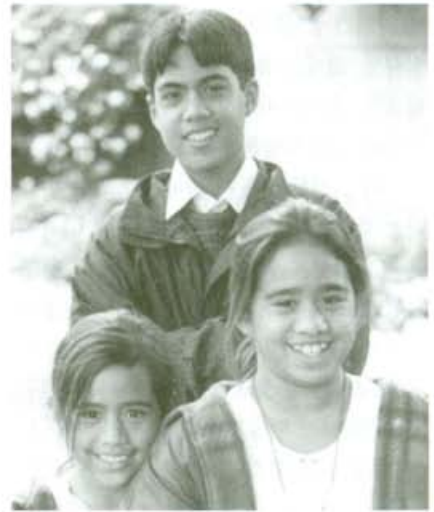
끊임없이 여러분의 생활을 의의 권세로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러면 신뢰가 생깁니다. 영속적이고 훌륭한 성취감을 얻습니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진정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과 행동에서 청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올바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말보다는 행동에서 더 잘 나타납니다. 의로운 생활은 절제를 요구합니다. 절제는 지금 당장 원하는 것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힘을 가능케 해주는 특성입니다. 절제는 친구이지,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엄격한 공장장 감독이 아닙니다. 절제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하신 아버지께 대한 신앙에 두고, 행복의 계획과 주님의 가르침들을 이해함으로써 그 절제를 배양시킬 때, 절제라는 성품을 얻기가 더욱 쉬워집니다.

의로운 생활을 하고, 당장 제일 멋있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에 바탕을 두고 항상 결정을 내리는 훌륭한 청년 청년 여러분 모두를 한 분 한 분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의를 행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계속 순종할 때 오히려 미래가 영광스러워집니다. 여러분이 합당하면, 여러분 자신뿐 아니라, 때가 되면 여러분의 동반자와 자녀들까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모범은 잘못된 선택 때문에 너무나 많은 날을 슬픔과 실망 속에서 낙담에 젖어 살아가는 이 세상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영을 고취시키는 모범입니다.

영원한 진리에 일치하는 선택을 함으로써, 여러분은 의로운 성품과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지침 없는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합당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이 도와 주십니다. 여러분은 영의 인도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영은 여러분이 올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도와 줄 뿐만 아니라, 인식하지 못할 수 있는 유혹에 관하여 필요하면 경고까지 해줍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리는 올바른 결정은 여러분이 성전에서 합당한 동반자와 인봉을 받고 자신의 영원한 가족을 이루고 부양하는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은 모두 주님이 정하신 때에 이 세상이나 다음 세상에서 축복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하여 그릇된 결정을 내리게 하려고 애씁니다. 가족을 이루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이 지상에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영원한 동반자를 찾을 때, 영에 거스르는 일을 결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보다 악한 사람을 유혹하여 두 사람이 사랑에 빠져서 성적인 관계를 맺기로 동의만 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쪽으로 합리화하게 만듭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합당한 행위의 경계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성스러운 개인의 각 신체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맺어진 결혼 성약 안에서 두 사람 모두에게 합당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되기를 바라는 강한 정서와 굳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정서는 남편과 아내를 함께 묶어 주고 그들이 가족에 대한 책임을 질 준비를 하게 하는 사랑과 신뢰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그러한 감정은 자녀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 감정들은 결혼 성약 밖에서의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 유발되거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감정을 유발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의 개인적이고 거룩한 신체를 접촉하지 마시고, 옷을 입었던 벗었던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체에서 그런 감정을 일으키지 마십시오.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행위는 여러분이 미래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성신으로부터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손상시킵니다. 그러한 행위는 극복하



기 힘든 중독과 심각한 범법을 유발합니다.

사탄은 그러한 강한 감정들이 여러분이 보거나 듣거나 접촉하는 것들에 의해 생긴다는 것을 압니다. 한번 일어나면, 그러한 감정들은 사람을 먼저 파멸적인 시험으로 이끌고, 다음에는 심각한 범법으로 이끄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이 목적을 위해 비디오테이프, 영화, 잡지, 컴퓨터 화상을 통한 음란물이나 저속한 음악을 사용합니다. 그것에는 눈과 귀와 생각과 마음을 단오십시오. 그냥 두면, 이 감정은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차차 흉악한 괴물로 거침없이 자라게 됩니다. 그 괴물은 건전한 소망, 합당한 동반자 관계, 거룩한 생각과 행동을 파괴하여, 결국 여러분을 파멸시키고 말 것입니다. 어떤 형태의 것이든 음란물의 뚜껑을 열지 마십시오. 그러면 사로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 파괴적인 그물에 걸려들어 있다면, 즉시 멈추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 중독성 있는 습성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잠시 심각한 유혹에 굴복하고 만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멈추십시오. 이해심 많은 부모님이나 감독님이나 스테이크 부장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멈추십시오. 부도덕한 행위 같은 심각한 범법의 경우, 그 범법이 완전하고 적절하게 끝날 때까지 조용하게 회개의 과정을 거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감독이나 스테이크 부장님 같은 권능의 열쇠를 가지신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심각한 범법을 고백했기 때문

에 회개가 끝났다고 믿는 실수를 범하지 마십시오. 고백은 물론 필수적인 단계이지만, 필요한 전부는 아닙니다. 누군가가 범법에 관하여 모든 사항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할 책임이 없다고 추측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감독님이나 스테이크 부장님이 그 내용을 자세히 이해하여 여러분이 회개의 과정을 거쳐 완전한 용서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잘 도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보라, 무릇 죄를 회개한 자는 용서 받을 것이요, 나 주가 저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지 아니하는지는 이로써 알 수 있나니, 보라, 회개하는 자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그 죄를 버리리라.”(교리와 성약 58:42~43)

이제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드리건대, 때때로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여 외로움을 느끼거나 오해를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의롭게 생활함으로써, 성품이 속하지 말아야 할 곳에 어울리지 않도록 형성된 사실에 감사하십시오. 지금은 잠시 개인적인 시련과 성장이 있는 시기입니다. 머지않아 참된 친구들과 보다 훌륭한 행복이 뒤따를 것입니다.

세상은 빛이 필요합니다. 그 빛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의로움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원한 진리에 닿을 내린 삶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확신하게 해줍니다. 아직 선교 사업을 하지 않은 젊은이들이 있다면, 준비하십시오.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위대하고 영원한 보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청녀 여러분, 자매 선교사에 관하여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이 1997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하신 영감에 찬 권고를 따르십시오.

구세주께서 살아 계심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이 올바른 일을 하겠다고 끊임없이 결심할 때 성신을 통하여 여러분을 상상 이상의 영광스러운 미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은 우리에게 대해 어떤 질문을 합니까?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해 묻는 질문들에, 할 수 있는 한 그저 간략하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요즘 언론 매체들로부터 인터뷰 제안을 자주 받습니다. 대부분이 아시겠지만, 저는 최근에 *래리 킹 라이브*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동의한 이유는, 일면 위험하기도 하겠지만,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세상에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래리 킹 씨는 저에게 단도 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대관장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대관장님은 거대한 종교의 지도자이시죠,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역할은 교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백성들 앞에 모범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목소리를 내는 것이며, 우리의 문명과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들을 옹호하는 것

이며, 이끄는 것입니다.”

이 대답은 즉석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질문을 결코 예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대답한 기초 위에서, 이 시간에는 언론 매체나 다른 교회의 사람들로부터 반드시 질문 받는 예닐곱 가지의 질문을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질문들을 무작위로 선택했으며, 첫번째 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질문도 순서에 따라 배열하지 않겠습니다. 누구와도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의 종교를 존중하며, 그 종교에 따라 살고자 하는 소망 또한 존중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해 묻는 질문들에, 할 수 있는 한 그저 간략하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질문 1: 신화, 즉 신에 대한 물문의 교리는 어떤 것인가?

첫번째 시현 이후부터 사람들은 이 질문을 해왔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으며, 그들이 전통적으로 믿어 온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는 한, 우리가 현대의 계시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해 간증할 때마다 계속 그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히 알고 사랑끼리 마주 서서 이야기하듯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 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복음의 첫 원리가 되었습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328쪽)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는다.”(신앙개조 제1조) 신앙개조의 이 첫번째 조항

은 우리의 교리를 요약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타나시우스 신경도, 니케아 신경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한 그 밖의 전통이나 인간의 이성에 의해 결정된 다른 어떤 신경(강령)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지혜를 얻고자 숲속에 들어가 기도하던 중에 경험한 다음 이야기를 우리 교리의 기초로 받아들입니다. "그 빛이 내 위에 머물렀을 때,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찬란함과 영광을 지닌 두 분이 내 위 공중에 서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중 한 분이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른 한 분을 가리켜 말씀하시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요셉 스미스서 2:17)

분명히 두 분이 그 앞에 실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그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사람과 같은 모습이었지만, 훨씬 더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그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분 다 각각의 개체가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뼈와 살을 갖고 계셨고, 이 사실은 후에 계시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인 우리의 모든 입장이 바로 이 영광스럽고 타당한 첫번째 시현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이 첫번째 시현은 이 때가 찬 경륜의 시대를 커튼을 열어 보여 준 사건이었습니다. 그 어떤 기초 교리도, 그 어떤 가르침도, 그 어떤 생활 기준도 이 처음의 선언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만약 요셉 스미스가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및 그의 사랑하는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그가 말한 모든 것들이 분명한 진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길로 인도하는 데에 있어 핵심이 되는 교리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섬깁니다.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받들겠다고 성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속한 이 교회는 그분의 이름을 딴 교회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요, 구세주요, 구속주이시며, 바로 그분을 통해 속죄가 이루어졌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질문 2: 당신의 교회는 동성애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먼저, 우리는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결혼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스러운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주님의 집에서 행사되는 영원한 신권의 권세를 통해 결혼이 영원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칭 게이나 레즈비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우리의 입장을 묻습니다. 이에 대한 저의 대답은 "우리는 그들을 모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통제하기 매우 어려운 성향이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그러한 성향에 따라 행동하지만 않는다면, 그들은 다른 회원들과 똑같은 축복과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약 순결의 법이나 교리의 도덕적 표준을 어긴다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교회의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돕고 싶습니다. 그들이 굳건해지도록 하고,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싶으며, 그들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부도덕한 행위에 빠지거나, 소위 동성 결혼이라고 하는 상황을 고수하고, 지지하고, 그대로 생활하려고 한다면, 그저 침묵만 지키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허용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결혼의 중대하고도 거룩한 기초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며, 결혼의 본질적인 목적, 즉 자녀를 낳아 기르는 목적을 소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질문 3: 낙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

질병 예방 센터의 보고에 의하면, 미국에서만 1995년 한 해 동안에 120만 건의 낙태가 자행되었다고 합니다.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성한 주님의 선물을 어떻게 이렇게 많은 남녀가 거부하고 있던 말입니까?

자녀란 참으로 훌륭한 존재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보십시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인간을 창조해 내는 것보다 더 위대한 기적은 없는 것입니다.

낙태란 추악한 행위이고, 생명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이고, 반드시 양심의 가책과 슬픔과 후회를 가져오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를 강력히 반대하지만, 분명한 예외는 두고 있습니다. 근친 상간이나 강간에 의한 임신인 경우, 출산으로 산모의 건강이나 생명에 위협이 초래될 것이라는 유능한 의료진의 판단이나 태아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출생 후에도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는 유능한 의료진의 확인이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은 극히 드물며, 그 가능성도 매우 희박합니다. 이러한 상황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은 신권 지도자들과 상담을 하고, 진지한 기도를 통해 올바른 결정에 대한 확신을 먼저 얻으시기 바랍니다.

질문 4: 일부다처제에 대한 교회의 입장은 무엇인가?

오늘날 미국에서는 이 문제가 신문이나 다른 대중 매체에 자주 거론됩니다. 이는 일부다처제를 행하고 있는 일부 사람들이 가정에서 가족을 확대하는 문제가 대두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이 교회는 일부다처제를 행하고 있지 않으며, 이와 아무런 관련도 없음을 밝힙니다. 그들은 이 교회의 회원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대부분이 이 교회를 다닌 적도 없습니다. 그들은 민사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들도 그러한 위반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대가를 치러야겠지만, 물론 교회는 이에 대한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 회원이 일부다처제를 행한다면 그들은 이 교회의 가장 큰 징계인 파문을 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민사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법도 어긴 것입니다. 신앙개조는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왕, 대통령, 통치자, 장관에게 순종함을 믿으며, 또한 법을 존중하고 지키며, 지지함을 믿는다."(신앙개조 제12조)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가 동시에 세상의 법은 어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원칙주의자"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두 단어를 함께 사용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나아가, 한 세기 이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일부다처제를 금하도록 예언자를 통해 명하셨습니다. 따라서 일부다처제는 주님의 법에도 어긋납니다.

질문 5: 이 교회가 놀라운 성장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매우 훌륭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연 증가와 개종 침례자들을 합하여, 매년 약 40만 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천만명의 회원을 기준으로 할 때, 4퍼센트씩 성장하는 것인데, 이는 교회로서는 매우 훌륭한 성장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치관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자신을 지탱시켜 줄 튼튼한 닻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위의 세상이 자꾸 혼돈스러워져 가는 이때 그들이 꼭 붙들 수 있는 무언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새 개종자들로서 환영 받고, 편안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의 따뜻한 우정을 느낍니다.

그들에게는 임무와 책임이 주어집니다. 그들은 이 주님의 사업이 발전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한 부분을 맡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진리를 찾는 그들을 도와 줄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곧 말일성도로서의 자신에게 많은 것들이 기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그것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능력이 있으며, 그들은 그 일들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에 변화를 가질 것을 요구하는 종교를 원합니다. 그들은 훌륭한 성도로서 자신에게 온 이 훌륭한 변화에 대해 간증하고, 항상 열성적이며 충실하게 생활합니다.

질문 6: 배우자 및 자녀 학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학대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어떠한 육체적, 성적, 언어적, 정서적 학대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족 선언문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내내는 배우

자와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엄숙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과 의로움으로 양육하고, 그들에게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충족시켜 주(어야) ... 할 거룩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 남편과 아내 곧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 의무의 이행에 대해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가족-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성도의 빛, 1996년 6월호, 10~11쪽)

우리는 이러한 악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동등한 위치에 있어야 함을 깨닫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할 때,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양육하고, 돕고, 인내를 갖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배우자나 자녀를 학대하는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할 자격이 없습니다. 배우자나 자녀를 학대하는 사람은 누구도 참된 이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학대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며, 누구든지 마땅히 교회의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질문 7: 교회는 어떻게 운영 자금을 조달하는가?

때때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냐고 묻습니다. 그들은 이 교회의 큰 부와 많은 자산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글을 씁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자산이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주님의 집을 지었으며, 매년 새로운 큰 건물들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학연구원 중등부와 대학부 같은, 훌륭한 고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필적할 수 없는 가족 역사 시설이 있으며, 엄청난 선교 조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선교사 자신들이 선교 사업 비용을 충당하지만, 선교사 숙소 및 기타 시설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필요로 하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프로그램들은 돈을 만들어 내기 보다는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이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비가 듭니다. 이 범세계적인 조직의 운영을 위한 경

비는 충실한 성도들의 성스러운 십일조로 마련됩니다. 십일조의 법은 참으로 훌륭하고 영광스러운 원리입니다. 쉽게 이해하고 따를 수 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재정의 율법입니다.

저는 성도들이 정직한 십일조를 낼 수 있도록 신앙을 갖게 해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들은 십일조 때문에 더 가난해졌을까요? 우리는 주님께서 그분의 방법으로 더욱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간증드립니다. 십일조는 세금이 아닙니다. 신원이 보장된 자발적인 헌금입니다. 이는 훌륭한 약속을 담고 있는 원리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10)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약속입니다. 그분은 이 약속을 지키실 수 있으며, 이를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간증드립니다.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로 한 우리 모두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업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책임자이시며, 그분들의 계획과 방법대로 이 교회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는 모든 축복도 이곳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그토록 행복한 사람들로 보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이며, 모든 것을 주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과 감사와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생활하는 아들과 딸들을 보살펴 주실 것이라는 마음속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확신을 갖고 생활한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죄란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범법이란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거짓된 말이나 행동도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계명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업이 참됨을 알기에, 각자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새로이 주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그분을 바라보아 살기 위해 노력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고귀한 생득권을 지닌 청소년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여러분이 지상 생활을 하면서 찾게 될 영원한 기쁨과 행복은 오직 구세주를 따를 때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는 배어레이크에서 가족 휴가를 보냅니다. 어린 손자·손녀들과 멋진 시간을 함께 보내며 가까워 질 수 있습니다. 지난 여러 해 동안 그들에게서 자신들이 경험한 기회와 도전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세상에서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 점차 과중한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습니다. 영화, 텔레비전, 인터넷, 유명 디자이너 의상, 극단적인 패션, 안식일을 범하는 활동 등은 그들에게 한층 가중된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래 집단은 균형을 따를 것인지, 그리스도에게로 거듭나고 헌신적인 부모와 교회에서 가르치는 원리 안에 굳건히 설 것인지를 놓고 힘겨운 결정을 내리도록 강요합니다.

저는 올해 손자·손녀들에게 보다 과감

하게 권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유혹을 견뎌 내며 오늘날의 복잡한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확고한 기초를 알려 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호숫가에서의 휴가를 4일 더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 모두에게 바인더를 하나씩 나눠 주고 매일같이 토론할 주제를 위한 자료들을 끼워 넣게 했습니다.

첫날에는 토론이 별로 활기를 띠지 못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열띤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실험을 통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기에, 이 연차 대회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청소년 모두에게 할아버지가 되기로 자청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님과 진지하게 토론할 만한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제 1.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땅에 대한 감사. 1831년 1월 2일에 열린 초창기 교회의 한 대회에서, 주님은 요셉 스미스에게 계시를 통해 그분이 자녀들을 위해 창조하신 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 지에 관한 시현을 보여 주셨습니다. 교리와 성약 38편 17-20절에서 다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또 나는 땅을 부하게 만들었나니, 보라, 땅은 나의 발판이니라. 그러므로 또다시 나는 그 위에 서리라.

“속세의 부보다 더욱 큰 부를 너희에게 제시하고 또 주려 하노라. 이는 곧 약속의 땅이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 땅에는

주께서 오실 때에 아무 저주도 없으리라.

“만일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하여 구하면 나는 그 땅을 너희의 상속의 땅으로 주리라.

“이는 너와 내가 맺은 언약이 되리니, 너희는 땅이 존재하는 한 그 땅을 상속의 땅 곧 영원히 너희 자손에게 물려줄 상속의 땅으로 받게 되리라. 또 너희는 영원히 그 땅을 소유하여 결코 잃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우리가 현세에서 시험 기간을 거치는 동안 기쁨을 갖게 하시고자 여러 약속의 땅에 거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지구상의 국가들이 계속해서 주님의 길을 따라 존속한다면 지상에 거하는 자녀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에는 물론 책임이 따릅니다. 주님은 우리가 왕, 대통령, 통치자, 판사들의 지배를 받으며, 법률을 지키고, 존중하며, 지지할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신앙개조 12조 참조) 법률을 지키고 존중하며 지지하기 위해서는 법을 알고 그에 따라 생활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와 학교와 지역 사회에서 훌륭한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타인을 위한 봉사를 통해 사회에 공헌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미래를 맞이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준비를 갖추고 있다면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어진 여건 안에서 최상의 교육을 받고자 노력한다면, 우리는 자급자족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위치에 설 수 있으며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사회에 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몇 주 전에 신문에서 교육 수준의 향상에 따른 수입의 변화에 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 사이의 평균 수입차는 38%에 달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자와 전문학교의 졸업자 사이에는 20%, 고등학교 졸업자와 대학교 졸업자 사이에는 56%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육은 유용한 것입니다.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해 나가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후에야 전공할 분야를 정하겠다고 머무지 마십시오.

주제 2. 자기 존중. 시편 8편에서 다윗은 우리가 누구며, 우리에게 부여된 영원한 기회는 무엇인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이루셨나이다 ...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배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8:1, 3-6, 9)

자신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쓴 어린 천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위대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대하게 보신다면,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많은 재능과 능력의 축복을 받아 왔습니다. 어떤 이는 노래하는 재능을, 혹은 그림 그리는 재능을, 혹은 말하는 재능을, 혹은 춤추는 재능을, 혹은 손으로 아름다운 것을 만드는 재능을, 혹은 마음을 다한 봉사를 하는 재능을 축복받았습니다. 많이 가진 자가 있는 반면 적게 가진 자도 있습니다. 크기와 수량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받은 달란트와 능력들을 개발하는데 기울이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받은 것에 최선을 다하는 일에서 우리는 다름 아닌 바로 자신과 경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개발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은사는 평상심이라는 유쾌한 기질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성품보다도 더욱 풍성한 기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육신을 돌봄에 따르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육신을 청결하게 하고 몸에 적절한 영양을 공급하며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면, 우리는 “지혜와 지식의 큰 보화와 감추인 보화까지 찾으리니 달려도 피곤치 아니하며 걸어도 지치지 아니[할]”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89편 참조)

우리는 무엇보다도 희망을 지니고 살아야 합니다. 물몬경의 이더서에서 모로나이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일깨워 주셨습니다. “또한 당신께서 하나님의 전당에 사람들을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시어 이로 인하여 사람이 보다 높은 소망을 지니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내가 기억하나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소망을 가짐이 마땅하며, 소망을 갖지 아니할진대 당신께서 예비하신 상속의 처소를 얻지 못하겠나이다.”(이더서 12:32)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위대한 은사들을 성취하고 달성하며 계발해 간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속의 처소를 얻[게]” 되리라는 소망을 지니고 살아가십시오.

주제 3. 가족 사랑.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1823년 9월 21일 저녁에 천사 모로나이로부터 놀라운 방문을 받고 그로부터 들은 것으로 기억했던 말씀 중에는 가족에게 주어진 특별한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보라.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예언자 엘리야의 손을 빌어 너희에게 신권을 나타내리니.

“저는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자녀의 마음에 심을 것이요, 자녀의 마음을 그 조상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주께서 오실 때에 온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리라.” (교리와 성약 2:1-3)

요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이 위대한 비전은 영원한 가족 단위에 관한 교리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구세주의 복음에서 핵심은 영원한 가족입니다. 만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위한 영원한 가족 단위가 세워져 있지 않다면 주님께서 다시 지상으로 돌아오셔서 그분의 왕국을 다스리고 통치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에 새로 태어난 손녀가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잡아 가는 과정을 흥미롭게 살펴보았습니다. 어린 아기와 그 형제간에 강한 유대감이 곧바로 형성되었습니

다. 아기의 오빠와 언니들이 그 어린 아기를 안는 모습에는 참으로 부드럽고 섬세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원한 가족에 속한다는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배움을 얻게 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최선을 필요로 하는 가족이라는 영원한 단위 조직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영원한 가족에 온정과 친절과 이해와 배려와 강한 사랑이 확고하게 뿌리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마련해 준 그 바인더에 첨가한 마지막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1831년에 받은 계시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저들에게 계명을 주며 이같이 이르노니, 곧 너는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섬기라.” (교리와 성약 59:5)

주님은 마음을(역자주: 심장을 나타내는 heart는 주로 마음으로 번역되어 있음) 자녀들의 가장 깊은 내면의 본성을 표현하는 말로 사용하셨습니다. 경전에는 마음을 언급하는 수많은 구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음이 청결한 자, 풍성한 마음, 즐거운 마음 등이 그러한 것들입니다. 사무엘상에서 다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의 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사무엘상 16:7)

심중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감사와 헌신을 느낍니까? 그분의 은혜로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우리는 그분과 한 마음입니까?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은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행동을 보고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회구하는 소망을 우리의 심령에 심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현세에서의 시험을 허락하셨을 때 그것을 이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는 빈둥빈둥 시간을 허비하지 말며 우리의 재능을 묻어 두지 말고 사용하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우리들 자신의 삶을 보다 낮게 향상시킬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

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과의 관계를 정립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간증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표준에 자신의 삶을 일치시킬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다음 결정을 해야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혹 ...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여호수아 24:15)

저는 인젠가 고용주가 기술에 대한 앞선 이해력과 감각을 지닌 오늘날의 어리고 총명한 16세 청소년들을 고용하지 않는다면, 10년이 지난 후면 낙후한 기업이 되고 말 것이라고 기술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더욱 많아진 기회와 함께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도전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율법을 지킨다면 복음 가운데 강하게 서며 세상의 수많은 압력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손자 손녀들에게 준 바인더에 마지막으로 첨부한 것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참됨을 증거하는 자신의 개인적인 간증이었습니다. 위대한 청소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자녀들 가운데에서 그분의 사업을 인도하고 계심을 알고 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아들을 지상으로 보내사 모든 인류를 위해 속죄의 희생을 치르게 하셨으며,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사인 영생을 누리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이 요셉 스미스의 성역을 통해 지상에 복음이 다시 회복되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상 생활을 하면서 찾게 될 영원한 기쁨과 행복은, 구세주를 따르며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므로써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간증입니다. 아멘.

개인적인 순결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하나님이 주신 다른 사람의 육신을, 주님의 허락도 없이 범하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의 영혼 자체를 학대하는 것이며, 생명의 “열쇠”, 즉 생명의 주요 목적과 절차를 학대하는 것입니다.



우 리들 주변에 부도덕의 유혹이 늘어나면서 저는 개인적인 순결의 원리에 관해서나 결혼 전의 온전한 순결의 의무, 또는 결혼 후의 충실함에 대해서 혼동하는 젊은이들을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도덕적인 순결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높은 표준을 가르치도록 부모님들이 준비하시는 것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주제의 경건성 때문에 저는 제가 좀더 솔직하게 성신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이 주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저는 실망스러운 통계 자료나 놀라운 염문들을 보여 주는 사회의 병폐에 대한 기사를 인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형제와 자매들이 데이트할 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같은 것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아주 개인적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질문해 볼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답변

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도덕적으로 순결해야 합니까? 왜 이 문제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 교회는 이것에 관해 그렇게 엄격할까요? 세상에 개방되어 있는 매력적인 것들이 어떻게 경건하고도 중요해질 수 있을까요?

저는 교육적 가치가 있는 긴 문명의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먼저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윌과 에리얼 듀랜트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역사에서 배운 교훈적인 지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호르몬이 끓고 있는 젊은이들은 왜 그들에게 완전한 성적 부담에 대한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는지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도덕이나 관습, 또는 법률을 인식하지 않으면, 그들은 성이 많은 제한 속에서 보편되어야 하는 불의 강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도 전에 인생을 망칠지 모를 일이며, 개인이나 집단 모두 혼돈 속에서 성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윌과 에리얼 듀랜트, *역사의 교훈*(뉴욕) 사이먼과 슈스터, 1968년), 35~36쪽)

잠언의 저자는 비슷한 경전의 성구를 주었습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데지 아니하겠느냐?... 간음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잠언 6:27~28, 32~33)

왜 성적 관계의 문제가 항상 불에 비유되고, 욕망은 거센 불꽃에 비유되어질 만큼 심



각할까요? 그 곳에는 어떤 사람의 영혼을 떠나게 하는 고통스러운 열기가 있습니다. 그 욕망의 불꽃을 자제하지 않으면 그 문제로 인해 온 세상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엘마는 그의 아들 코리엔톤에게 성적인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한 일이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거나 성신을 거스르는 일 다음으로 가장 가증한 일임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엘마서 39:5)라고 경고했습니다.

말일성도의 교리에서는, 성적인 죄를 하나님 보시기에 살인 다음가는 죄악이라고 정의합니다. 육체적인 욕망을 그렇게 정의함으로써, 주님은 자신의 계획에서 모든 인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일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분은 분명하게 그 인생의 계획 자체에 관해 평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도덕성에 관한 그분의 가장 큰 걱정은 사람이 어떻게 세상으로 와서 어떻게 가느냐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런 문제들에 관해 매우 엄격한 제한을 두셨습니다.

다행히도,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명히 책임을 지는 것 같습니다. 살인과 관련된 범죄는 아주 참혹하게 보입니다. 사실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주는 문제에 있어서는, 때때로 사람들이 거의 범죄에 가까우리만큼 무책임한 면을 보입니다. 이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왜 그토록 중요한 문제가 되는지, 그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바로 인간에게 계시되고, 회복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영체와 육체로 되어 있”(교리와 성약 88:15)으며, 영과 육이 분리될 때에 사람은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없”(교리와 성약 93:34)다는 사실은 이 경륜의 시대에 회복된 “간결하고 귀중한”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을 얻는 것이 왜 그토록 가장 중요한 우선 순위에 속하는지, 어떤 형태든 그 죄가 왜 그토록 심각한 문제가 되는지(즉 그 죄는 궁극적으로 육적인 사망과 영적인 사망을 모두 초래하는 죄이기 때문에), 또 육신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위대한 속죄에서 왜 중심이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이유가 됩니다.

육신은 본질적으로 영의 일부입니다. 이 특별하고 매우 중요한 말일성도의 교리는 성적인 죄가 왜 그토록 심각한지를 부각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사람의 육신을, 주님의 허락도 없이 범하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의 영혼 자체를 학대하는 것이며, 보이드 케이 패커 사도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명의 “열쇠”(대회 보고, 1972년 4월, 139쪽), 즉 생명의 주요 목적과 절차를 학대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학대하는 것을 뜻하는, 다른 사람의 육신을 학대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고 영생의 은사를 누릴 수 있게 해준 그리스도의 속죄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의의 아들을 조롱하면, 정오의 태양보다 훨씬 더 뜨겁고 거룩한 세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불에 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게 누구를 다치게 한단 말이에요? 왜 자유 좀 누리면 안되죠? 지금 잘못을 저질러도 나중에 회개하면 되잖아요.”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어리석고 부끄러운 모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죄의 값도 치르

지 않고 예수님을 다시 못 박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와 비슷한 어떤 일도 하지 말라” 바울은 교리와 성약에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헤아릴 수 없는 영과 육의 고통은 이 세상의 구세주에 의해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에게 그에 대한 빛을 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분에게 모든 것을 빚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노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적인 죄를 짓게 되면 영과 육은 큰 위협에 빠지게 됩니다.

둘째로, 인간의 애정 행위는 부부를 위해 예비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완전한 결합의 궁극적인 상징, 곧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규정 지으신 완전한 상태이며 결합이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 시대 때부터,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마음과 소망과 삶과 사랑과 가족과 미래와 모든 것들을 완전히 융합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아담은 이브에 대해, 그녀가 그의 뼈 중에 빠이며, 살 중에 살이라고 했으며, 그들은 “한 몸”을 이루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결합으로서, 우리는 이것을 영원한 성약으로 인도되는 “인봉”이라고 말합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한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결합됨으로써 그러한 거룩한 뼈가 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완전한 결합, 즉 남자와 여자 간의 양보할 수 없는 헌신은 결혼 성약을 통해 가질 수 있는 친밀함과 영원성이 있어야만 가능해집니다. 물론 그들이 가진 모든 것, 즉 마음과 생각, 모든 날들과 모든 꿈들을 나누겠다는 거룩한 약속과 맹약이 함께 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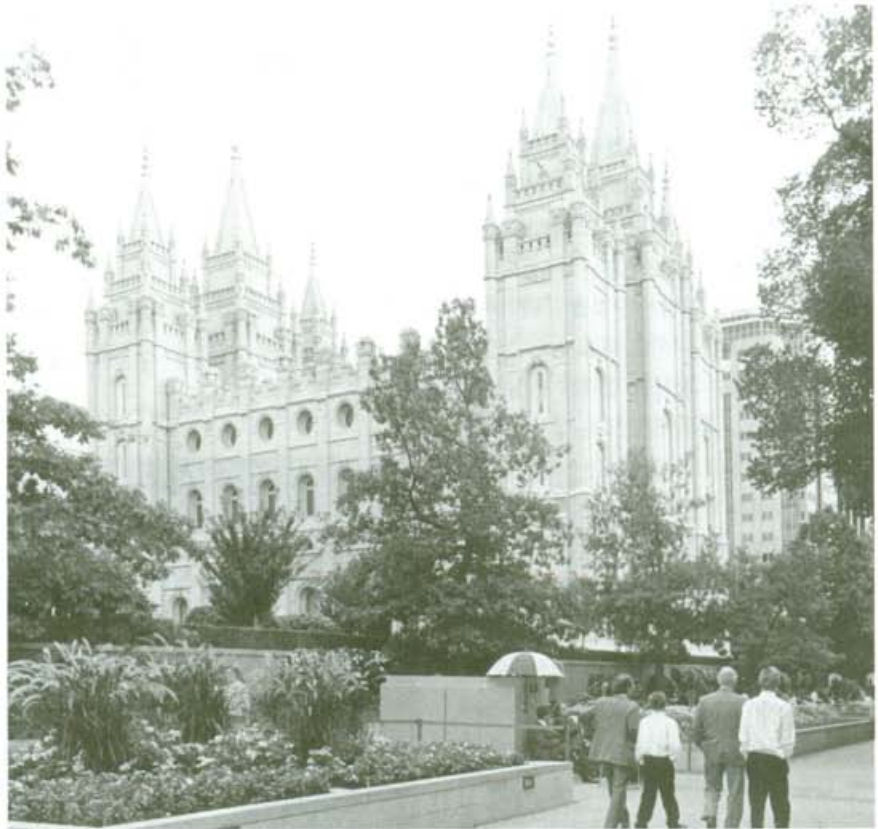
여러분은 마치 하나인 척 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약속을 한 척 하고, 거짓 결합으로 육적인 상징과 육적인 애정 행위를 나누지만, 완전한 의무를 의미하는 다른 모든 면을 회피하려고 하고, 그만두려고 하고, 끊으려고 하는, 도덕적인 모순을 구분할 수 있

습니까?

인간의 애정 행위 문제에 관한 한, 여러분은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때까지는 기다려야 하며, 합법적으로 결혼하기 전에는 모든 것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닌 것(“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이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을 부정하게 주고, 자신의 전부를 줄 수 없는 때에 일부를 주는 것은 러시아 룰렛 게임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늘의 승낙 없이 육체적인 만족을 추구한다면, 여러분은 미래의 진정한 사랑에 대한 정성어린 애정 능력과 애정 행위에 대한 열의 모두를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영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심각한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사랑과 진정한 결합의 순간이 오면, 그때서야 고이 간직했어야 할 것을 허비해 버린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알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만 여러분이 너무나 쉽게 조금씩 던져 버린 덕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결혼식날, 여러분이 영원한 동반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가장 깨끗하고 순수하며 순수함의 가치를 되돌릴 수 있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셋째, 육체적인 애정 행위는 남편과 아내 사이의 상징적인 결합, 즉 영혼의 결합일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의 관계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불사 불멸체이시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불완전한 상태에서 그분과 영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권세에서 비롯된 권위와 권위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에는 주님의 집 안에서 결혼식에 무릎 꿇는 것, 새로 태어난 아기를 안아주는 것, 교회의 새로운 회원을 침례하는 것, 주님의 만찬의 상징물들을 사용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지와 행위로 우리의 영과 하나님께로 가는 교통이 실현될 수 있는 한 교통이 실현



제로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그분의 신성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신성의 일부를 우리의 것으로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남자와 여자에게 주어지는 그 신성의 한 가지 면은 인간의 육신을 창조하는 주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경이로우며, 유전적으로나 영적으로 인간 역사상 그 전례가 없었고, 영원을 두고 결코 모방해 낼 수 없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권세인 것입니다. 눈과 귀, 손가락, 발가락,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장엄한 미래를 가진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바로 그 권세인 것입니다.

아마 선생이를 안아 본 부모만이 제가 말씀드리려는 그 경이로움을 이해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셨던 호칭이 바로 아버지이라는 사실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창조하는 것, 특별히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는 일을 그분은 가장 소중히 여기십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 신성을 어느 정도 받았지만, 가장 중대하고 거룩한 제한 또한 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통제는 바로 자기 통제입니

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신성한 권세를 존중함으로써 가능한 자기 통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왜 개인적인 순결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평의회가 “생명을 창조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셨”으며 “출산의 신성한 능력은 남편과 아내로서 합법적으로 결혼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선포했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속아서 파멸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한 권세를 통제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불태워질 것이며, 여러분의 생은 화염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범법을 한 바로 그 날에 죄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충분히 받을 것입니다. 참된 회개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없는 한, 도덕적으로 청결하지 못한 사람은, 언젠가, 또 어디에선가, 나사로로 하여금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누가복음 16:24)라고 기도했던 부자처럼 기

도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인간은 영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육신이 무덤에서 일어나 영과 결합하여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는 거룩한 계시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육신은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정직하게 일하다가 손이 더럽혀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리를 지키고 의를 위해 싸우다가 생길 수 있는 상처를 겁내지 마십시오. 다만 영적으로 흥하게 만드는 상처와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해서 생기는 상처, 그리고 가지 말았어야 할 곳에 가서 생기는 상처만큼은 조심하십시오. 그릇된 일을 위해서 싸우다가 상처를 입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그런 부상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을 통해 가능해진 회개로써 평화를 얻고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회개의 길이 쉽게 시작되거나, 고통 없이 지나갈 수 있는 유형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의 구세주라면 기꺼이 모든 사람을 돕기 위해 그런 길을 걸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흔들릴 때 여러분을 강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것 같은 때에 여러분에게 빛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이며, 소망이 여러분 곁을 떠나 버린 것처럼 보일 때에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완전한 용서를 바라고 그렇게 되기 위한 절차를 밟는 모든 사람에게, 청결케 하고 치유해 주는 권세를 가지신 그분의 연민과 사랑이 한없이 주어질 것입니다.

위대한 생의 계획과, 신성의 권세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용서와 속죄 및 도덕적인 청결과 관련하여 심오한 의미를 갖는 모든 것에 대해 간증 드립니다. 우리는 육신과 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간증 드립니다. 청소년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순결한 생활을 하는 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순결 자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너희도 증거하느니라”

로널드 티 할버슨 장로
칠십인 정원회

세상에는 진리의 증거를 소망하며 구세주께서 약속하신 평안과 기쁨을 신실하게 구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저는 한 젊은 자매와 그녀의 개인 엔다우먼트와 현세와 영원을 위한 결혼 및 인봉을 받기 위한 성전 추천서 접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접견을 마치고 추천서에 서명을 하자, 그 자매의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지금 심정을 들려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청소년 시기부터 그녀는 진리와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고자 추구해 왔었습니다. 그녀는 평화와 행복을 찾고자 갈망했지만, 어디를 바라보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생에는 참된 의미나 성취란 진정 있을 수 없다고 단정짓고 매우 혼란스러운 지경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런 마음의 상태에서 자신이 느끼는 근심과 절망을 털어놓고자 절친한 친구를 방문했다가, 다음과 같은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전 앉아 있던 소파 뒤의 책꽂이를 보게 되었어요. 독특한 책 한 권에 시선이 갔고, 강한 느낌이 마음을 끌

었습니다. 저는 그 책 안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책꽂이에서 그 책을 꺼내어 제목을 보았습니다. 물론경이었습니다. 그녀가 친구에게 어디서 난 책이냐고 묻자, 친구는 길거리에서 만난 두 명의 젊은 선교사들에게서 읽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 책을 받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어 그냥 책꽂이에 꽂아 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 읽기 시작했어요.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이전에 한 번도 느껴 보지 못했던 느낌에 휩싸였습니다. 그녀의 친구는 그 책을 가져가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책을 가져가 밤새도록 읽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녀는 두 젊은 선교사들을 찾아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들을 찾는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가르치는데 동의했고, 몇 주 후 그녀는 침례를 받고 교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그 날 이후로 가능하리라 꿈꿔 본 적도 없는 기쁨과 평화를 찾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회원이 거의 없는 테다가 교회 안에 혼할 기회란 더욱 희박한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어느 날 성전에서 결혼은 희망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거나 그녀는 외국에서 휴가를 젊은이를 만났는데, 그녀는 그의 인도로 이루어진 것이 그 젊은이는 신권을 있었습니다. 그

는 그녀에게 성전에서 결혼하자고 청혼했습니다. 이제 주님의 집에 가서 현세와 영원을 위한 인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함에 따라 형언할 수 없는 벅찬 기쁨과 감사가 그녀의 영혼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되물었습니다. 왜 세계? 왜 세계 이런 축복을...? 참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저는 그녀의 겸손하고 아름다운 영과 간증에 깊이 감동되었습니다. 그녀가 자리를 뜰 때, 우리는 함께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종종 그 경험을 떠올려 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구세주와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과 우리 모두가 이 고난의 세상에서 마음의 평화를 발견할 수 있도록 대가를 치르셨던 것에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험의 언덕에서 40일 간 금식했던 때부터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쳤던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삶은 참고 이겨낸 기록한 본보기였습니다. 제자들과 작별하시며 하신 그분의 말씀은 의미심장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33) (그리스도가 가르친 삶의 이상, 오버트 시 태너 (1995), 379쪽)

그분이 말씀하신 평안에 대해 어떤 저자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참된 기쁨은 마음 속의 평안과 행복이다.” (교리와 성약 백과사전, 호이트 더블류 브루스터 이세 (1970), 287쪽)

바울은 이 평안을 가르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빌립보서 4:7)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고 영혼을 치유시키며 괴로운 마음을 진정시켜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인생의 목적에 대한 참된 정의와 의미를 알게 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영적인 확신을 갖게 됩니다.

세계 어디에서든지 진리의 구도자들이



대회장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요셉 스미스 기념관의 엠파이어 룸에서 TV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대회 진행을 지켜 보고 있음.

간절히 찾고자 갈망하는 마음의 기쁨과 평화는 오직 복음의 원리를 알고 실천하는 데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5:10~11)

프랭클린 디 리차즈 장로는 진정한 기쁨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권유했습니다. “마음의 긴장으로부터 벗어나 평안과 위안을 받을 인생의 계획을 추구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 속에서 행복과 발전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회복된 복음을 상고하도록 권합니다.” (“공의, 자비, 겸손”, 임프루브먼트 이라, 1970년 6월호, 37쪽)

여러분 중에는 복음이 줄 수 있는 큰 축복을 받기에 너무 죄를 많이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스펜서 더블류 김볼 장로는 이렇게 썼습니다. “용서가 낳는 기적의 본질은 그것이 걱정, 불안, 죄절감, 고뇌 속에서 고통하는 영혼에 화평을 안겨준다는 점에 있다. 혼란과 투쟁 속의 세상에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값진 은사가 아닐 수 없다.” (용서가 낳는 기적, 324쪽)

구세주께서는 제자들에게 남겨 두실 평안과 그분이 아버지로부터 보내실 보혜사에 대해 가르치신 후에 다음과 같이 명하셨습니다. “너희도...증거(할지니라)” (요한복음 15:27) 그분은 또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요한복음 15:8)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에는 진리의 증거를 소망하며 구세주께서 약속하신 평안과 기쁨을 신실하게 구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교활한 계교로 눈이 어두워 [진 사람들과] ...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곳을 알지 못함으로, 진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 있는 자들이 많” (교리와 성약 123:12)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들으나, 그분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간증을 나눌 책임은 교회 회원인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간증해야 합니다. 그들이 주님께로 마음을 연다면 그들은 복음이 가져다주는 확신과 평안과 기쁨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들은 고난의 이 세상에서 마주치는 인생의 문제들에 대처할 힘을 발견할 것이며,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의 계명을 지키므로써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의 이 간증을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교회를 세움

얼 메릴 몬슨 장로
철십인 정원회

그분의 교회를 세우는 일은 독특한 임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백성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메시지의 순수함을 더럽히지 않고 전해야 합니다.



몬 문경은 부활하신 구세주께서 니파이인들에게 성역을 베푸신 사실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 중에는 말일에 관한 몇 가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 나의 백성들을 오래 흠어져 있던 곳에서 다시 모으며 저들 가운데 나의 시온을 일으켜 세우”(니파이삼서 21:1)리라.

선지자 다니엘은 “... 하나님의 왕국이 말일에 세워지리라는 것을 미리 알고 예언”(교리와 성약 138:44) 했습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 주님은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이 세대가 저희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아니하면 저들 가운데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교리와 성약 10:53)

구세주의 재림에 대비해 그분의 교회가 세워져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임을 확인시켜 주는 참조 성구들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그분의 왕국을 세우는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가진 사람들은 바로 우리입니다. 저는 지난 수세기동안 여러 예언자들

은 물론 주님께서도 몸소 말씀해 왔던 이 사업에 제가 한 몫 담당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분의 교회를 세우는 일은 독특한 임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백성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메시지의 순수함을 더럽히지 않고 전해야 합니다. 교회는 전세계의 어느 곳에서나 정직한 사람들이 고결한 품성을 지닌 지도자들에 의해 영감에 찬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지도자를 육성해야만 합니다. 교회가 지고 있는 책임은 지상에 이미 살았거나 현재 살고 있거나, 또한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자들에게 동등한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순종하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자격을 부여하는 올바른 율법과 의식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러한 교회를 세우는 일이 무척이나 힘든 과제처럼 보이게 하는 다른 요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주님으로부터 지명받은 임무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겠습니까? 그보다 훨씬 작은 차원에서, 저는 아름다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 상세한 계획이나 양질의 자재가 있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공정의 모든 과정에는 저마다 숙련공이 필요하며, 그들이 긴밀하게 협조하는 가운데 각자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저는 또한 영감에 찬 예언자의 지도자가 위대한 사업의 다른 모든 부분에서와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성전을 세우는 데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것임을 알고 있

습니다. 저는 영감과 주님의 영이 퓌클리 대관장님을 통해 역사 하심을 볼 수 있었던 특별한 기회들을 지극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 분은 진정 이 시대를 위한 예언자입니다.

성전을 건립하는 일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왕국을 지상에 세우고자 하는 일에 헌신적인 일꾼은 결코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실제로 살아 계셔서 이 사업을 인도하시며, 우리 모두가 주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확신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굳게 자리잡게 한다면, 이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꺼운 마음으로 복음 원리들을 배워 실천하며, 성실한 마음과 참된 의도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그것들에 대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원리들이 참되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참된 개종과 함께 이 위대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의가 싹트게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이야말로 그분의 교회를 세울 때이며, 우리 각자가 그 가르침의 진실함에 대한 굳건하고 흔들림 없는 간증을 기움으로써 그것을 실현해야 한다고 선포하신 것은 참으로 우리의 관심을 기울여야 할 대목입니다. 교회가 전세계에 성전을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며 훌륭한 인도주의적 사업들을 시행할 수 있었지만, 교회를 얼마나 확고 부동하게 세우느냐 하는 문제는 순전히 우리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복음이란 좋은 소식이 이웃들에게 전달되겠습니까? 새로운 개종자들과 따뜻하게 우정 증진이 이루어 지겠습니까? 성전이 조상들을 위해 구원의 사업을 하는 헌신적인 참여자들로 넘쳐 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순수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이 해의 왕국에서와 같은 삶을 사는 법을 배우게 되겠습니까?

김블 대관장님은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왕국은) 다만 교회의 모든 회원이 매일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임으로써”(성도의 빛, 1978년 10월호, 126쪽) 세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헌신하는 이 모든 사람이 각각 무한하고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가장 큰 낭비는 우리의 현재 모습과 잠재된 가능성 사이의 괴리이다."(작자 미상)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음의 중심 주제는 우리가 무엇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곳에 이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복음에 힘입어 자신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을 멀리할 수 있으며,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보다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순수한 삶을 살며 공헌하기를 원하지만, 때론 주저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부딪혔을 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잠언서 23:7)이라는 솔로몬의 말을 생각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자신의 삶을 건전하고 순수하게 살고자 꿈꾸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경전을 상고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부름을 영화롭게 하고자 노력합니다. 복음이 삶의 방식으로 자리잡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의 생활

에서 내면의 평화와 평정이 드러나며,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크게 축복합니다.

만일, 어떤 책이나 영화나 활동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아무런 상관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흡수 동화하고 기억하는 우리 정신 능력의 참된 진가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현명하게도 우리에게 먼저 그분의 나라를 구하면 바라는 것들이 또한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털링 더블류 실 장로님은 우리의 마음이 이 염색공의 손과 같아서 그 안에 품고 있는 것에 의해 물이 든다고 간파하셨습니다. 즉, 제가 손에 자주색 염료를 들고 있다면, 제 손은 자주빛으로 물들 것입니다.(대회보고, 1954년 10월호, 28쪽) 교회를 세우는 일을 돕고 있는 사람들도 약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일관되게 보다 나은 것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을 순수한 생각으로 가득 채웁니다. 지상에 주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활용해 생각하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교회 회원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기에는 너무 바쁘다거나 혹은 너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온 마음을 다해 이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가장 큰 유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값진 봉사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크게 축복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의 진실됨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신권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들을 행함으로써 주님의 교회를 세울 때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위대한 행복의 계획 안에 예비된 개인의 축복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구세주에 대해,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해 알게 되며, 그분의 위대한 사랑을 느낄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에 관한 확신 또한 생활 가운데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영원한 대업의 중요한 일부임을 알게 되며, 나아가서 훌륭한 예언자와 다른 지도자들의 지도력을 마음껏 누릴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평안과 교회를 지상에 잘 세움으로써 오는 유익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살아 계신 예언자: 순수한 교리의 근원

메릴 시 옥스 장로
칠십인 정원회

이 교회는 현대의 살아 계신 예언자에게 주어지는 계속적인 계시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돌아가시기 2년여 전에 신앙개조를 발표했습니다. 신앙개조 제9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계시하신 모든 것과 지금 계시하고 계시는 모든 것과 앞으로도 하늘 나라에 관하여 위대하고도 중대한 것을 많이 계시하실 것을 믿는다. (신앙개조 제9조) 저는 “앞으로도 하늘 나라에 관하여 위대하고도 중대한 것을 많이 계시하실 것을 믿는다.”라는 제9조의 마지막 문장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계속되는 계시의 원리는 하나님 왕국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교리와 성약 21편 4절과 5절에서, 주님은 교회 회원들에게 예언자의 인도를 따를 그들의 의무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구성하는 너희는 요셉이 받는 대로 너희에게 주게 될 말씀과 계명을 모두 마음에 새겨 두며 내 앞에서 온전히 거룩하게 생활하라. 너희는 인내와 신앙으로 저의 말을 내 입에서 직접 나오는 말로 받아들여라.” (교리와 성약 21:4-5)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물론경을 번역하였고 회복된 교회를 위한 기초를 놓는 여러 계시를 받았습니 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미리 예감했기 때문에 서둘러서 십이사도 정원회에 모든 신권의 열쇠를 수여했습니다. 윌포드 우드럽은 그의 말씀에서 “그리하여 [요셉]은 십이사도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외쳤 습니다. 여러분의 어깨 위에 하나님의 왕국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로 뚫뚫 뭉쳐 그 왕국을 지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제가 그 일을 해 왔어야만 했지만 이제부터 그 책임은 여러분 위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타임즈 앤드 시즌즈, 5:698)

하늘로부터 오는 계시와 인도는 요셉 스미스의 죽음과 더불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 교회의 대관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늘 나라에 관하여 위대하고 중대한 것이 많이” 계시되어 오고 있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은 그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820년 그 역사적인 날 이후로, 하나님으로부터 지상에 있는 예언자에게 샘물처럼 끝없이 주시는 여러 가지 귀중한 계시를 포함한 여러 경전이 뒤이어 나왔습니다.

“이러한 성스러운 기록을 인쇄하여 엮은 것이 ‘예언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표준 경전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시가 계속되며, 교회의 서류함에는 달마다 혹은 날마다 내려오는 계시로 가득 차 있음을 전 세계에 간증합니다. 우리는 또한 1830년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조직된 이래로 계속해

서 존재해 왔으며, 주님의 뜻과 마음을 계속해서 해석해 줄,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게 인정받은 예언자가 계속해서 존재하는 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존재할 것임을 증거합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성도의 빛, 1977년 10월호, “계시: 예언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82쪽)

우리는 초기 교회 지도자들의 설교를 포함해서, 우리에게 유용한 많은 역사적인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통해 우리는 회복의 초기 사건들과 그 당시 상황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배경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는 신권회와 상호 부조회에서 예언자인 브리감 영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들은 우리 시대의 예언자들의 가르침과 훌륭한 연속성과 일치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의 정책과 절차들이 계속적인 계시와 영감에 의해 새로 다듬어질 때, 어떤 변화로 인해 동요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오늘날 우리의 이해력과 실행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지 않는 초기의 교회 지도자들이나 회원들이 발표한 성명을 문자 그대로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일부 사람들의 태도는 어떤 것이든 초기에 주어지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문제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1) 교회의 절차들 중 일부는 이 경륜의 시대 초기에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승되는 예언자들에 의해 부연되고 명확하게 설명되어 왔습니다. (2) 잘못된 교리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현대의 예언자에게 계시가 계속되고 있다는 중요한 믿음에 놓여 있습니다.

해롤드 비리 대관장은 한 가지 경험을 들어 이것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여러 해 전 제가 젊은 선교사이던 때, 저는 선교부장님과 함께 나무와 카테지를 방문하여 요셉과 하이람이 순교한 감옥에서 선교사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선교부장님은 그러한 순교가 있도록 이끌었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이야기하고는 다음과 같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순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요셉과 함께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브리감

감사하는 마음

고든 테일러 와츠 장로
칠십인 정원회

심도 있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봉사하려는 태도는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그대로 투영하는 것입니다.



어린 소년 시절, 작은 가족 농장에서의 생활은 천국이었습니다. 지붕을 이을 일이 없어 그대로 방치해 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허술한 화장실은 길가에 나 있어서 가려면 주위를 잘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제 닳아빠진 셔츠에는 단추보다 단추 구멍이 훨씬 많이 나 있기가 일쑤였습니다. 토요일 밤이면 따뜻한 난로 앞에서 목욕을 했는데, 목욕물과 공기 사이의 커다란 온도 차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나마 그것도 우리에게겐 사치였습니다.

그러다가 변화가 생겨, 저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옷을 입고, 온갖 종류의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멋진 집에 살면서 새 차를 몰고 다녔습니다. 제 또래의 많은 아이들은 학교에 가기 전에 일찍 일어나 허드렛일을 하고 저녁때면 집에 돌아가 다시 그 일을 되풀이해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인기도 있고 자신만만했으나, 저는 내성적이고 수줍어하는 성

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저는 한없이 많아 보이는 그들의 복을 제가 받은 적은 축복과 비교하는 일에 몰두하면서 제가 그 축복 속에서 얼마나 행복해 했던가를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겸손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되자, 현실을 왜곡하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을 저버리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받고자 하는 기대감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가득 넘친 그릇을 빈 그릇으로 보이게 합니다. 감사는 여러 얼굴을 하고 있으며 갖가지 모습을 취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주님께 감사하지 않게 되면 곧바로 우리는 이기적인 행위를 하게 됩니다.

구세주께서는 언제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었으나, 그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는 사람을 별로 만나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열 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아래 엎드리어 사례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 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누가복음 17:12~17)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하고 물으신 구세주의 질문은 진지한 성찰을 필요로 하는

영이 죽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존 테일러가 죽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존 테일러 대관장에게 주어졌던 계시가 오늘날의 우리의 대관장이고 예언자인 분으로부터 오는 계시보다 더 많은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교회 회원들은 윌포드 우드럽과 함께 영적으로 죽었고, 또 어떤 회원들은 로렌조 스노우와, 혹은 조셉 에프 스미스와, 혹은 허버 제이 그랜트와, 혹은 조지 엘버트 스미스와 함께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에는 이미 돌아가신 분의 말씀을 믿고 싶어하고 그분의 말씀을 오늘날 살아 있는 권능의 말씀보다 더욱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해롤드 비리, *너희는 거룩한 곳에 설지어다*, 153쪽)

리 대관장님은 요셉 스미스 시대에 확립된 어떤 정책과는 다른 새로운 교회 정책에 동요된 어떤 사람에게 자신이 대답해 줬던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 문제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 분은 의의를 제기하는 그 형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840년의 하늘의 질서에 모순되었던 것이 1960년의 하늘의 질서에 모순이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는 그것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다시 돌아가신 예언자를 따르고 있었고, 그는 오늘날 살아 계신 예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강조하는 살아 있는 이라는 말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해롤드 비리, *너희는 거룩한 곳에 설지어다*, 153쪽)

요약해서 말하면, 이 교회는 현대의 살아 계신 예언자에게 주어지는 지속적인 계시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하늘 나라에 관하여 위대하고 중대한 것이 많이” 계시되어 왔고 살아 계신 예언자를 통해서 더 많이 계시될 것입니다. 요셉 스미스와 함께 시작되어 교회의 대관장으로서 그의 후계자들에게 계속되는, 그치지 않는 계시의 물결은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력을 완전하게 해주어 왔습니다. 교리에 관한 이해력은 이전의 어느 때보다도 이 경륜의 시대에 오늘날 교회의 가르침을 받을 때 더욱 완전해집니다.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대복입니다. 헝클리 대관장님은 지난 4월 연차 대회의 개회사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의 일을 이루기에 가장 영광스러운 이 시대에 주님께서 주신 은사인 훌륭한 교리와 의식을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경축하며 함께 기뻐합니다. 우리 모두 이 가장 고귀한 은사와 특권에 대해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합시다."(성도의 빛, 1998년 7월호, 6쪽)

우리들의 예언자께서 말씀하신 모든 "고귀한 은사와 특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는 풍성한 축복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보다 중요시해야 할 것은, 감사함을 표시하는 태도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로도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지 못하되 다만 만사가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음을 고백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아니하면"(교리와 성약 59:21)

감사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모든 사과

가 반쪽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과를 윤이 나게 닦는 과정에서 생긴 흠집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세 타령에 마음이 팔려 주어지는 축복에 무감각해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일에 마음이 팔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쁨과 행복은 감사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와츠 자매와 저는 최근 3년 간 다른 나라에서 지내며 친절하고 상냥한 사람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만일 세속적인 재물의 소유가 곧 행복이라고 한다면, 이들 성도들의 대다수는 불행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와 정반대로,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 났고, 그 결과 기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별다른 혜택을 누리지 못한 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면서도, 그들이 즐겁게 생활하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즐거워하는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원리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얻는 축복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한 충실한 지방부장은 자전거를 갖게 되어 자신의 부름을 보다 용이하게 수행하게 된 것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페달을 밟으면

밟을수록 더욱 행복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에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에 별로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지 못한다면, 좀더 빠르게 페달을 밟아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심도 있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봉사하려는 태도는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그대로 투영하는 것입니다.

제임즈 이 탈매지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감사는 겸손과 쌍둥이 자매요; 교만은 이들의 적입니다..."(일요일 밤 말씀, 재판, (1931), 483 쪽)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서 위대함이 시작됩니다."(감사는 구원의 원리임, 성도의 빛, 1990년 5월호, 86 쪽)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에도 감사하는 마음, 곧 계명을 지키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려는 자들을 위해 예비해 두신 축복과 은사에 대해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앞날을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오래 전에 이웃으로 지내면서 우리 집에서 복음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던 한 영원한 친구가 사랑하는 배우자를 잃은 가운데 연단의 불길을 느꼈습니다. 그가 최근에 복음과 성전 성약과 영원한 결혼에 대해 형용할 수 없는 감사를 느낀다고 한 말이 제 마음속에 깊이 아로새겨졌습니다. 그의 사랑스런 부인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이러한 지식이 그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결코 알지 못했던 위안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이 위대하고 영원한 은사를 나눠 준 자네에게 어떻게 내 감사하는 마음을 다 전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한 그의 말에 덧붙여, 우리 모두에게 "고귀한 은사와 특권"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제 자신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자는 영화롭게 될 것이요, 이 세상의 것이 저에게 더하여 지리니 참으로 백배 이상 더해지리라."(교리와 성약 78:19) 하나님은 관대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심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러셀 엠 넬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잠재력은 무한합니다. 우리의 유산은 신성합니다.



최 근에 저는 극단적인 유행을 좇는 옷차림과 몸치장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끈 젊은이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말했던 “난 진정 내가 누구인지 찾고자 노력한다”는 말에서 그들의 공허함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은 제가 마침 교회 모임을 참석하고 오다가 겪은 일인데, 그 모임에서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찬송가 187장 참조)를 불렀었습니다. 그와 같이 서로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일들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원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교리와 성약 88:15 참조), 영과 육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영과 육에 대한 확고부동한 이해는 선을 행하기 위한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신체

우리 신체가 갖는 경이가 흔히 간과되어 왔습니다. 자신의 체격이나 외모 때문에 열등 의식을 느껴 보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습을 지녔으면 하고 바랍니다. 직모의 머리를 한 사람은 곱슬머리를 원합니다. 반대로, 곱슬머리인 사람은 직모를 원합니다. 어떤 숙녀 분들은 “신사는 금발을 좋아한다”는 생각에 “의도적인 금발”이 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어떠한 재능을 타고났든 지간에,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물입니다. (러셀 엠 넬슨, “인간의 위대함”, 성도의 빛, 1988년 1월호, 64~69쪽 참조) 몸은 육의 장막으로, 여러분의 영이 거하는 성전(고린도전서 6:19 참조)입니다. 신체를 연구하다 보면 그것을 기획하신 신성한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생식 세포가 결합되는 것으로 육체의 형성이 시작되는데, 그중 하나는 어머니로부터 나머지 하나는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두 세포에는 새로 태어날 인간의 모든 유전 정보가 담겨 있는데, 육안으로는 도저히 분간할 수 없는 미세한 공간 속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세포 안에서 부모 양측에서 물려받은 염색체 23개가 각기 결합합니다. 이 염색체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의 신체적인 모든 특성을 결정 짓는 수천 개의 유전자를 담고 있습니다. 이 두 생식 세포가 결합한 후 22일 정도 지나면, 조그만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26일이 되면 피가 순환하기 시작합니다. 세포는 계속해서 증식하며 분할합니다. 어떤 세포는 사

물을 보는 눈이 되고, 또 다른 세포는 빛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됩니다.

신체 기관은 어느 것이나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경이로운 은사입니다. 눈은 일종의 자동 초점식 렌즈입니다. 서로 분리되어 있는 두 눈은 신경과 근육에 의한 조절을 통해 하나의 3차원적 형상을 만들어 냅니다. 눈은 뇌에 연결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본 것들을 기록합니다. 전기 코드나 전지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두 귀는 음파를 가청음으로 변조하도록 고안된 치밀한 장치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막은 일종의 진동판 구실을 합니다. 미세한 소골은 음의 진동을 증폭시켜 신호를 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하는데, 이곳에서 소리를 감지하고 기억합니다.

심장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뛰어난 성능을 지닌 펌프입니다. 심장에는 피가 흐르는 방향을 조종하는 섬세한 판막이 4개 있습니다. 이 판막들은 하루에만도 10만 번 이상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일년에는 3600만 번을 개폐합니다. 그런데도, 질병으로 인해 변형되지 않는 한, 이 판막은 이같은 스트레스를 거의 무한정으로 견딜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어떠한 인공 심장도 아무런 고장없이 그와 같은 빈도로 그렇게 오랫동안 작동할 수 없습니다.

성인의 심장은 매일같이 7천 570리터 들이 탱크를 채우기에 충분한 양의 혈액을 펌프칩니다. 이 일은 성인 남성(68.2키로그램 무게의 성인) 한 명을 단지 4와트 정도의 에너지만을 사용하여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의 높이로 들어올리는 것과 같은 힘입니다. 심장의 움기부에는 특수 라인을 따라 에너지를 전달하여 수없이 많은 심근 섬유들이 다 함께 움직이게 하는 전기 발전기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그 외의 다른 소중한 기관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것들은 각기 놀라운 방식으로 기능하지만, 제 능력이나 시간상 다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몸의 다른 기관들도 비록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경이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기능 보조 체계란 것이 있



습니다. 쌍을 이루고 있는 각 기관들은 그 쌍을 이루는 다른 기관에 의해 즉각적인 기능 보조를 받습니다. 뇌나 심장, 또는 간과 같이 단일 기관일 경우 두 경로를 통해 혈액이 공급됩니다. 만약 이 중 한 경로에 손상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설계에 의해 기관이 보호받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 몸의 자기 방어 체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몸을 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통을 느낍니다. 감염에 대하여 항체를 만들어 냅니다. 항체는 당면한 문제를 퇴치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계속 유지되어 미래의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 줍니다. 어느 날 저는 길가의 수로를 따라 흐르는 물을 들이킨 세 살 짜리 꼬마들을 주의 깊게 관찰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들이 취한 세균의 수는 엄청났을 테지만, 그 꼬마들 가운데 병난 아이는 없었습니다. 더러운 물이 아이들의 위에 들어갔을 때, 위액 속에 들어 있는 염화수소산이 그 즉시 오염된 물을 처리하여 어린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했던 것입니다.

피부도 보호 기능을 합니다. 피부는 또한 과도한 열이나 냉기로 인해 야기되는 부상에 대해 미리 경고합니다. 심지어 신체의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음을 알리는 신호를 보냅니다. 열이 나면, 피부에서는 땀이

납니다. 두려움에 떨 때면, 피부가 창백해집니다. 또한 당황한 경우에는, 얼굴을 붉히게 됩니다.

우리 몸은 자가 치유를 합니다. 부러진 뼈는 다시 강하게 됩니다. 찢겨진 피부는 스스로 치유가 됩니다. 순환 기관에서의 누출은 저절로 봉쇄됩니다.

우리 몸은 노화된 세포를 재생시킵니다. 예를 들면, 적혈구는 평균 약 120일 정도를 삽니다. 그런 후에 새롭게 생성된 세포에 의해 대체됩니다.

몸은 그 자체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들을 조절합니다. 필수 원소와 화학 구성물이 계속적으로 조절됩니다. 주변 기온의 변동차에 상관없이, 체온은 아주 미세한 범위 내에서 엄밀하게 조절되고 있습니다.

만일 정상 기능, 자기 방어, 자가 치유, 재생, 그리고 조절과 같은 이러한 특질이 영원토록 계속된다면, 이곳에서의 우리의 삶은 끝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자비롭게도 창조주께서는 궁극적으로 육체의 죽음을 가져오는 노화 및 다른 과정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을 제 때가 아니거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죽음은 출생처럼 삶의 한 부분입니다. 경전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육체적인 죽음을 모면하려 함은 온당하지 아니하니, 그러한 일로 위대한 행복의 계획을 깨뜨리겠음이라."(엘마서 42:8, 엘마서 12:24~27 참조)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기쁨입니다.(시편의 저자는 신회의 견해를 이렇게 표현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느니라"(시편 116:5))

죽음이 한창 나이의 사람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이 생에서의 삶이 지속되지 않게 하는 바로 그 율법이 육신이 불사 불멸을 입는 부활의 때에 충족되리라는 사실을 아는 지식에서 위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영

이번에는 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필멸의 존재로 이 지상에 거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자녀로 그분과 함께 살았습니다. 영은 영속적인 존재입니다. 전세에서 순진 무구한 상태로 존재했으며(교리와 성약 93:38 참조), 육신이 죽은 후에도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엘마서 40:11 참조; 아브라함서 3:18 참조) 영은 육신에 생기와 인격을 제공합니다.(욥기 32:8 참조) "모든 영은 물질이니, 다만 극히 청결하고 순수하여"(교리와 성약 131:7)

"인간의 영도 인간의 신체의 모양을 하고 있으며" 아랫의 동생이 주님의 전세에서의 몸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이제 너희가 보았느냐? 만인이 태초에 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느니라.

"...네가 지금 보는 바 나의 몸은 영체라. 내가 나의 영체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고, 이제 내가 네 앞에 영으로 나타내어 보인 것 같이 나의 백성들에게 육신으로 나타내어 보이리라."(이더서 3:15~16)

영의 발전에 따른 그 귀결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심판받게 되는 속성들은 영의 속성들일 것입니다.(육신이 아니라 영은 적극적이며, 책임감 강한 영혼의 구성 성분입니다. 영이 없는 육신은 죽는 것입니다.(야고보서

2:26 참조) 그러므로 선 또는 악을 택하고, 최후 심판시에 그것이 지니게 될 긍정적인, 부정적인 품성들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것은 바로 영입니다.(엘마서 40:3~7 참조) 이러한 속성에는 고결함, 동정심, 사랑 등과 같은 덕성이 포함됩니다.(예를 들면 "신앙, 덕행, 지식, 절제, 인내, 형제애, 경건, 자비, 겸손, 근면"(교리와 성약 4:6) 같은 것들) 영은 육신과 결합하여 그 안에 거하게 될 때 비로소 영원한 진보에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될 방법으로 이러한 속성을 개발하고 표출할 수 있게 됩니다.(니파이에서 2:11~16, 21~26; 모로나에서 10:33~34 참조)

영과 육신은 하나로 결합될 때 지극히 높은 가치를 지닌 생명, 곧 살아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체적 한계

대체로 잘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육체적 한계를 갖고 태어납니다. 신체의 특정 부분이 비정상적일 수 있습니다. 신체의 조절 시스템이 정상적인 균형을 잃어 버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병이나 죽음에 전적으로 영향을 받는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이라는 은사는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충분한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교리와 성약 138:17 참조)

신성한 숙명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완전한 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가장 사랑스러운 영들이 연약한 육신에 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체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중에는 바로 그러한 도전을 이겨나가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영적으로 위대한 힘을 발전시키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은 하나님께서 충실하고 순종적인 자녀들을 위해 예비해 두신 모든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아브라함서 3:25~26 참조)

결국에는 "영과 육체는... 완전한 모양으로... 다시 결합될 것이요, 수족과 뼈의 마디가... 모양 그대로 회복될"(엘마서 11:43:

엘마서 40:23; 전도서 12:7; 교리와 성약 138:17 또한 참조)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덕분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모로나에서 10:32 참조)

개인적 행위

이러한 진리가 우리들의 개인 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먹이를 주는 주인의 선택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어항 속에서 헤엄치는 금붕어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어떠한 축복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느니라."(교리와 성약 46:32)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서 끊임없이 덕을 쌓고 거룩한 행실을 할 수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46:33 참조)

우리는 앞으로 자신의 몸을 자신의 성전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고린도전서 3:16 참조) 우리는 결코 자신의 몸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더럽혀지거나 훼손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인간의 육신에 대해서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린도전서 3:17))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식량을 조절하며 운동해야 할 것입니다.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 건강에도 똑같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고린도전서 9:24~27 참조; 히브리서 12:9 참조) 신체적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하듯이, 영적인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노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조화와 그분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소망을 낳습니다. 기도는 지혜와 선행과 겸손을 얻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권고에 대해 보다 신중한 태도를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

수가 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육신만을 위한 조언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지혜의 말씀에 위반되는 지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육체적, 영적 축복을 가져오도록 계시된 율법을 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89:18~21 참조; 로마서 8:6; 니파이에서 9:38~39; 교리와 성약 29:34~35 참조) 생식 기관의 사용에 관한 일부 권고들은 단지 — 그리고 부적합하게 — 신체적인 고려에만 근거를 두고 있을 뿐입니다. 그와 같이 편중된 의견을 조심하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로마서 8:13)

그 경고는 외설에 관한 것으로, 이는 매우 중독되기 쉬운 것입니다. 경전에 나오는 경고는 명확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로마서 6:12) 중독이 육체와 영을 잠깐 사이에 예측시켜 버립니다. 중독에서 벗어날 완전한 회개는 아직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필멸의 육체가 있는 이생에서 가장 잘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는 어떠한 것도 몸에 들어가게 해서는 안됩니다. 시각이나 촉각 또는 청각과 같은 감각이 뇌에 불결한 기억을 전달하게 하는 것은 신성한 것을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순결을 간직하고,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우리로 하여금]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디모데전서 6:9)을 피할 것입니다. 또한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디모데전서 6:11, 12절은 이렇게 계속되고 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사항이다.)을 것이니, 이러한 것들은 건전한 영혼을 교화해주는 덕성들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잠재력은 무한합니다. 우리의 유산은 신성합니다. 우리가 모든 생각과 행동을 통해 그 거룩한 유산을 언제나 존귀하게 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아멘.

축복을 기원함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지금은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로 생활하는 중요한 시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의와 진리 안에서 양육합시다... 훌륭한 이웃과 친구들이 됩시다.



이제 모임을 마치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곳 테버나클에는 많은 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딱딱한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새 건물에서 대회를 치를 때는 폭신평신했던 의자에 앉게 되시길 고대해 봅니다.

그 동안 훌륭한 대회를 가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으며, 이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그동안 들은 것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활에 개선할 부분이 있거든, 그 말씀들을 적용하여 개선하기 바랍니다. 마음에 감화 받은 것이 있거든, 우리를 감동케 한 영에 순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무 수행에 게으름이 있었다면, 굳건히 서서 기대되는 바를 행하겠다는 자기 훈육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본 대회에서 여러 차례 언급되었습니다만, 소규모 성전 건축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기쁜 마음으로 보고드립니다. 몇 달 전에 유타 주 몬티셀로에서 첫

번째 소규모 성전을 헌납했습니다. 그 곳에 성전을 지은 것은 그곳에서 배우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몇 가지 교훈들을 배웠으며, 그 지역에서 보여 준 반응과 아름다운 건물이 자신들에게 들어선 데 대해 보여 준 큰 열정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금년 초부터 짓기 시작한 많은 새 성전들을 헌납할 것입니다. 이 성전들의 규모는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연차 대회 중에 저는 다음 2년 동안 30개의 새로운 성전을 지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저 저의 꿈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완전히 불가능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건축가, 기술자, 설계사, 가구 전문가들이 2천 년에는, 현재의 성전 수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100개 이상의 성전이 운영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조언해 주고 있다는 점을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막중한 프로젝트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어떤 분도 게으르게 일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말씀 드리는 이 성전들은 소규모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작아 보이지 않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가장 좋은 자재와 가장 좋은 모습으로 지어집니다. 모두 주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헌납되는 주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이어 나갈 것입니다. 이 교회의 충실한 성도 여러분이 자신의 축복을 받고 죽음의 장막 저편으로 앞서 가신 분들에게 축복을 전해 드리기 위해 성전을 필요로 하는 곳이 아주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성전들은 이용하기에 합당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회개가 필요하다면, 지금이 바로 마음을 돌이켜 성전에 가기 위해 스스로를 준비시켜야 할 때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로 생활하는 중요한 시대입니다. 주님의 관대한 축복과, 그분이 우리에게 밝혀 주신 의지와, 온 세상의 충실한 성도들이 있기에, 우리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던 것들을 수행할 수 있음을 압니다.

저는 아주 오랫동안 이 교회의 역원으로 일해 왔습니다. 이제 저는 시간의 흐름을 거부할 수 없는 노인입니다. 충분히 오래 살았으며, 충분히 여러 직책에서 봉사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하나님의 이 사업이 거룩하다는 것에 대한 의심, 필요할 경우, 머리 속에서 완전히 없애 버렸습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의 분들을 존중합니다. 그 분들과 우정을 증진하고, 그 분들과 의미 있는 봉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분들이 선행을 한다는 것을 알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사실 이 때문에 자주 비판 받습니다만- 이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되고, 살아 있는 교회입니다.

이제 자리에 앉기 전에, 오늘 우리에게 노래를 선사해 준 이 훌륭한 합창단에게 잠시 찬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이 합창단은 위대한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훌륭합니다. 발전해 가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상태가 내일도 그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계속 노력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의와 진리 안에서 양육합시다...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훌륭한 이웃과 친구들이 됩시다. 이 세계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의 미소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겸손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기원하며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오라, 주님의 빛 안에 걸어가자

매리 엘런 스무트 자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그분은 우리 모두에게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진리는 단순하고 명백하며, 그분의 초대는 확실합니다.



저는 언제나 초대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느 날 자신이 매우 중요하며, 매우 훌륭한 자질을 갖춘 사람이라고 알아주는 어떤 한 행사에 초대받았다고 상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한 상상을 하며 느끼는 재미는 행사 그 자체에 못지않을 것입니다. 초대받은 그 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며 준비를 할 때에는 심지어 하기 귀찮은 일상적인 일조차 흥미와 의미를 더합니다. 저는 요즘도 우편함에 배달된 우편물 가운데 초대장 같아 보이는 것들을 제일 먼저 열어 봅니다.

유감스럽게도 모든 초대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들은 유인하거나 유도할 목적을 띠고 있습니다. 우편물이나 컴퓨터 혹은 텔레비전 등 어느 것을 통해서든 간에 이러한 것들은 피어 내거나 유혹할 수 있으

며, 실제로 잘못된 길로 이끌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정경과 예언자와 성신으로부터 받는 초대는 신뢰할 만한 것입니다. 그러한 초대는 우리에게 방향과 평안, 위안과 기쁨을 제시합니다. 세밀하고 조용한 음성이 우리에게 말하며 의로운 삶을 살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신의 속삭임에 주의를 기울여 자신의 내면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짙은 비구름이 사라지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가득 채울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초대는 너무도 중요한 것들입니다. 참으로 그분의 초대는 하나님의 딸로서의 우리의 무한한 가치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개별화된 너무도 멋진 초대입니다. 이러한 초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초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에게 오라", "나를 따라라", "오라."

오늘 저녁,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은 여러분 모두에게 이 같은 초대를 하고자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주님)의 빛에 행하자" (이사야 2:5)

불어로 "호의를 나타내다"라는 의미를 지닌 RSVP를 해주시기 바랍니다.(기꺼이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며 주님의 전

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모두가 그 일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두에게 방금 우리가 했듯이 이 같은 초대를 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주님)의 빛에 행하자" (이사야 2:5)

제 고조부이신 이스라엘 스타다드 할아버지께서는 1842년에 교회에 가입하라는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 그분은 성도와 합류하라는 또 다른 초대를 받아들여, 가족을 이끌고 뉴저지에서 나부로 옮겨 갔습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이 자신을 따라서 부로 가자는 초대를 했을 때, 그들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들 가족은 미시시피강을 건너며, 뒤돌아서서 자신들의 집이 불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친 풍토와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5주 만에 갓난아기도 죽었으며, 그 후 얼마 있지 않아 아버지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 할머니는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이로 인해 다섯 명의 스타다드 자녀들은 천애의 고아에다 무일푼이 되었지만 그들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푼 성도들이 있었기에 전혀 외톨이는 아니었다."

이 초대를 받아들인 결과 부모와 어린 아기의 생명은 잃게 되었지만, 이 가족은 영원히 결봉되었습니다.

잠시 저와 함께 주님의 빛 안에 걸어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고해 보도록 합시다. 우선 우리는 빛, 곧 얼굴빛, 외모에서 풍기는 빛, 어둠 속에서 비치는 빛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목적과 방향을 갖고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세주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주에 그 방법을 열 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등을 들어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러한 비유들을 지침으로 해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귀 기울여 듣고 그대로 순종한다면, 우리는 빛과 진리 안의 자매가 될 것입니다.

첫째, 열 처녀의 비유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준비됨으로써 빛 안에 걸어들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구세주께서는 하나님의 왕국을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아간 열 처녀에 비유하셨습니다. 다섯 처녀들은 등을 밝힐 기름을 예비하여 신랑이 왔을 때 그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미련한 다섯 처녀가 모자란 기름을 채우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사이에 오직 "예비한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 (마태복음 25:1~10 참조) 했습니다.

자매 여러분, 언제라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개별적으로나 집합적으로 주님께서 끝까지 충실한 모두에게 약속하신 관대한 은사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빛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김볼 대관장님은 등에 기름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성찬식에 해를 거듭하며 꾸준하게 참석하는 가운데 등에 기름이 한 방울씩 모이게 될 것입니다. 금식이나 가족기도, 가정 복음 교육 (또는 방문 교육), 육체적 육구의 조절, 복음 전파, 경전 공부 등과 같은 헌신과 순종의 모든 행위는 저마다 등에 보태지는 기름입니다. 친절한 행위, 십일조 및 헌금, 순결한 생각과 행동, 영원을 위한 성약의 결혼, 이러한 것들 또한 한밤중이라 할지라도 맞을 채비를 하도록 하는 기름을 보태는 것들입니다." (기적을 낳는 신앙 (1972), 스펜서 더블류 김볼의 가르침에 기초함, 256쪽)

상호부조회가 영적으로 준비하는 데 어떠한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한 자매님의 생각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그 자매님의 신앙에 큰 감명을 받아 그 분께 간증을 써보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중 일 부분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 인생에서 상호부조회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혼했고 어린 딸을 혼자서 키우고 있었으며, 또, 제겐 죽은 아들이 있었어요. 저는 몇 시간이고 무릎을 꿇고 구세주와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상호부조회가 제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상호부조회는 바로 저를 위해 있는 조직이었어요. 저는 제 어린 딸과 제 자신이 먹고살며 최소한의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을 벌기 위해 일주일

내내 힘겹게 일해야 했습니다. 매주일마다 우리는 교회에 갔습니다. 매주 상호부조회에 참석함으로써 제가 보다 강하게 되고 보다 나은 자매가 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가서 말씀을, 특히 상호부조회에서의 말씀을 깊이 심취하고자 했지요. 그 모임은 제게 위안이자 '만남' 이지요. 저는 그곳에서 소속감을 느낍니다. 저는 공과를 배우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어린 아이를 키우는 일에 몰입했죠. ... 그런데, 지난날들을 돌이켜볼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주님이시자 구세주이신 그리스도께서 단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자매들에게 주신 조직에 속했다는 소속감입니다." (허락을 받아 게재함)

우리는 상호부조회에 소속된 자매로서 신랑이 돌아올 그 날을 위해 예비하도록 서로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상호부조회에 활동적으로 참여한다면 우리의 등에 기름이 가득할 것이며 신앙을 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그분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약속하신 은사 중 하나가 신앙입니다.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는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신앙이란 개인적인 의로움에 대한 보상으로 부여되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것은 의로움에 거할 때는 언제나 주어지며,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신앙의 은사는 더욱 더 많이 주어집니다." (물론 교리, 2판, (1962년판), 264쪽)

신앙을 비롯한 모든 영적인 은사는 그것들을 위해 기꺼이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효합니다. 흔히 우리는 교회 회원이 되지만 하면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축복에는 순종이 요구됩니다. 주님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때에는 그것이 근거를 두고 있는 율법을 순종하였으므로 얻게 되는 것이니라." (교리와 성약 130:21) 우리는 계명대로 생활함에 따라 힘을 얻습니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주님의 빛 안에서 걷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신앙의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경전과 살아 계신 예언자들에 의해 제시되는 대로 영적인 준비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상호부조회에서 충만하게 채워지는 우정을 나누야 합니다. 우리의 예언자들이 거룩한 영감을 통해 설립한 이 단체는 단지 주일에만 모임을 갖기 위한 조직이 아닙니다. 이 단체는 자매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데려오게 하는 조직입니다.

둘째, 우리가 신권 지도자들의 지시 하에 그들과 조화를 이루며 함께 일할 때, 주님은 우리의 재능을 발전시킴으로써 그분의 빛 안에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구세주께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주에 가르치셨던 또 다른 비유는 달란트의 비유였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왕국을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두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마태복음 25:14-15) 떠난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그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회계할 때에, 다섯 달란트를 받아 다섯 달란트를 더 늘린 종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그는 또한 두 달란트를 받아 두 달란트를 더 늘린 종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를 받아 땅속에 감추어 둔 종은 전혀 기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이 종에게서 달란트를 빼앗아 다른 종에게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5:15~30 참조)

저는 우리가 봉사하는 부름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달란트 즉, 재능이 개발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실하게 그 부름을 받아들인다면 감취진 재능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곧, 사랑과 자비심, 분별력, 좋은 친구, 화평케 하는 자, 교사, 지도자, 가정 주부, 작가, 탐구자가 되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이 곧 재능입니다.

제가 십대였을 때 부모님과 함께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해롤드 비리 장로가 모임을 감리했으며 주연사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 전날 밤을 꼬박 새며 4만 평방미터나 되는 딸기밭에 물을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깨어 있으려고 무척 애쓰셨지만 몰려오는 졸음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더구나 해롤드 비 리 장로가 말씀을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리 장로가 연단에 서서 청중들 가운데 몇몇 청년들을 불러 간증을 전하라고 했을 때 우리는 모두 조금 놀랐습니다. 평상시 그러한 일을 잘 맞추시던 저희 아버지는 제 옆구리를 찌르며 “다음 연사는 내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그 분이 나를 부르는 일은 없을 거야. 난 이 레크레이션 실의 첫째 줄에 앉아 있잖아. 저는 통로를 쳐다보면서 연단과 정말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다음 순서로 지명되었습니다.

저는 리 장로님의 초대에 응했습니다. 제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길에, 청중 속에서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 팔을 꼭 잡아 주거나 손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저는 그 경험을 통해 영적으로 고양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용기를 내어 주님과 그분이 부르신 지도자들의 초대에 응할 때 고양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초대는 먼 여로입니다.

420만에 달하는 교회의 여성들이 손을 잡고 우리의 재능들을 사용한다면, 이 세상에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 개인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각기 독특한 은사를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의 빛 안에서 걷겠다면 여러분 개인이 가지신 힘을 발견하여 이를 발전시키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이기심 없이 나눌 때 큰 기쁨을 발견할 것입니다.

셋째, 구세주께서는 세 가지 비유 가운데 마지막 비유를 통해 개개인을 돌봄으로써 주님의 빛 안에 걸으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주시며,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이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34-36, 40)

주님의 빛 안에 걸을 때, 우리는 혼자 걷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의 손을 붙잡아 줍니다. 가족을 가르치며 강화시킵니다. 와드 내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혼자 교회 다니는 회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뻗칩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권유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죄악을 멀리 하게 하는 방법으로 최적이 것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은 그 사람의 손을 이끌고 자비로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아주 작은 친절과 사랑을 보였을 때라도 우리는 힘이 솟구침을 느끼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감정이 격해지고 낙담하게 됩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제5편 “자비의 주인”, 226쪽)

엘리자 알 스노우 자매가 했던 말씀은 우리 모두를 교화시키고 남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천사들이 여러분의 은밀한 행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십시오. 더욱 품위 있고 비전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예의 바르고 품위 있는 사람이 되도록 양육하여 사회에서 유용한 인물이 되게 합시다.”

자매님은 계속 말씀했습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들이 나쁜 무리와 어울리지 않도록 지키며 그들에게 단정하게 옷을 입히도록 연구하되 그들의 품위를 높이고 그들을 고상하게 만들 원리들로 장식시키는 걸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장차 하나님의 왕국에서 유용한 인물들로 준비시키십시오.” (우먼스 익스포넨트, 1981년 5월 1일, 164쪽)

우리가 그분의 빛 안에서 걸으라는 주님

의 초대를 온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영적으로 준비되며, 우리의 재능을 발전시키며, 하나님의 가족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빛 안에 걸을 때에, 우리는 용기와 확신을 지닌 여성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전을 지닌, 운명을 개척하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여성이 됩니다.

우리는 안전과 보호의 테두리 안에 있는 범세계적인 집단입니다. 우리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상호부조회의 일원입니다.

주님의 따스한 품과 여러분을 사랑하며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자매들이 함께하는 본향으로 다시 오라는 우리의 초대에 응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사야는 오늘날의 우리를 보았습니다. 그는 모든 족속의 백성들이 주님의 집으로 가며 그분의 빛 안에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사야는 주님께서 선을 위한 막강한 세력이 되며 하나님의 신권의 강력한 도구가 될 여러분을 필요로 하시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상호부조회는 왕 같은 제사장의 지휘하에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에 조력할 것입니다.

이 초대를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은 그분의 포용을 느낄 것이며 그분의 감미로운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마태복음 25:23, 34)

전세계의 우리 자매들에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간증 드립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에게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진리는 단순하고 명백하며, 그분의 초대는 확실합니다. 저는 신권의 지시를 받으며 그것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여성들과 가족들이 승영에 이르기 위한 준비를 하도록 도와 주는 상호부조회의 지극히 중요한 역할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성의 표상이 되며 담대히 진리를 수호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상호부조회에 나오십시오

버지니아 유 젠슨 자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

여러분이 어디에서 왔든지, 어떠한 약점을 갖고 있든지, 어떻게 생겼든지,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이 이 곳에 속해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전체로나 개별적으로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지난 4월 연차 대회 기간 중에 우리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은 십이사도 정원회의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대리가 이 연단에 서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 분은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호부조회에 기탄 없는 지지를 보내는데 오늘 제 말씀의 취지가 있습니다. 저는 모든 여성들에게 가입하여 참여할 것과 모든 행정 지위에 있는 신권 지도자들은 상호부조회가 번창하게 되도록 노력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상호부조회’, 성도의 벗, 1998년 5월호, 72쪽)

자매 여러분, 저도 또한 같은 취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리 엘런 스무트 회장은 오늘 여러분에게 초대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상호부조회로 나오십시오!

상호부조회는 신권의 권능으로 조직되었으며, 오늘날에도 같은 권능에 의해 인도되

고 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신권에 대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주를 창조하고 통치하며 하늘에 별이 있게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권능입니다.” (제임스 이 파우스트 인용, “성약을 지키고 신권을 존중함”, 성도의 벗, 1994년 1월호, 36 쪽) 조지 앨버트 스미스 대관장은 교회의 여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자리에서, 상호부조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호부조회를 여러분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주님의 예언자에게 주신 계시의 결과로 온 것입니다.” (‘상호부조회 회원들에게 하신 연설, 상호부조회 잡지, 1945년 12월, 717 쪽) 우리는 이와 같이 예언자의 신권 권능을 통해 설립된 조직을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상호부조회의 지도자로서 여성과 그들의 가족을 그리스도에게로 데려오는 일에 기여하고자 신권의 보조 조직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상호부조회의 어떤 점이 패커 회장 대리가 말씀하셨듯이 우리로 하여금 “가입하여 참여하[도록]” 합니까?

상호부조회에는 여성인 우리가 자신과 우리 가족을 위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도와 주고자 고안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스펜스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에 따르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통해 여성에게 주어진 것보다 더 위대하고 영화로운 약속들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1979), 43쪽) 사회의 어느 곳을 살펴봐도 여성과 가족이 위협에 처한 시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 걱정스러울 만큼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어린이들이 학대당하며 방치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그들을 편의주의와 정치적인 공정으로 몰아가려는 설득력 있는 목소리들의 혼란스러운 불협화음 속에서 올바른 진리의 목소리를 듣고자 베투대고 있습니다. 420만 명에 달하는 우리 상호부조회 회원들 중에도 마음이 상하고 혼란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상호부조회 조직 내에 한 개인의 영혼을 위로하거나 곤경에 처한 세상을 치유할 모든 방법들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온전히 깨닫고 계십니까?

상호부조회의 첫 번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키우고 서로에게 하나님 왕국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상호부조회 공과나 활동, 또는 함께 나누는 경험을 통해 여러분은 간증을 얻거나, 이미 갖고 있는 여러분의 간증을 강화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상호부조회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간증을 얻거나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여성의 영적인 힘과 확고한 간증이 그들 자신은 물론 그들이 속한 가족이나 지부, 와드, 심지어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호부조회의 두 번째 목적은 모든 자매들에게 각자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영의 자녀이며 모든 가능성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 즉, 하나님 면전에서 그분의 상속자로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포함된 성스러운 본성과 숙명을 타고났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킴블 대관장의 말씀을 다시 인용하겠습니다. “이외에 어느 곳에서 참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이 외에 어느 곳에서 삶의 본질에 대한 필요한 설명과 확신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어떠한 원천에서 여러분은 자신의 유일성과 정체성에 대해 배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매님 (1979), 43쪽)

우리는 영원토록 펼쳐진 권리와 특권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 따라서

우리는 충실함에 의해 그분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이해할 때, 우리는 세상과,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처소와, 그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전혀 다르게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언자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전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은 신성한 생득권을 지닌 자녀로서, 하나님의 발음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사랑과 존중을 받고 있으며, 여러분은 그분 왕국의 한 부분이며, 여러분에게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태양이 비치는 세상을 고개를 들고 다니십시오.” (“, 성도의 빛, 1984년 1월호, 84쪽)

힝클리 대관장이 언급하신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일이란 무엇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기대하시다시피 그에 대한 대답을 상호부조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상호부조회의 세 번째 목적은 모든 자매들에게 제각기 자신의 가족이나 와드 또는 지역 사회에 속한 사람들에게 봉사의 손길을 내밀도록 격려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매로서 서로 주님의 빛 가운데 걸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능력과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든 나이나 국적, 혼인 여부, 교회 부름에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사랑과 봉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서 수고하며 슬픔과 고통을 덜어 주시고 자 생애의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시다 작고하신 테레사 수녀님의 인생과 일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은 그녀가 오스트레일리아를 방문했을 때, 한 쓸쓸한 원주민의 오두막집을 깨끗이 치워 주었습니다. 그 오두막에는 아름다운 램프가 불을 밝히지 않은 채로 있었습니다. 왜 불을 밝히지 않냐고 묻자, 그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에게 램프에 불을 밝히겠다는 약속을 하게 한 다음, 그에게 수녀들이 방문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후에 그 남자는 테레사 수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 친구가 저의 인생에 밝힌 불이 여전히

타고 있다고 말해 주십시오.” (가난한 사람을 위한 내 생애: 켈커타의 수녀 테레사, 조스 루이스 곤즈 에즈발도와 재닛 엔 플레이 팟 편저 (1985), 76쪽)

우리는 상호부조회 자매로서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들의 생활에 손수 구운 빵과 음식뿐 아니라 빛을 가져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주고, 마음을 복돋우며 영감을 고취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그분의 빛 안에서 화평과 안위를 찾게 도울 수 있습니다. 여성인 우리는 사랑하고 양육하고자 하는 타고난 본성이 있습니다. 여성은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친구에게 용기를 주고, 남편을 격려하고, 낙담한 사람에게 기운을 북돋아 줄 수 있습니다. 여성은 생명을 주며 양육하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함께 나눌 것들이 있으며 섬겨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2보좌였던 엘리자 알 스노우 자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없을 만큼 고립되거나 좁은 영역 안에 살고 있는 자매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먼 엑스포넌트, 1873년 9월 15일, 62쪽)

상호부조회의 네 번째 목적은 가족을 강화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지금보다 더 힘과 보호를 절박하게 필요로 하던 때가 있었습니까? 저는 온 마음으로 가족이 파멸되어 가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호벽은 충실하고 의로운 어머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1993년에 힝클리 대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온 세상에 계신 어머니들에게 그분들이 받은 부름의 고결성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책임도 어머니의 그것보다 위대할 수 없으며, 어떠한 의무도 여러분의 사랑과 평화, 그리고 성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데려온 아이들을 키우는 것보다 강할 수 없습니다.” (“자녀를 빛과 의로움 안에서 키우십시오”, 성도의 빛, 1994년 1월, 60쪽)

우리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은 어머니

란 직분이 여성이 종사하는 일 가운데 가장 숭고하고, 가장 고결한 일임을 재천명합니다. 한편, 우리는 교회에서 가장 헌신적인 여성 가운데 아직 어머니로서의 경험을 해볼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성찰의 기회를 열어 줄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훌륭하고 합당한 말일성도들이 사신의 진보에 꼭 필요한 조건과 이상적인 기회들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을 압니다. 독신, 자녀가 없음, 사망 그리고 이혼 등이 우리의 이상을 좌절시키고 약속된 축복을 받는 것을 지연시킵니다. 게다가 집에서 어머니와 주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다하고 싶어하면서도 문자 그대로 어쩔 수 없이 직장에 나가야 하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좌절은 단지 순간적인 뿐입니다. 주님은 계명을 지키고 성약에 충실하며 옳은 일을 하고자 소망하는 그분의 아들과 딸들에게 영원히 거부될 축복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위대한 행복의 계획”, 성도의 빛, 1994년 1월호, 75 쪽)

다섯 번째 목적은 자매들이 자신을 필요하며, 소중하며,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도록 돕는 것입니다.

상호부조회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께 사랑을 드립니다. 최근에 어떤 한 자매는 저희와 이야기하던 중에 상호부조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상호부조회에서 자매애와 여성다움의 아름다운 느낌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자유의 권세 또한 느꼈습니다.”

상호부조회에서는 모든 사람을 환영합니다. 받아들여질 만한 말일성도 여성의 특정한 전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왔든, 어떤 약점을 갖고 있든, 어떻게 생겼든,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은 이곳에 속해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전체로나 개별적으로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평범한 여성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으며, 그분과 그분의 뜻을 따르겠다고 주님과 성약을 맺은 성약의 여성입니다. 그

분은 우리 각자가 - 우리 모든 개개인 - 인간의 자녀들 가운데 그분의 거룩한 말일의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이 할 일을 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호부조회를 필요로 하며 상호부조회는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여섯 번째 목적은 자매들이 저마다 성스러운 성전 성약을 맺고 지킴으로써 오는 축복과 함께 신권을 지지함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돕는 일입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영원한 성약을 맺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약속을 맺고, 그분은 우리와 매우 특별한 약속을 맺습니다. 다음 번에 성전에 갈 때, 자신을 위해서든 조상들을 위해서든 하나님께서 그분의 딸인 여러분께 맺는 약속에 깊은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전의 어느 곳이든 주님의 집의 거룩한 모든 장소마다 주님의 영원한 사랑에 대한 개인적이고 친밀한 확신이자 위안을 주는 성약으로 가득합니다.

교리와 성약 115편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다음 경고가 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리하여 네 빛이 여러 국민의 기가 되게 하라.

또 시온의 땅과 시온의 스테이크에 집합하게 하여 폭풍우가 내리치고 분노가 뒤섞임이 없이 그대로 온 땅위에 쏟아져 내려올 때에 방어진이 되며 분노를 피하는 대피소가 되게 하라."(교리와 성약 115:5-6) 자매 여러분, 상호부조회 프로그램에 대해 고찰하는 가운데, 상호부조회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위한 태풍으로부터의 피난처이자 방어벽이 될 수 있도록 합시다. 패커 회장 대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건한 상호부조회는 어머니와 딸들, 자녀를 혼자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 독신 자매들, 노약자들에게 엄청난 면역력과 치유력을 줍니다."(성도의 빛, 1998년 7월호, 74 쪽)

저는 여러분께 상호부조회는 신성한 기원을 가진 조직임을 간증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상호부조회로 나오시도록 초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축복이 여러분 삶에 함께하도록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홀로 있지 않습니다.

세리 엘 듀 자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2보좌

우리는 신회의 세 번째 구성원인 성신의 변함없는 동반을 약속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활 속에서 계시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느덧 3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3년 전, 어느 이른 새벽에 전화를 받는데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제 남동생 스티브가 갑작스런 심장 마비로 밤새 운명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 순간에 제가 가장 신뢰하던 친구가 가버린 것입니다.

그 후 며칠간 스티브와 그의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했던 수많은 친지들이 콜로라도에 있는 그의 집을 다녀갔습니다. 제 사랑하는 친구 일곱 명이 장례식에 참석하고자 멀리 떨어진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였습니다. 그들 중에 제 동생과 만난 친구는 아무도 없었지만, 저를 위안하러 왔던 것입니다. 그들이 저를 부둥켜안고, 이렇게 말했을 때의 제 느낌을 여러분도 이해할 것입니다. "우린 너를 혼자 내버려 두고 싶지 않았어." 그들은 말과 행동으로 신성한 원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누구도 홀로 있는 것은 좋지 않으며 그렇게 되도록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외로움이란 이 세상에서 겪어야 할 경험의 일부인 듯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외로움을 만드셔서 우리가 역경에 처할 때 결코 혼자서 견디 않도록 하셨습니다.

전 최근에 어느 모임에서 연사가 복음대로 사는 것이 너무도 힘들다고 말하는 것을 들으며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임이 끝날 무렵, 전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대로 사는 것이 마치 중노동이 부과된 종신형인 듯이 표현했습니다. 복음대로 사는 것은 힘겹지 않습니다. 힘겨운 것은 삶 그 자체입니다. 힘겨운 것은 성약을 타협하거나 가치관을 깨뜨린 후 그런 것들을 다시 제 자리로 돌리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지상에서 경험하거나 저지르게 될 실수나 골치 아픈 일, 또는 실망 등을 헤쳐 나갈 수단을 제시해 주는 좋은 소식입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 된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몇 가지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하고 거룩한 힘인,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의해 인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여성 조직이자 하나님의 예언자에 의해 조직된 상호부조회 회원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살아 계신 예언자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께 가르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분은 모든 면에서 예언자로서 손색이 없는 분이시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귀를 기울이는 모든 사람의 삶을 축복하는 계시를 받고 계심을 간증함

니다.

저는 이러한 놀라운 특권에 하나를 더하고자 합니다. 니파이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가 … 성신을 받으면 성신은 너희가 행하여야 할 모두를 너희에게 보여 주시리니.”(니파이이서 32:5) 로렌조 스노우 대관장은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모든 말일성도들에게 주어진 위대한 특권은 일상 생활에서 매일같이 영의 나타내심을 받음으로써 빛을 알 수 있고 어둠 속에서 끊임없이 더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대회 보고, 1899년 4월, 52) 에즈라 알 스노우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성도들에게] 세상의 어리석음에 대해 말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느낌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신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준다면, 성신은 외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입니다.”(위민스 엑스포넌트지, 1873년 7월 15일, 63 쪽)

우리는 신회의 세 번째 구성원인 성신의 변함없는 동반을 약속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활 속에서 계시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홀로 있지 않습니다.

성신은 우리의 마음과 이해력을 넓혀 주며, 약점을 잠재우고 유혹에 대항할 수 있게 도와주며, 겸손을 일깨워 주고 회개하도록 자극하며, 우리를 신비로운 방법으로 인도하고 보호하며, 우리에게 지혜, 신성한 격려, 마음의 평온, 변화의 소망, 인간의 철학과 계시된 진리 사이의 차이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 등을 부여해 줍니다.

성신은 아버지와 아들의 성역자이자 사자로서, 그분들의 영화롭고 만유에 가득한 실재와 그분들과 우리 개개인과 친밀한 관계에 대해 증거합니다. 영이 임재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의 사명을 깨닫거나 우리의 진로가 올바르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위안도 보혜사의 위안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힐클리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생활에 임하는 성령의 동반보다 더 거룩한 축복은 없습니다.”(매사추세츠 주 보스턴 시 지역 대회, 1995년 4월 22일) 한편 브리감 영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메리 엘런 스무트 자매가 상호부조회 대회를 사회하고 있음. 대관장단이 왼쪽에 앉아 있음. 오른쪽에 상호부조회 회장단이 앉아 있으며, 청년 및 초등협회 회장단과 세 보 조 조직의 본부 임원들이 연단 아랫쪽에 앉아 있음.

대관장님은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들) … 인도했으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특권에 훨씬 못 미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설교집 12:104-5)

사탄과 그의 앞잡이들이 온 땅에 배회하며 거짓과 낙담과 절망을 퍼뜨리는 이 때가 찬 경륜의 시대의 황혼기에 성신의 은사라는 지상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책으로 무장한 우리가 항상 그 은사를 온전히 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그저 “대충 떼우기”에 급급하여 손 닿을 곳에 있는 힘과 보호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께서 가까이 주시고자 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것에 만족하여, 주님과 동반하기보다는 혼자 힘으로 꾸려 나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 교회는 계시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당면 과제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는 데 있습니다. 그분은 이같이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간구할 때마다 내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리라.”(교리와 성약 6:14)

상호부조회에 속한 자매들인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기울기를 배우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도 흔하게 영

의 인도를 구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걱정됩니다. 아마도 우리는 방법을 모르고 있거나 그 방법을 배우는 것을 가장 우선된 것으로 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혹은, 개인적인 실패를 너무 의식한 나머지 자신을 합당치 않게 여겨, 주님이 진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으며, 따라서 계시를 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혹은, 우리 생활이 너무 번잡한 나머지 영이 거할 자리가 없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비극입니다! 성신은 우리가 도저히 혼자서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에게 낙천적인 생각과 지혜를 축복해 줍니다! 의로운 말일성도 여성들을 유혹하기 위해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전술이 분주함이란 것은 놀랄 것이 못 됩니다. 번잡한 일상 생활에 온통 정신이 팔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몰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구하지 않고 살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를 어머니요, 자매요, 지도자요, 친구로서 의지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는 여인은 응답과 평온을 찾기 위해 어느 곳에 마음을 기울여야 할지 압니다. 그녀는 확신을 갖고 어려운 결정을 내리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지도자와 같은 영에게서

조언을 얻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책임은 주님의 음성 듣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배를 짓기 위해 니파이가 받은 가르침에 대한 것을 읽다가 이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체 주의 가르침을 니파이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을까?" 그러한 질문 때문에 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직접적인 교화에 관해 찾을 수 있는 모든 경전상의 증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경전에서 찾은 구절의 여백에다 조그맣게 붉은 가위 표시를 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지금, 제 경전은 여기저기 가위 표시로 가득 메워져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주께서 그분의 백성과 참으로 교통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 자신이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실망으로 인해 너무나도 극심한 외로움을 겪던 시기가 기억납니다. 어느 날, 위안을 받고자 경전을 찾는 가운데, 저는 특별한 한 구절에 집중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 구절은 제가 다른 수백 개의 구절을 찾게 해주었으며 깊은 탐구의 기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후에야, 다른 구절이 제게 마치 네온 광고판처럼 반짝거렸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주께서 속죄의 권세가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한다는 것을 제게 가르치시고자 하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로 제가 받은 가장 명확한 속삭임은 경전에 깊이 빠져 있는 가운데 왔습니다. 경전은 계시의 통로입니다. 경전은 우리에게 영의 언어를 가르쳐 줍니다. 영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은 기꺼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열의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헝클리 대관장님은 무엇이든지 이를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일이든지 무릎 꿇고 도움을 구한 다음 일어나서 수행하려 가는 것 외에 달리 이를 수 있는 방법을 모릅니다." (성도의 빛, 1998년 1월호, 영적인 능력 러셀 엠 넬슨, 16쪽)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신앙과 근면의 결합이야말로 영의 언어를 습득하기 위해 더 할 나위 없는 교과 과정입니다. 구세주께서는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을

것임이요."(니파이삼서 12:6)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것은 순수한 영적인 노력을 하게 해줍니다. 성전에서 경배를 드리고, 회개하여 더욱 순수해지고,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며, 진지한 금식과 기도를 드리는 것은 모두 영을 느끼는 우리의 감수성을 증진시켜 줍니다. 영적인 수고는 실제로 작용하며, 영의 속삭임을 통해 전달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브르스 알 맥קי 장로는 "어떠한 값비싼 대가도, 어떠한 큰 희생도, 그 결과 우리가 성신의 은사를 향유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신앙개조의 새로운 증인, 253 쪽) 우리 개인의 보호자요 안내자로서 성신의 끊임없는 동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꺼이 해야 하며, 어떤 약점과 탐닉을 버려야 하겠습니까?

물어 볼 만한 질문입니다. 다음을 분명히 깨닫도록 합시다. 사탄은 이 교회의 자매들인 우리를 영으로부터 떼어놓기를 즐겨 합니다. 그가 말일의 하나님 왕국에서 우리의 영향력과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덕과 고결한 품성을 지닌 여인들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발산하는 모습을 지닌 선의 햇불이 되는 여인들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상호부조회 자매들에게 이것은 결코 과장된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의무입니다. 어느 곳에서도 주님께서 저희보다 더 신뢰하는 여성 단체는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여성, 주님은 이 교회의 여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전세계에 있는 이 교회의 여성들에게 오직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영향을 미칠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올 봄에 저는 시베리아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곳에 있는 자매들을 만나고자 임대한 집회장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영이 나를 압도함을 느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여성들인 러시아의 개척자 자매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부에서 엠마와 엘리자를 만났을 때 느꼈을 그러한 느낌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낀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선교부장의 부인인 에피모프 자매가 제게 몸을 기울여 그녀가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영어 단어로 "매우 성신"이라 속삭였습니다. 참으로 성신이 함께 합니다. 영은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의로운 여성들 가운데에서 억제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기 동안 단지 본부 상호부조회 회의를 한차례 더 남겨 두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세계 역사의 전환기에 우리를 무대에 올려 주실 만큼 우리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세에서 영겁의 세월을 거치며 훈련을 통해 준비되어 온 그러한 여성으로 일어서야만 하겠습니까. 우리 자신에 미치지 않는 삶을 살거나 어쩌다 생각하면 영의 은사를 구하곤 하는 사치는 우리와 무관합니다.

우리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 모두가 각자 어떠한 것도 우리와 주님의 영 사이에 끼여들지 않도록 하겠다는 결심을 합시다. 다시 한 번 우리의 영적 경계를 신장하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하늘의 영감을 더욱더 열심히 구하는 일에 매진합시다. 우리를 주님께 이끌어 주며, 그분과 묶어 주며, 그분에 대한 우리의 간증을 변경할 수 없도록 인봉하는 분이 바로 성신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주라는 사실과, 결코 우리가 홀로 있을 필요가 없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제가 어려웠을 때, 제 친구들이 저를 위로했듯이 성신은 우리를 강화시키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다음과 같은 약속이 참됨을 간증합니다. "나는 너희 앞에 앞서 갈 것이므로 너희 오른편이나 왼편에도 있으리라. 나의 영은 너희 마음에 있겠고 나의 천사는 너희를 둘러 있어 너희를 감싸 주리라." (교리와 성약 84:88) 온 마음을 다하여 그분의 음성을 경청하고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우리를 이곳에 보내어 수행하도록 한 일들을 행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주님의 빛 안에서 걸어감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제가 감히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과 당부와 바라는 바가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을 강화시키는 일에 다시 한번 헌신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저는 우선 여러분께 우리가 이 교회의 자매님들에게 얼마나 많이 감사하고 있는지를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필수적이며 가장 중요한 존재들이십니다. 여러분이 안 계시면 교회는 움직여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영감을 주십니다. 균형이 무엇인지도 알게 하십니다. 자매님들은 신앙과 선행의 엄청난 보고입니다. 여러분은 헌신과 충실함과 성취의 표상이십니다. 그 누구도 전세계에서 이 사업을 계속 진척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맡고 있는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논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매님들은 여러 조직에서 아주 훌륭하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준비는 우리 모두에게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는 상호부조회라는 이 훌륭한 조직의 일원이십니다. 자매님들로 구성된 이 조직엔 4백만 명이 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범세계적인 회원 조직 안에는 무한한 선을 이룰 수 있는 힘이 크게 잠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의 수문장이십니다. 여러분은 남편에게 용기를 드립니다. 또한 신앙 안에서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일부는 삶이 고달프고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불평이라고는 거의 하지 않으시며 묵묵히 많은 일들을 해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러분께 참으로 많은 것을 빚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께서 상호부조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조직은 모든 남녀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헌신하도록 거룩하게 구성되고, 거룩하게 승인받았으며, 거룩하게 발족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세워 주신 조직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에 견줄 만하며, 상호부조회와 똑같은 위치를 차지할 만한 조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상호부조회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 가운데 최고 으뜸가고, 가장 높은 곳에 있으며, 가장 훌륭하고 심오한 조직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예언자의 음성에 의해 그 일을 하고, 그렇게 최고이면서도 가장 훌륭하게 되게, 동시에 가장 순수하고 의에 절대적으로 헌신하도록 부름을 받으셨습니다.”(상호부조회 대회 의사록, 1914년 3월 17일, 역사부 문서 보관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54-56)

참으로 놀라운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 아내는 우리 딸아이들과 소녀들이 결혼할 때마다 특별한 선물을 주곤 했습니다. 그것은 진공 청소기나 접시 같은 실용적인 집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액자에 들어 있는 모계 쪽으로 7대에 걸친 가

계도입니다. 즉, 아내 모계 쪽의 고조모나 증조모 혹은 조모님이나 어머니, 아니면 아내 자신이나 딸아이들, 그리고 갓 결혼한 손녀의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7대에 걸친 사진 속의 모든 여성들은 상호부조회 역원들이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가계도는 이 세대를 사는 젊은 자매들에게 자신들이 맡고 있는 책무, 그들의 어머니와 할머니들이 상호부조회라는 조직에서 봉사한 전통과 관련해 이 사업을 계속 추구해 나가야 한다는 막중한 임무에 대해 늘 상기시켜 줍니다.

지금껏 여러분과 여러분의 선조들은 주님의 빛 안에서 걸어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적절한 의식주 없이 지내는 사람이 없음을 인식하는 것이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매들이 어디에서 지내든 그들을 방문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격려를 해주며, 그들에게 사랑과 관심과 배려에 대해 확신을 시켜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이 맡아야 할 책임 사항입니다. 또한 과거나 현재나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읽기와 글쓰기를 가르칠 때 어둠의 장막을 걷어 내고 문맹인 사람들의 아픔을 가려 줌으로써, 그들의 삶에 이해의 빛을 안겨주는 기회가 있었었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존경하는 자매들로서 한데 잘 어울리고, 여러분이 아니라면 버림받은 채 황폐한 곳에서 지낼 수많은 외로운 이들의 삶에 함께 어우러져 산다는 따사로운 축복을 안겨다 주셨습니다.

저는 어느 날 저녁 선반에서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저는 하이람 스미스의 아내이자 요셉 스미스의 형수며 교회의 두 대관장님의 어머니면서 할머니이셨던 메리 필딩 스미스의 생애에 대해 다시 읽어 보았습니다. 그분은 원래는 잉글랜드 출신인데, 교회로 개종해 캐나다를 거쳐 30대 후반에 커틀랜드로 오셨습니다. 거기서 하이람 스미스를 만나 결혼했는데, 하이람에게는 전처가 죽으면서 남긴 여섯 자녀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메리는 그를 사랑했고 그의 삶에 새로운 빛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그녀는 행복한 것만은 아니었고 말로 다 표현

할 수 없는 정도의 슬픔도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두 어깨에는 나뭇잎을 떠나 아이오와를 횡단해 윈터쿼터스로 가야 하는 힘들고 공포스럽기까지 한 책임이 지워졌습니다. 1848년 오랜 여정 끝에 솔트레이크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나이 51세의 메리는 그 힘든 여행으로 완전히 기진맥진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1852년 9월 21일 지상 생활을 마감하고자 말았습니다.

메리의 생은 그 당시 상호부조회 자매님의 삶을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그녀가 겪은 경험 가운데 일부는 1842년 상호부조회의 조직을 재촉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메리의 아들 조셉은 그녀의 남편이 파 웨스트를 공포에 떨게 했던 폭도들에게 붙잡혀 갔을 때 태어났습니다. 하이람과 예언자 요셉은 미주리 주 리버티로 끌려가 투옥되었습니다. 다 없애 버리라는 명을 내린 릴번 더블류 보그스 주지사의 강압에 못 이겨, 그녀는 자신이 맡고 있던 의붓 자녀들 및 친아들과 함께 미주리를 떠났습니다. 그녀의 동생 머시는 병이 중한 메리는 마차 안의 침상에, 그녀의 어린 아들은 그녀 곁의 요람에 눕혀 놓은 상태였습니다.

1839년 2월, 아직도 대지에는 겨울이 한창일 때, 그들은 미주리 주를 가로질러 동으로 가다가 다시 미시시피를 건너 일리노이 주 퀸시로 갔는데, 마차에 스프링이 없는 바람에 마차가 한 번 덜커덕하고 부딪힐 때마다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남편과 예언자 요셉이 리버티 감옥을 탈출해 퀸시로 오자 다시 생활이 좀 나아지는 듯 했습니다. 성도들은 나부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해 미시시피에다 아름다운 도시를 하나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온도 잠시뿐이었습니다. 메리의 아들이 채 여섯 살도 안된 어느 날 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나가 보니 한 남자가 "스미스 자매님, 남편께서 살해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는 어머니가 밤새 울던 기억을 결코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젠 그녀 혼자 힘으로 대가족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1846년 여름, 그들은 정든 집을 떠나

벽선을 타고 미시시피를 건넜습니다. 모든 일을 혼자 떠맡아야 했던 메리는 직접 우마차를 팔거나 빌리고 때론 물물 교환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윈터쿼터스에서 지내는 동안 동생과 함께 미주리 강을 따라 내려가 식량과 의복을 구입하러 간적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겐 마차가 두 대 있었는데, 마차에는 각각 황소가 두 마리씩 달려 있었습니다. 밤에 야영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제일 좋은 황소 두 마리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어린 조셉과 그의 삼촌은 아침 내내 잃어버린 소를 찾아다녔지만 한 마리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상심한 채 어머니에게로 돌아와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말이지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가 가까이 갔을 때 그의 어머니는 무릎 꿇고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 당면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선 그녀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아들과 동생에게 아침 식사를 하라고 한 다음 자신은 주변을 살펴 보았습니다. 작은 시냇물을 따라가던 그녀는 그 지역에 있던 한 남자의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직접 강둑을 따라갔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그녀는 아들과 동생을 큰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리곤 자신들의 황소를 가르켰는데, 녀석들은 깊은 협곡 밑에서 자라는 버드나무 숲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다른 데를 일러주려 했던 도둑은 다 잡은 물고기를 놓친 셈이 되었고, 소들은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메리의 신앙은 어린 아들의 가슴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그는 결코 그 일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또한 어머니가 주님과 아주 가까이 있음을 전혀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들이 서부에 있는 이 계곡으로 가는 도중에 그녀의 황소 중 하나가 탈진해 쓰러져 거의 죽어갈 때 그녀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엄청난 절박함과 순수한 신앙이 한데 섞여 있는 상황에서, 그녀는 성별된 기름을 구해 동생과 동료 한 명에게 소를 살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소는 결국 힘을 얻어 소생해 두 다리로 딛고

일어섰으며, 남은 여정 동안 그들의 발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 여인의 삶을 빛나게 했던 것은 바로 부드럽고 순수하면서도 아름다운 신앙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빛 안에서 걸어갔던 분이었습니다. 그 빛으로 삶을 영위했습니다. 그것은 메사에 그녀를 인도해 주었습니다. 메리의 삶의 나침반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 교회 자매님들의 크나큰 신앙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상호부조회의 자매님들은 최선봉에 서서 이 놀라운 조직의 헌신적인 사업들을 펼쳐 나가고 계십니다.

오늘을 사시는 자매님 여러분들은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해 계십니다. 전에는 물론 최소한 우리 세대에도 그런 적이 없었던건, 지금은 사탄의 세력이 그 어느때보다도 막강하고 뻔뻔스러운 정도로 강인하며 공격합니다. 과거에는 감히 입에 올릴 수도 없었던 이들이 지금은 계속 우리들 거실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자들이나 박식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에 대해 화가 날만큼 단순하게 말해 버릴 때, 민감함이란 단어는 모두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맙니다. 이런 것들이 호기심을 유발해 결국은 악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데도 말입니다.

우리가 지도자라고 바라보던 사람들 일부가 우리를 배신했습니다. 우리는 실망했고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 일각의 빙산 밑에는 엄청난 크기의 추잡함과 부도덕함, 그리고 방탕하고 부정직한 행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간단하게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의 문제는, 어쩌면 대부분 사람들의 문제일테지만, 사람들의 가정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혁신을 하고, 변화를 기하며, 예전의 성스런 가치들로 돌아가길 원한다면, 그것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가정에서 진리가 가르쳐지고, 온전함이 자라나며, 자율이 몸에 배고, 사랑이 길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가정은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많은 가족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사랑으로 가족을 다스려야

할 아버지들은 어디 가 있는 것입니까? 좋은 남성과 결혼해 그에게서 사랑을 받는 여성은 참으로 운이 좋은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여성 역시 남편을 사랑해 주고 남편은 자녀를 사랑하며 그들을 먹이고 가르치며 인도하고,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고된 삶의 과정들을 밟아 나갈 때 그들을 양육하고 보호해 주는 남성이 있는 가정은 진정으로 축복받은 경우입니다.

우리는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가치들을 배웁니다. 그러한 가정은 단출하거나, 가난한 이웃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훌륭한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는 가정은 아주 놀랄만한 교육을 하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제 아내는 샘 레빈슨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는 혼잡한 뉴욕의 한 셋집에서 자라났는데, 결코 좋은 환경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곳 빈민가에서 그의 어머니는 조숙한 여덟 자녀를 키웠습니다. 그는 "저희 집의 도덕적 표준은 다른 어느 가정보다 높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자식들이 거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 하곤 했습니다. "너희들은 거리에 있는 게 아니고 집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 곳은 포도주 창고도 아니고 내기 당구를 하는 곳도 아니란다. 우린 사람답게 행동해야 돼."

만일 우리가 빠져 들어가 있는 이 우울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시온의 여성 여러분! 일어서십시오. 여러분이 직면한 힘든 문제들에 과감히 대처하십시오.

추잡함과 불결함과 여러분 주변을 맴돌고 있는 유혹에 대항하십시오.

독신 자매 여러분, 혹시 이중에 결혼하신 분들, 그리고 작업장에 계시는 여러분들께 제가 한 가지 주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남성들과 나란히 일을 합니다. 점심 먹으러 가자, 또는 표면상 사업에 관해 얘기 하지는 등의 권고가 점차 늘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행을 함께 가기도 합니다. 같은 호텔에 묵습니다. 그리곤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 가운데에는 피하기가 힘든 일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은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은 하시되 거리를 두십시오. 다른 여성의 가정을 깨지게 하는 요인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유혹적인 데에서 멀어지십시오. 사악함, 바로 그러한 모습을 피하십시오.

아내이면서 어머니인 여러분은 가정이라는 배의 닻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낳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하고 신성한 의무입니까. 제가 들은 바로는 1972~1990년 사이에 미국에서만 2천 7백 만 건의 낙태가 행해졌다고 합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도대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낙태는 죄악입니다. 음울하며 현실적이고 불유쾌한 행위인 낙태가 지구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의 자매님들에게 이를 피하고 그것에서 떠나며 낙태를 바람직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상황과 타협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낙태가 이뤄질 수 있는 때도 더러 있긴 하지만, 그것은 아주 극단적인 경우이고, 낙태는 대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딸들의 어머니입니다. 그들의 생명은 아주 고귀한 것입니다.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은 가볍게 다뤄져서는 안 될 거룩한 책무입니다.

여러분은 결혼 생활에 자양분을 주어 잘 가꾸십시오. 그것을 보호하고 굳건하고 아름답게 유지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이혼 역시 너무 흔한 것이 되어 버려, 최근 몇 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결혼한 사람들의 반이 이혼할 것입니다. 말씀드리기 유감스럽지만, 심지어는 주님의 집에서 인봉된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결혼은 전능하신 분의 계획하에 남녀간에 이뤄진 계약이고 서약이며 결속입니다. 그것은 깨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살핌과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남편들 가운데 일부가 학대적이고, 불친절하고, 배려를 해주지 않고, 사악하다는 점을 인정하자니 마음이 아픕니다. 그들

은 외설적인 데 탐닉하며, 자신은 물론 가족과 기타 모든 신성한 관계를 파멸로 이끄는 상황을 몰고 옵니다.

한때 젊고 아름다운 여인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주님의 집의 제단을 가로질러 그녀를 안아 주면서 서로 거룩하고 영원한 약속을 했지만, 자기 통제력이 부족해 좀더 나은 성품을 개발하지 못하고 사악함에 빠져, 주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관계를 파괴하는 형제를 보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자매 여러분,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십시오. 그들은 험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 힘이 그를 주위를 온통 감싸고 있습니다. 저는 훌륭한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의 여러 아들딸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와 동시에 점점 세상적인 길로 빠져드는 그 밖의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걱정이 됩니다. 어머니로서 여러분에게 자녀보다 더 소중한 존재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자녀는 여러분이 현세나 이 다음 세상에서 갖게 될 모든 것 가운데 가장 값진 대상입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여러분이 세상으로 데려온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을 바라보며 그들 가운데에서 의롭고 유덕한 생활과 온전한 행위를 발견할 때, 여러분은 진정으로 행복해지실 것입니다.

저는 자녀를 키우고 보살피는 일은 그저 시간을 들여 하는 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매님들 중엔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좀더 사치스런 삶을 위하여, 또한 좀더 좋은 장난감을 구하기 위한 방편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 너무 많을까 봐 걱정스럽습니다.

만일 일을 하셔야 한다면, 여러분이 감당할 짐이 늘어났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 돌보기를 게을리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공부할 때나 가정 안팎에서 일을 할 때나, 여러분의 관리를 필요로 합니다. 그럴 때 적절한 사랑과 축복과 용기와 어머니의 친밀감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여러분뿐입니다.

현재 사방에서 가정들이 파탄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족 관계는 여성들이 두 가지의 일에서 오는 어려움을 무릅쓰고 다 잘하려 할 때 무리가 따릅니다.

저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 즉, 거리의

어린이에 관한 총관리 역원의 말씀

1998년 10월 3-4일에 개최된
제168차 빈연차대회 말씀에서 발췌함

쟁들, 어린이가 어린이를 살해하는 일, 결국은 감옥이나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고야 마는 일들로 시간을 보내는 것 등을 개탄하는 지도자들과 이야기를 할 기회가 많습니다. 우리는 남편 없는 미혼모에게 태어나는 어린이들이 놀랄 만큼 많은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한 어린이들의 장래는 이룰 수 없이 그들이 태어난 날부터 거의 황폐화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정에는 훌륭한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 그러한 필요 사항을 수용하기 위해 서둘러 감옥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어머니들이신 여러분이 이와 같은 상황을 바꾸기 위해 다른 어떤 단체보다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다고 주저하지 않고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런 모든 문제는 사람들의 가정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결국 결혼 가정들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따라서 오늘 밤 저의 동료이신 여러분에게 드리는 저의 메시지와 간구는 이렇습니다. 부디 가정을 강화시키는 일에 다시 헌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바로 이 모임에서, 저는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평의회가 준비한 가족 선언문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낭독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것을 한 부씩 갖고 계시면서 가끔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 깊게 이것을 읽을 시기 바랍니다. 그 선언문은 결혼과 가족,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하에 거룩하게 결속된 남성과 여성에 관한 우리의 의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이 교회의 자매님들과 여러분이 가르치고 훈련하며 세상에서 그들 나름의 자리를 잡도록 돕고 계시는 여러분의 아들딸들에게 정말 감사드린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과업은 결코 끝나는 법이 없을 것입니다. 절대 완결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훌륭하고 신성한 임무에 함께하시길 축원합니다.

제 축복과 간증과 사랑을 여러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 드립니다. 아멘.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스도께 예배드립니다.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받들겠다는 엄숙한 성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는 그분의 이름을 딴 교회입니다. 그분은 위대한 속죄를 통해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얻도록 해주신 우리의 주님이요, 구세주요, 구속주 이십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그러시아, 당케, 메르시, 어떤 언어로든지 간에, 자주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쓰게 되면 우리의 기분이 밝아지고, 친분 관계가 넓어지며, 완전을 향한 여정에서 생활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에는 간결성 심지어, "순수성"까지 들어 있습니다.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여러분의 부모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동의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관계없이 그 분들에게 순종하십시오. 부모님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하며, 또한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커다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자신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쓴 작은 천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인 모든 사람들은 주

님 보시기에 위대합니다. 만약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시에 위대하다고 여기신다면,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러셀 엠 넬슨,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잠재력은 무한합니다. 우리의 유산은 신성합니다. 우리가 늘 그 유산을 존중하면서 모든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구세주께서 살아 계심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이 올바른 일을 하겠다고 끊임없이 결심할 때, 성신을 통하여 여러분을 상상 이상의 영광스러운 미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는 주님이 그렇게 하시리라는 것을 압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 자신들이 몰몬경의 참됨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를 읽어야만 하고, 모로나이서에 나와 있는 대로 몰몬경이 참된 것인지를 알기 위해 기도해 보라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우리의 친구들도 그러한 선택을 하고 똑같은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로널드 티 할버슨 장로,
칠십인 정원회:

온 세상의 구도자들이 간절히 찾고자 소망하는 마음의 기쁨과 평화는 복음의 원리를 알고 실천하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에이치 데이비드 버튼 감독,
관리 감독:

많은 사람들은 “안식일”과 “노는 날”을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저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영의 속삭임을 들을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계명 가운데 하나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유 젠슨 자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

만일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기울인다면, 우리는 실족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살아계신 예언자를 통해 그분의 음성을

경청하고 그 권고에 따른다면, 우리는 결코 잘못 되지 않을 것입니다.

수전 엘 워너 자매,
본부 초등협회 회장단 제2보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기를 원하시므로 그분과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훌륭한 창조물들로 가득 찬 세상을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구세주를 증거하는 것들을 모두 세어 본 일이 있습니까? 저녁 노을과 조개비, 라일락과 호수, 여러 곤충과 동물들, 기적과 같은 아침과 별이 빛나는 밤하늘, 이런 것들은 다 구세주를 증거합니다.



그림: 하이메 티 멘다메, 생명의 나무

리아는 이렇게 말했다. “죽히 시름을 행복하게 해줄 만큼 먹음직스러운 열매가 달린 나무 한 그루를 보아, ...또한 내가 그 열매를 따먹음에

나의 심령이 크나큰 기쁨으로 가득아진지라...” (나사렛서 8:10, 12) “나도 눈을 들어 주변을 살펴보니, 건물 건너편에 크고 넓은 건물아...시 있는 것을 보게 되니라.” (26)

건물로 들어간 무리가 “나의 열매를 따먹은 다른 사람들을 순기랄질하며 조롱하였으나, 우리는 개의지 아니하였노라.” (33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세계 곧 옛 유대에서 행하신 것처럼 신세계에서 그분의 제자들이 행하도록 성찬 의식을 제정해 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의식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는 항상 너희가 나를 기억할 것을 아버지께 증거함이라. 또한 너희가 항상 나를 기억할진대 나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 (니파이삼서 18:7)